

강원도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지원 방안

2021.10.



제출문

강원도의회 젠더연구회 귀하

본 보고서를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0월

(주)꾸림 대표 임혜순

차례

3	01 들어가며
3	01.1. 연구배경과 목적
4	01.2. 연구범위와 방법
10	02 1인 가구와 여성
10	02.1. 인구변화
35	02.2. 여성 1인 가구 변화
50	03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실태
50	03.1. 통계로 보는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실태
74	03.2.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상상 워크숍
91	04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 사례
91	04.1. 자치법규 제정
109	04.2. 청년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및 지원
120	04.3.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
124	04.4. 커뮤니티
129	05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제언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 방안(2021.10.)]

연구진 임혜순(꾸림 대표), 이주희(꾸림 객원연구원), 김혜민(꾸림 지역연구팀 연구원)

강원도의회 젠더연구회 · (주)꾸림



(주)꾸림

2014년 설립된 지역연구, 컨설팅,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사회 재생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역'중심의 민간연구기관입니다.

01 들어가며

01.1. 연구배경과 목적

01.2. 연구범위와 방법

01. 연구배경과 목적

- 1, 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 ↳ 혼자 사는 여성의 증가
 -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0%를 차지하며 이 중 여성이 53%로 나타나 가구소형화와 더불어 혼자 사는 여성 증가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욕구와 가중되는 주거비
 - 1인 가구는 보증부월세에 주로 거주하여 높은 주거비 부담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우 치안 등과 관련한 안전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
- 늘어나는 청년여성 1인 가구와 지자체 주거지원
 - 2019년 강원도 내 여성 1인 가구는 104,883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50.2%이며 2015년 대비 13.3% 증가
 - 여성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문제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여성의 주거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
-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여성 1인 가구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강원도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과 이를 통한 정책제언 도출을 통해 강원도 거주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

02. 연구범위와 방법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강원도 전역
 - 기초통계조사 - 18개 시·군
 - 실태조사 - 춘천(청년여성 1인 가구 FGI인터뷰)
- 시간적 범위 : 2021년
- 내용적 범위
 - 강원도 내 여성 1인 가구 주거현황(지역별/연령별)
 -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주거실태 조사 및 분석
 -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 사례 분석
 - 강원도 내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 과업기간 : 2021년 6월 ~ 10월(4개월)

○ 과업의 주요내용

1) 통계로 보는 강원도 내 여성 1인 가구 주거현황

- 강원도 내 지역별, 성별, 연령별 1인 가구 현황 및 주거현황 분석을 통한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주거현황 파악
 - :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가족실태조사(여가부) 등 통계DB활용

2)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주거실태 조사 및 분석

- 강원도 내 청년여성 1인 가구 심층면접
 - : 통계로 본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강원도 내 거주 청년여성 1인 가구 유형을 고려한 면접대상자 선정
- 청년여성들의 실제 주거환경, 주거안전과 관련한 경험을 분석하여 다양한 가구구성과 주거기반 마련 과정에서의 경험, 주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등 도출

3)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 사례 분석

- 강원도 및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 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사례 조사 및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공리모델링사업 추진 등 물리적 주택 공급과 주거비지원, 주거안전을 위한 시설물 지원 등 사례

4) 강원도 내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 과업의 방법

1) 통계자료 분석 및 문헌연구

- 주거 및 인구 관련 통계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등 활용
- 여성, 청년, 1인 가구 주거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여성가족, 주택-주거 관련 연구기관 등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등 분석
- 청년, 여성 주거지원 사례 관련 : 지자체 발표자료, 신문기사, 관련 연구자료집 등 활용

2) 강원도 내 청년여성 1인가구 심층인터뷰

- 청년여성 1인 가구 당사자(강원도 내 청년여성 특성을 고려한 인터뷰 대상자 선정)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설문-토론 병행

3) 사례분석

- 전국 공통, 타 시도,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 사례 분석

02 1인 가구와 여성

2.1. 인구변화

2.2. 여성 1인 가구 변화

- 1인 가구(One person household)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하는 통계용어로, 부모 또는 형제, 자매 등의 원가구와 함께 생활하던 가구원이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 단위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함. 가구는 복수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의 형태를 의미하던 것과 달리 1인 가구는 단독 가구원이 가구가 되는 특징을 가지며, 196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핵가족보다 더욱 간소화, 단순화 된 가구의 형태임
-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47년에는 부부세대나 부모+자녀세대 구성의 가구 유형보다 더 많아지며 **가장 많은 유형의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
 -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29세의 청년층으로, 성인기에 진입하여 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원가구에서 독립하는 세대가 가장 많은 특성이 기인한 것으로 보임. 여성 1인 가구 중 20대 청년층의 증가가 매우 크며 남성보다 여성 1인 가구의 취업활동이 더 크게 증가함
- 1인 가구는 1)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가 많고, 2) 이 3개 항목의 증가가 매우 크며, 3) 특히 주거비는 전체 가구에 비해 가장 큰 지출항목임
 - 주거비의 지출이 가장 큰 이유는 1) 임차비용의 증가, 2)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큰 폭 증가, 3) 매월 지출되는 월세의 증가로 볼 수 있음.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대비 주거비 지출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세대이며, 저소득층 청년 1인 가구의 부담은 더 큼
- 1인 가구의 문화/의료/주차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수록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이 중 청년 1인 가구는 주거공간과 환경의 위생, 안전에 민감하고 지방에 거주할수록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는 여전히 소형면적/ 단독주택이나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많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전세나 월세를 위한 주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비 지출 부담에 대한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특히 컨테이너나 마을 회관 등 각종 사건·사고·위험에 노출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많음. 특히 청년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많아 이들의 주거 취약 문제에 관심이 필요
- 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하는 가구 특성상 범죄피해에 대하여 두려움이 크고, 범죄예방이나 개인의 신변보호, 안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내 공동체성을 매우 필요로 함
 - 여성 1인 가구는 주거침입에 대한 피해를 남성 1인 가구나 여성 다인가구에 비해 많이 겪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큼
 - 직장이나 학교와의 접근 용이, 개인의 자유 등을 위하여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하고 있으나 외로움이나 주변의 부정적 인식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심리·정서적 곤란함을 겪음

02. 1인 가구와 여성

02.1. 인구변화

가. 전국의 1인가구 인구변화 양상

- 1인 가구는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가구원수별 가구유형 전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29세 청년층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음
-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에는 ‘부부+자녀’의 가구유형이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으나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유형이 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점차 1인 가구의 증가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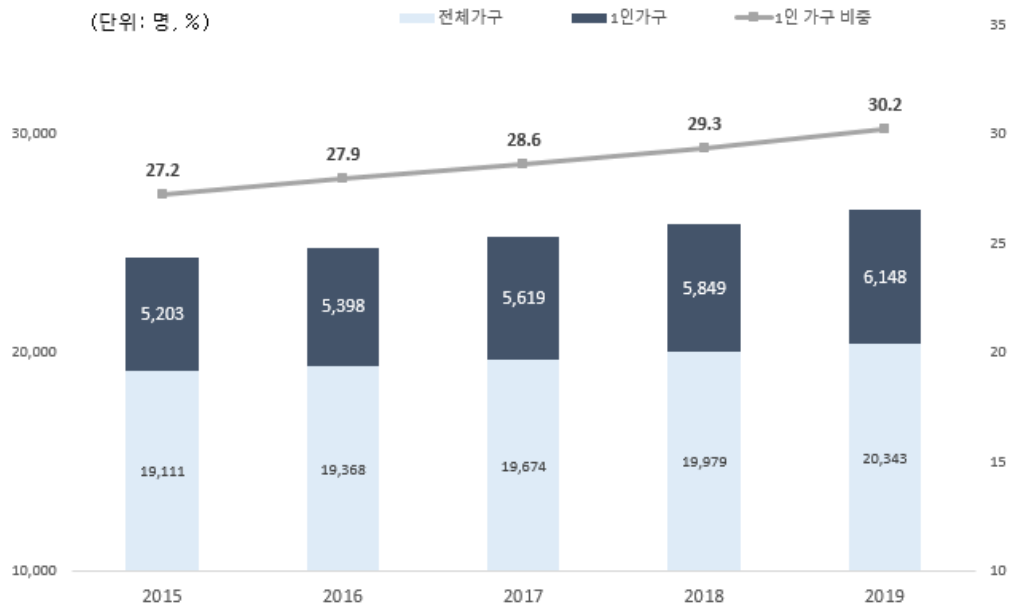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전국의 1인 가구는 총 614.8만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15년 이후 1인 가구의 증가율은 전체 가구 중 가장 큼
 -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9세 청년인구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 50대 > 60대 > 40대 > 70대 > 80대 순으로 많음

[도표 2-1] 가구원 수별 가구 현황

구분 (단위: 천가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증가율
전체	수	19,111	19,368	19,674	19,979	20,343	1.57
	비중	100	100	100	100	100	
1인 가구	수	5,203	5,398	5,619	5,849	6,148	4.26
	비중	27.2	27.9	28.6	29.3	30.2	
2인 가구	수	4,994	5,067	5,260	5,446	5,663	3.19
	비중	26.1	26.2	26.7	27.3	27.8	
3인 가구	수	4,101	4,152	4,179	4,204	4,218	0.71
	비중	21.5	21.4	21.2	21	20.7	
4인 가구 이상	수	4,813	4,751	4,616	4,481	4,315	-2.69
	비중	25.2	24.5	23.5	22.4	21.2	

자료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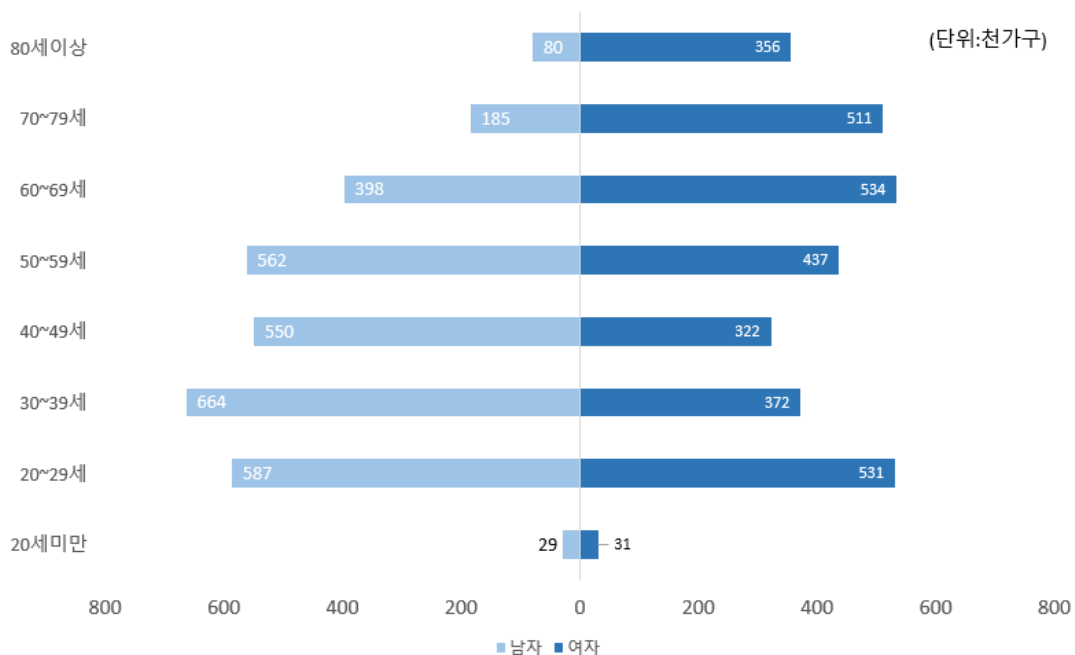
[도표 2-2] 연도별 1인가구 수와 비중 변화



자료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 연령대별 1인 가구의 분포는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1인 가구는 여성의 1인 가구가 남성보다 많고, 40-50대 장년층의 경우 남성 1인 가구가 많음. 20대는 남,녀가 비슷하나 30대는 남성이 여성의 2배 수준으로 많음

[도표 2-3] 성별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중(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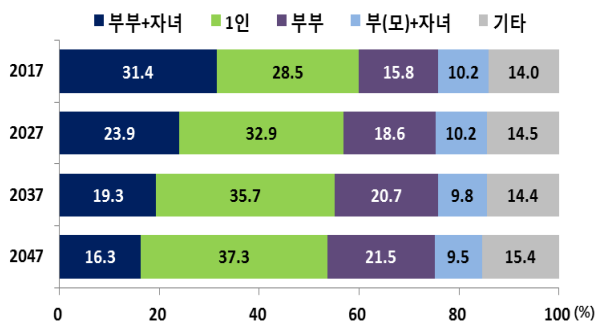
[도표 2-4] 1인가구의 연령대별 분포(2019년 기준)

구분 (단위: 천가구, %)		20세 미만	20~29세 미만	30~39세 미만	40~49세 미만	50~59세 미만	60~69세 미만	70~79세 미만	80세 이상
전체	수	59	1,118	1,036	872	999	933	696	435
	비중	1	18.2	16.8	14.2	16.3	15.2	11.3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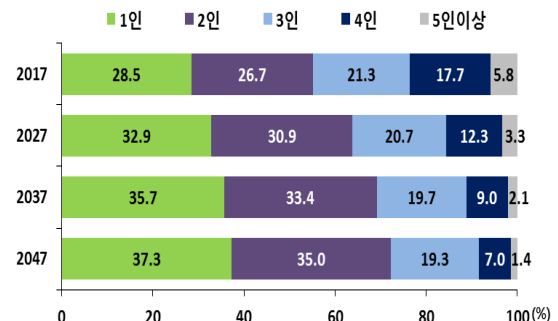
자료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 장래가구 특별추계(2017-2047)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5%로 부부+자녀가구(31.4%)보다 적었으나 2047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 부부+자녀가구 31.4%(615만 가구) > 1인가구 28.5%(558만 3천 가구) > 부부가구 15.8%(309만 3천 가구)
 - 2047년 : 1인 가구 37.3%(832만 가구) > 부부가구 21.5%(479만 4천 가구) > 부부+자녀가구 16.3%(363만 8천 가구)
- 2047년까지 1인 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중은 가장 크게 증가하고 부부+자녀가구의 비중은 가장 크게 감소
-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구 변화에 대한 전망은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보다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203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7% 수준으로 예상

[도표 2-5]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2017-2047)



[도표 2-6] 주요 가구원수별 구성비(2017-2047)



자료 : 장래가구추계

나. 1인 가구의 경제활동

-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5-29세 사이의 청년층 1인 가구의 취업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매년 그 수의 증가가 큰 편
- 1인 가구 중 대졸 이상의 1인 가구의 취업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취업자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나 증가하는 동향을 살펴보면 여성의 증가가 남성보다 큰 폭으로 확인

○ 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 취업자인 가구는 총 3,700천 가구이며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3.1%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0년의 취업 1인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64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30-39세>40-49세>15-29세>65세 이상 순임

○ 그러나 연령대별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15-29세의 청년층은 65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 비해 증가 수준이 가장 큰 연령대로 확인됨. 이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신규(최초)취업하는 1인 독립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해석

[도표 2-7] 연도별/연령대별 1인가구 취업현황

구분 (단위: 천가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전 체	수	3,174	3,288	3,431	3,537	3,671	3,700	3.1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29세 이하	수	559	582	644	673	687	691	4.33
	비중	17.6	17.7	19.0	19.0	18.7	18.7	
30-39세 이하	수	802	807	815	815	830	816	0.35
	비중	25.3	24.5	23.0	23.0	22.6	22.0	
40-49세 이하	수	682	701	720	728	715	699	0.49
	비중	21.5	21.3	20.6	20.6	19.5	18.9	
50-64세 이하	수	802	859	908	940	1,012	1,025	5.03
	비중	25.3	26.1	26.6	26.6	27.6	27.7	
65세 이상	수	330	340	345	381	427	471	7.37
	비중	10.4	10.3	10.7	10.8	11.6	12.7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 1인 가구의 취업현황은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대졸이상의 1인 가구 취업자가 가장 많으며 증가폭도 가장 큼
- 취업자인 1인 가구는 남녀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나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의 비중은 감소하고 여성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도표 2-8] 연도별/교육정도별 1인가구 취업현황

구분 (단위: 천가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감율
전 체	수	3,174	3,288	3,431	3,537	3,671	3,700	3.1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졸 이하	수	665	683	662	664	675	675	0.30
	비중	21.0	20.8	19.3	18.8	18.4	18.2	
고졸	수	1161	1210	1282	1309	1334	1319	2.59
	비중	36.6	36.8	37.4	37.0	36.4	35.6	
대졸 이상	수	1,347	1,395	1,486	1,564	1,662	1,706	4.84
	비중	42.4	42.4	43.3	44.2	45.3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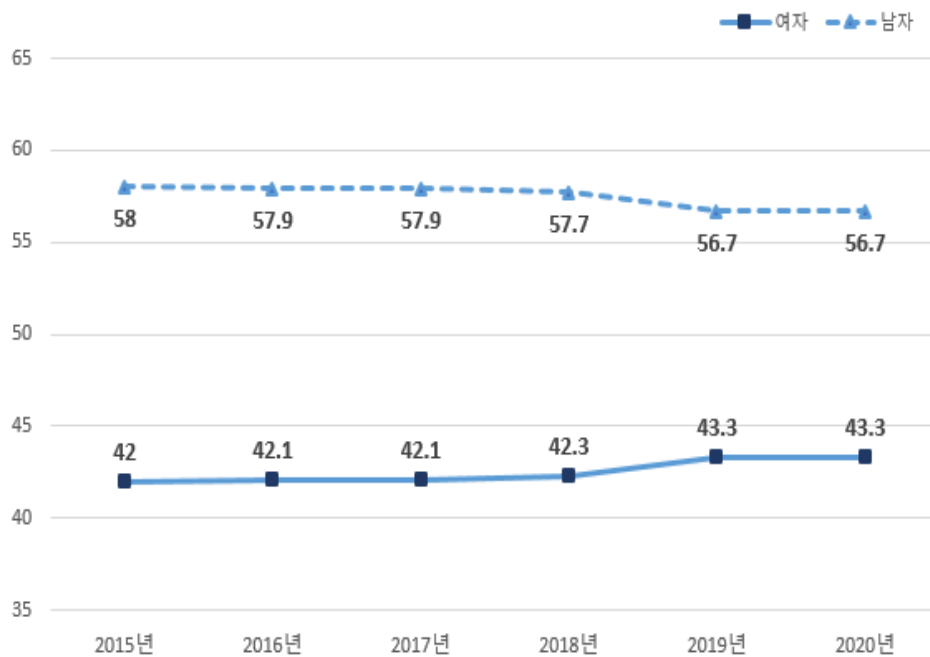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도표 2-9] 연도별/성별 1인가구 취업현황

구분 (단위: 천가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 체	수	3,174	3,288	3,431	3537	3,671	3,70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	수	1,333	1,384	1,446	1,496	1,589	1,604
	비중	42.0	42.1	42.1	42.3	43.3	43.3
남성	수	1,841	1,904	1,985	2,041	2,081	2,097
	비중	58.0	57.9	57.9	57.7	56.7	56.7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2020)

[도표 2-10] 연도별/성별 1인가구의 취업 비중 (단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2020),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참조

다. 1인 가구의 소득과 지출

- 1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은 꾸준히 증가하나 부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수준이 전체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의 소비 지출은 식료품비와 주거비에서 가장 많으며 전체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의 비중이 크고 특히 주거비의 차이가 가장 큼
- 1인 가구의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역시 전체 가구에 비해 큰 편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주거비와 건강, 안전비용은 전체 가구에 비해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

- 1인 가구의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다소 작은 금액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이 전체 가구에 비해 큰 편임

[도표 2-11] 연도별 1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의 변화

구분 (단위: 백만원,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전체		10,956	11,410	11,655	11,847	2.6%
	경상소득	5,478	5,705	5,828	5,924	2.6%
	근로소득	3,499	3,640	3,781	3,791	2.7%
	사업소득	1,217	1,243	1,177	1,151	-1.8%
	재산소득	353	380	380	417	5.7%
	공적이전소득	328	351	387	457	11.7%
	사적이전소득	81	91	102	107	9.7%
1인가구		3,923	4,126	4,233	4,323	3.3%
	경상소득	1,961	2,063	2,116	2,162	3.3%
	근로소득	1,070	1,094	1,142	1,122	1.6%
	사업소득	352	392	372	345	-0.7%
	재산소득	142	137	134	160	4.2%
	공적이전소득	267	295	319	372	11.7%
	사적이전소득	131	145	150	162	7.3%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산과 부채 역시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자산과 부채 금액은 작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가구에 비해 다소 크게 확인

[도표 2-12] 연도별 1인가구의 평균 자산과 부채 변화

구분 (단위: 백만원,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전체	자산	평균금액	38,671	42,036	43,191	44,543	4.82
		가구비율	100.0	100.0	100.0	100.0	
	부채	평균금액	7,099	7,668	7,910	8,256	5.16
		가구비율	63.5	64.1	63.8	63.7	
1인가구	자산	평균금액	14,444	15,689	16,055	17,551	6.71
		가구비율	100.0	100.0	100.0	100.0	
	부채	평균금액	1,923	2,188	2,089	2,521	9.45
		가구비율	37.1	39.2	38.7	39.9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비지출의 경우 전체 가구와 1인 가구를 비교하면 금액 자체는 모든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역시 그 증가폭은 1인 가구가 더 큼
- 전체 가구의 경우 식료품비와 의료비의 증가가 가장 크고 주거비의 증가는 큰 차이가 없으나 1인 가구의 경우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의 증가가 지속적이며 그 폭이 5% 내외로 다소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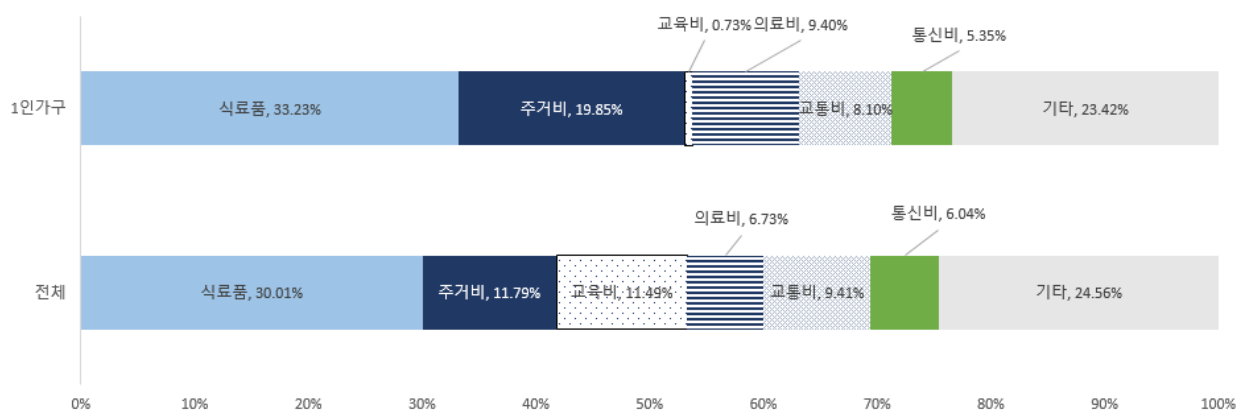
[도표 2-13] 연도별 1인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의 변화

구분 (단위: 만원,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가구	2,473	2,601	2,692	2,732	3.4%
식료품	709	757	793	820	5.0%
주거비	304	318	315	322	1.9%
교육비	317	317	318	314	-0.3%
의료비	162	167	177	184	4.3%
교통비	260	265	263	257	-0.4%
통신비	172	170	166	165	-1.4%
기타	550	607	660	671	6.9%
1인 가구	1,079	1,152	1,182	1,234	4.6%
식료품	339	365	389	410	6.5%
주거비	216	233	234	245	4.3%
교육비	8	15	7	9	4.0%
의료비	97	97	105	116	6.1%
교통비	104	107	100	100	-1.3%
통신비	65	65	63	66	0.5%
기타	249	270	284	289	5.1%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순이나 전체 가구는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 순으로 소비하는 항목의 비중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남
- 또한 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주거비의 비중 차이가 가장 큼

[도표 2-14] 2020년 전체인구와 1인가구의 비목별 소비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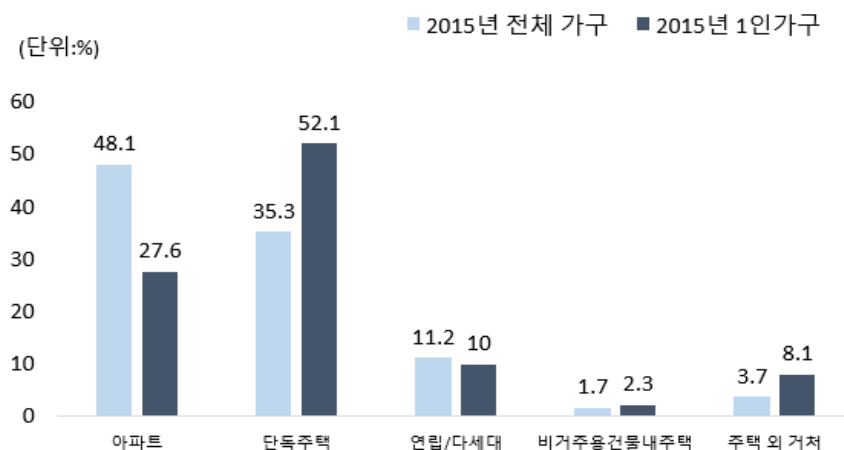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라. 1인 가구의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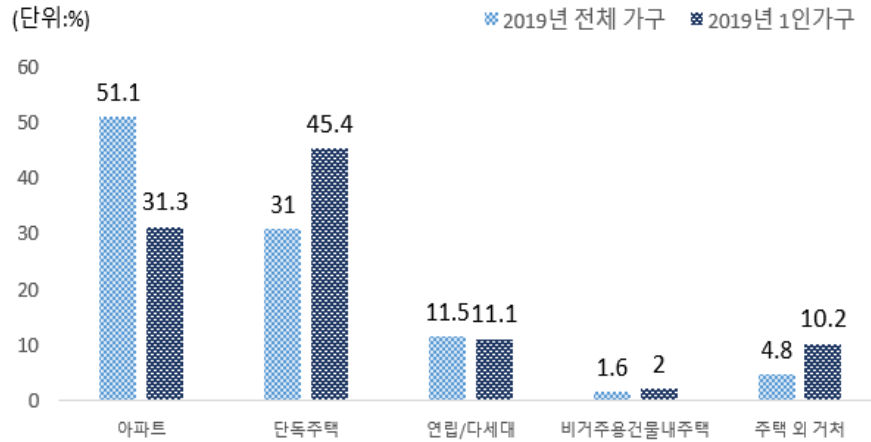
- 1인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고, 전체 가구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중이 매우 낮으며,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음. 또한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40㎡이하의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유형 공급의 고려가 필요
- 또한 1인 가구의 임차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전세와 월세 보증금의 상승이 매우 빨라지고 매월 부담하는 임대료가 전체 가구보다 많음. 특히 저소득층 청년 1인가구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도시, 농촌 지역 구분없이 상승하고 있음. 1인 가구는 주거비용과 관련된 자금 지원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고 임대아파트 거주 등 안정된 주거환경 보장에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1인 가구는 문화시설, 주차시설, 의료시설 등 일상생활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주거 만족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침.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위생과 안전에 민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문화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19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외 거처>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이 확인됨
- 전체가구와 1인가구 모두 아파트 거주 비중이 커지고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작아졌으며 주택 외거처에 거주하는 비중도 약간 증가함. 단, 1인 가구의 경우 여전히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많고 아파트보다 더 큼. 또한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전체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도표 2-15]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주택유형 비중(2015년)



[도표 2-16]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주택유형 비중(2019년)



자료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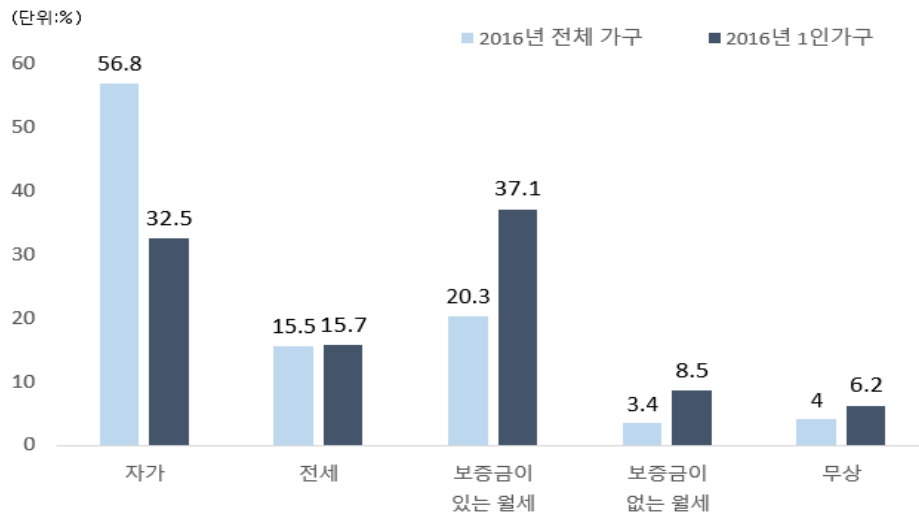
[도표 2-17] 1인가구의 주택유형 변화

구분 (단위 : 천가구, %)			전체	주택				주택 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체 가구	2015년	가구	19,111	9,197	6,739	2,133	328	714
		%	100.0	48.1	35.3	11.2	1.7	3.7
	2016년	가구	19,368	9,422	6,640	2,219	316	770
		%	100.0	48.6	34.3	11.5	1.6	4.0
	2017년	가구	19,674	9,671	6,549	2,269	327	858
		%	100.0	49.2	33.3	11.5	1.7	4.4
	2018년	가구	19,979	10,013	6,415	2,312	319	920
		%	100.0	50.1	32.1	11.6	1.6	4.6
	2019년	가구	20,343	10,405	6,312	2,339	318	969
		%	100.0	51.1	31.0	11.5	1.6	4.8
1인 가구	2015년	가구	5,203	1,434	2,711	518	121	420
		%	100.0	27.6	52.1	10.0	2.3	8.1
	2016년	가구	5,398	1,504	2,743	559	116	476
		%	100.0	27.9	50.8	10.4	2.2	8.8
	2017년	가구	5,619	1,606	2,765	595	123	530
		%	100.0	28.6	49.2	10.6	2.2	9.4
	2018년	가구	5,849	1,751	2,762	636	121	579
		%	100.0	29.9	47.2	10.9	2.1	9.9
	2019년	가구	6,148	1,927	2,790	680	124	626
		%	100.0	31.3	45.4	11.1	2.0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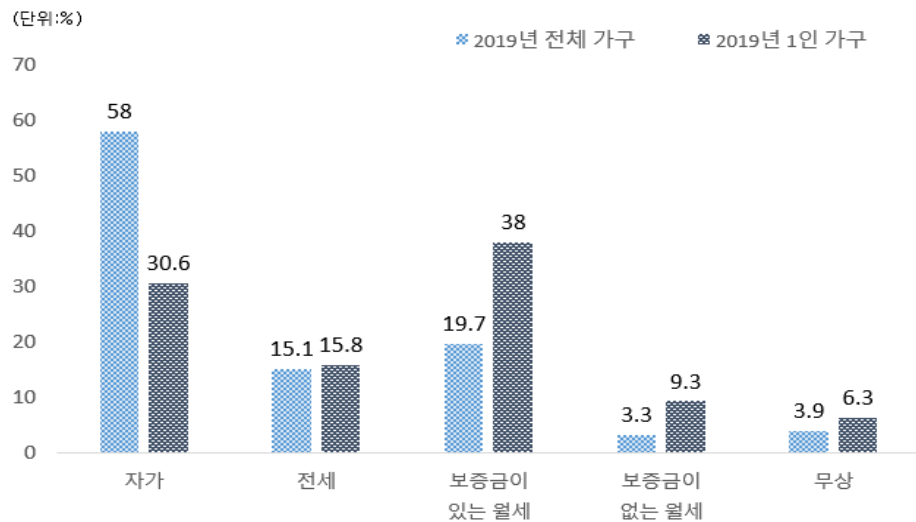
자료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참조

- 다음으로, 가구별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1인 가구와 전체 가구의 다음의 특성 차이를 보임
-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자가의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낮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와 무상점유 비중이 훨씬 높음.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자가 점유 비중이 감소하고 전세, 월세 등 임차가구 비중이 증가함.

[도표 2-18]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주택 점유유형 비중(2015년)



[도표 2-19]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주택 점유유형 비중(2019년)



자료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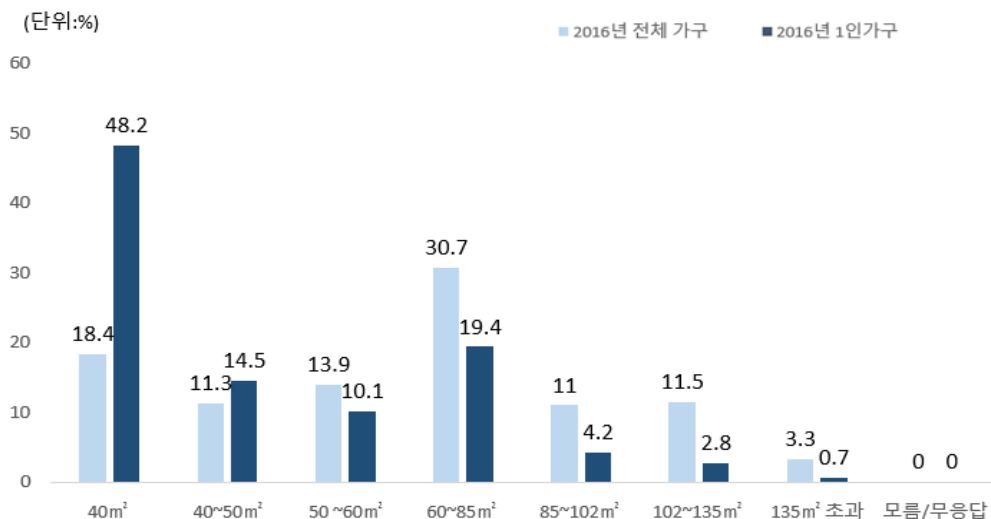
[도표 2-20] 1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구분 (단위 : %)							
		전체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무상
전체 가구	2016년	100.0	56.8	15.5	20.3	3.4	4.0
	2017년	100.0	57.7	15.2	19.9	3.4	3.9
	2018년	100.0	57.7	15.2	19.8	3.3	4.0
	2019년	100.0	58.0	15.1	19.7	3.3	3.9
1인 가구	2016년	100.0	32.5	15.7	37.1	8.5	6.2
	2017년	100.0	32.7	13.3	38.1	9.9	6.0
	2018년	100.0	30.9	14.3	39.0	9.2	6.6
	2019년	100.0	30.6	15.8	38.0	9.3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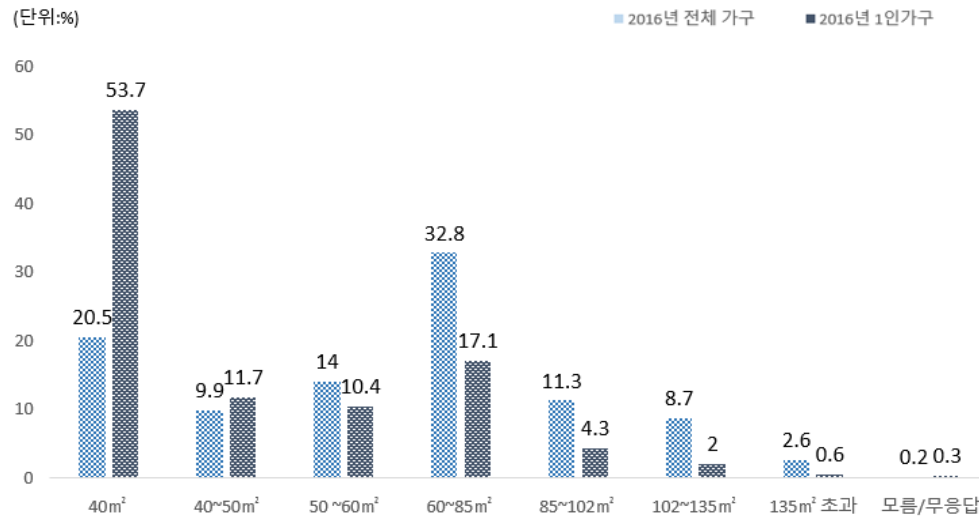
자료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참조

- 1인 가구는 주거면적에서도 전체 가구와 큰 차이를 보임. 1인 가구는 40㎡ 이하의 소형에 주거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많고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함. 그 이상의 면적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감소 추세로 확인
- 전체 가구는 1인 가구와 다르게 60-85㎡ 에 거주하는 가구비중이 가장 크고 점차 증가

[도표 2-21]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주택 면적별 비중(2015년)



[도표 2-22]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주택 면적별 비중(2019년)



자료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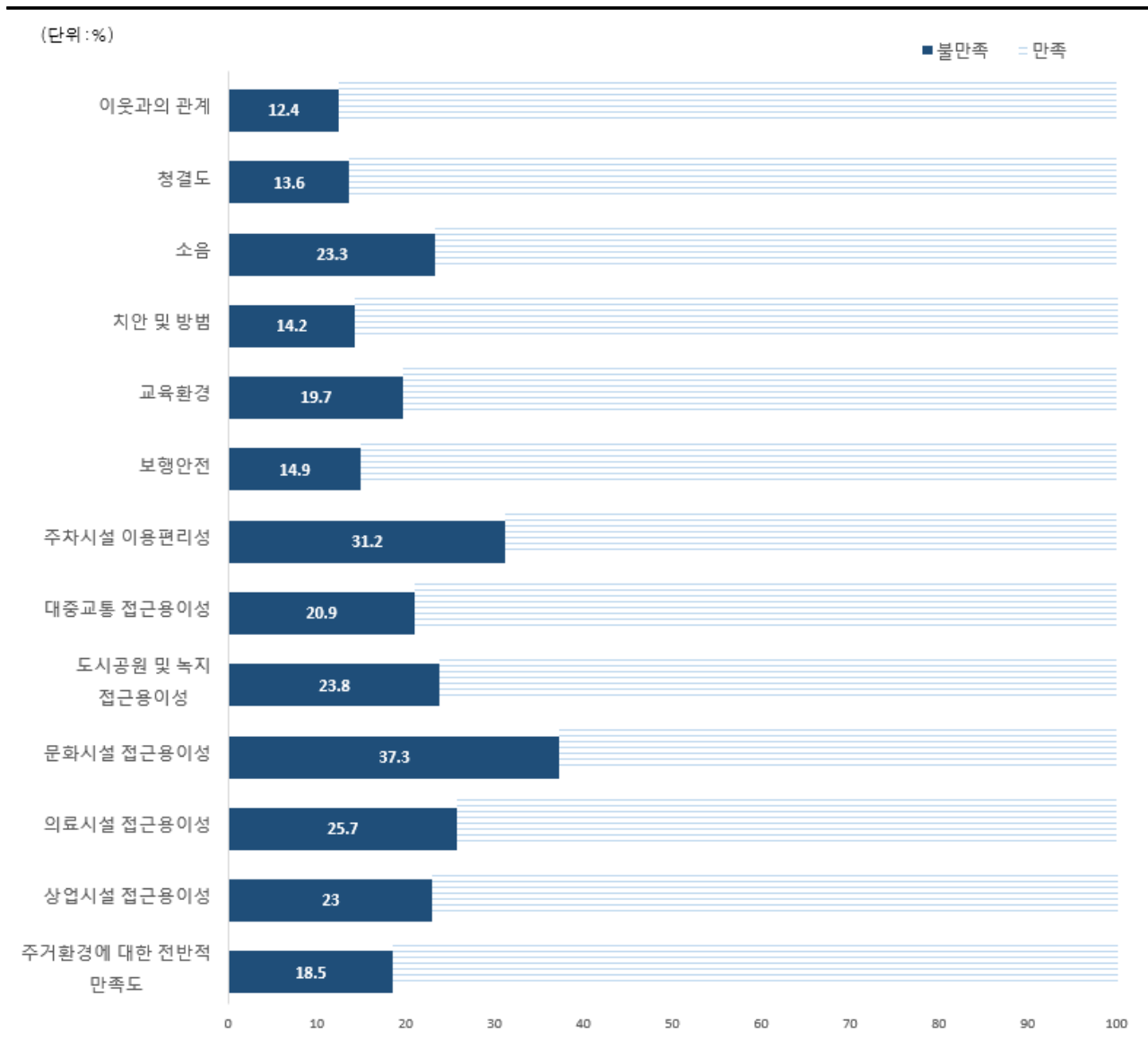
[도표 2-23] 1인가구의 주거면적

구분 (단위 : %)		전체									평균 (㎡)
			40㎡ 이하	40㎡ ~50㎡	50㎡ ~60㎡	60㎡ ~85㎡	85㎡ ~102㎡	102㎡ ~135㎡	135㎡ 초과	모름/ 무응답	
전체 가구	2016년	100.0	18.4	11.3	13.9	30.7	11.0	11.5	3.3	0.0	70.1
	2017년	100.0	20.6	12.2	18.1	32.9	8.0	6.2	1.8	0.1	65.4
	2018년	100.0	21.2	11.1	17.2	33.9	7.6	6.8	2.0	0.1	66.2
	2019년	100.0	20.5	9.9	14.0	32.8	11.3	8.7	2.6	0.2	68.1
1인 가구	2016년	100.0	48.2	14.5	10.1	19.4	4.2	2.8	0.7	0.0	48.5
	2017년	100.0	52.9	14.4	11.3	15.8	3.4	1.5	0.6	0.1	44.7
	2018년	100.0	54.4	13.5	11.4	15.5	3.3	1.4	0.3	0.2	44.0
	2019년	100.0	53.7	11.7	10.4	17.1	4.3	2.0	0.6	0.3	45.1

자료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참조

- 전체 1인 가구 중 81.6% 수준은 현재의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주거환경 조건에 대하여는 차이를 보임
 - 가장 만족하는 조건은 이웃과의 관계이나 가장 불만족하는 조건은 문화시설 접근 용이성> 주차시설 이용 편리성> 의료시설 접근 용이성 순으로 확인
 - 일상생활의 주요 편의장소·시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주거 만족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도표 2-24] 1인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



자료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참조

-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를 그 외 특성 가구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수도권/신혼부부] 이며, 그 다음은 [비수도권/청년가구], [비수도권/신혼부부] 순임. 가장 낮은 집단은 [비수도권/노인가구]로 확인
- 청년 가구의 경우 신혼가구만큼 전체 가구 중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계층으로 확인되나 일반 가구나 부부세대 등과 그 특성이 다름
 - 수도권 청년가구는 주차시설에 대하여 가장 불만족하는데 이는 전체 평균보다도 만족도 수준이 낮아 청년가구의 주차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 주변청결과 치안문제는 가장 만족하는 조건인데, 이는 전체 가구 평균보다 높아 두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비수도권의 청년가구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가장 불만족하고 치안문제와 주변청결에 대하여 가장 만족하는데, 이 3가지 조건 모두 전체 가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 주거환경 만족도의 각 조건에 대한 청년가구의 만족 수준으로 볼 때, 청년가구는 치안 문제, 주변청결 문제에 대하여 타 가구유형보다 민감하고, 특히 비수도권 청년가구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가장 불만인 점이 확인됨
- 청년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0~34세 미만인 경우로 청년 가구 전체를 1인 가구로 특정하기 어려우나,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1인 가구 중 청년층은 주거지 주변 환경, 특히 위생과 안전에 대한 조건에 민감하며 이 중 비수도권 거주가구는 문화시설에 불만족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도표 2-25] 2019년 특성가구별 주거환경 만족도

구분 (단위:점)		전반적 만족도	편의 시설	의료· 복지 시설	공공 시설	문화 시설	공원· 녹지	대중 교통	주차 시설	보행 안전	교육 환경	치안 문제	소음 문제	주변 청결	대기 오염	지역 유대
수도권	일반 가구	2.96	2.96	2.94	2.98	2.75	3.00	3.04	2.81	3.02	2.98	3.05	2.88	3.05	2.94	3.05
	청년 가구	2.97	2.99	2.97	2.99	2.79	2.95	3.11	2.73	3.01	2.98	3.03	2.85	3.04	2.91	3.00
	신혼 가구	3.00	2.96	2.97	3.00	2.77	3.05	3.03	2.87	3.03	2.97	3.08	2.89	3.10	2.93	3.09
	노인 가구	2.93	2.87	2.85	2.89	2.67	2.95	2.98	2.81	3.00	2.93	3.00	2.89	3.01	2.96	3.07
	소득 하위 가구	2.89	2.90	2.88	2.90	2.67	2.88	3.00	2.69	2.95	2.91	2.96	2.81	2.96	2.90	2.99
	평균	2.95	2.94	2.82	2.95	2.73	2.97	3.03	2.78	3.00	2.95	3.02	2.86	3.03	2.93	3.04
비수도권	일반 가구	2.92	2.87	2.85	2.90	2.67	2.97	2.90	2.86	3.03	2.93	3.05	2.94	3.09	3.06	3.10
	청년 가구	2.99	2.98	2.97	3.00	2.80	3.03	3.00	2.91	3.07	3.04	3.09	2.93	3.10	3.03	3.00
	신혼 가구	2.98	2.93	2.94	2.99	2.76	3.06	2.94	2.94	3.09	3.05	3.14	3.01	3.18	3.07	3.10
	노인 가구	2.82	2.67	2.64	2.72	2.47	2.85	2.76	2.83	2.97	2.76	2.96	2.93	3.05	3.08	3.18
	소득 하위 가구	2.83	2.74	2.71	2.78	2.53	2.86	2.81	2.80	2.96	2.80	2.96	2.89	3.01	3.04	3.09
	평균	2.91	2.84	2.82	2.88	2.65	2.95	2.88	2.87	3.02	2.92	3.04	2.94	3.09	3.06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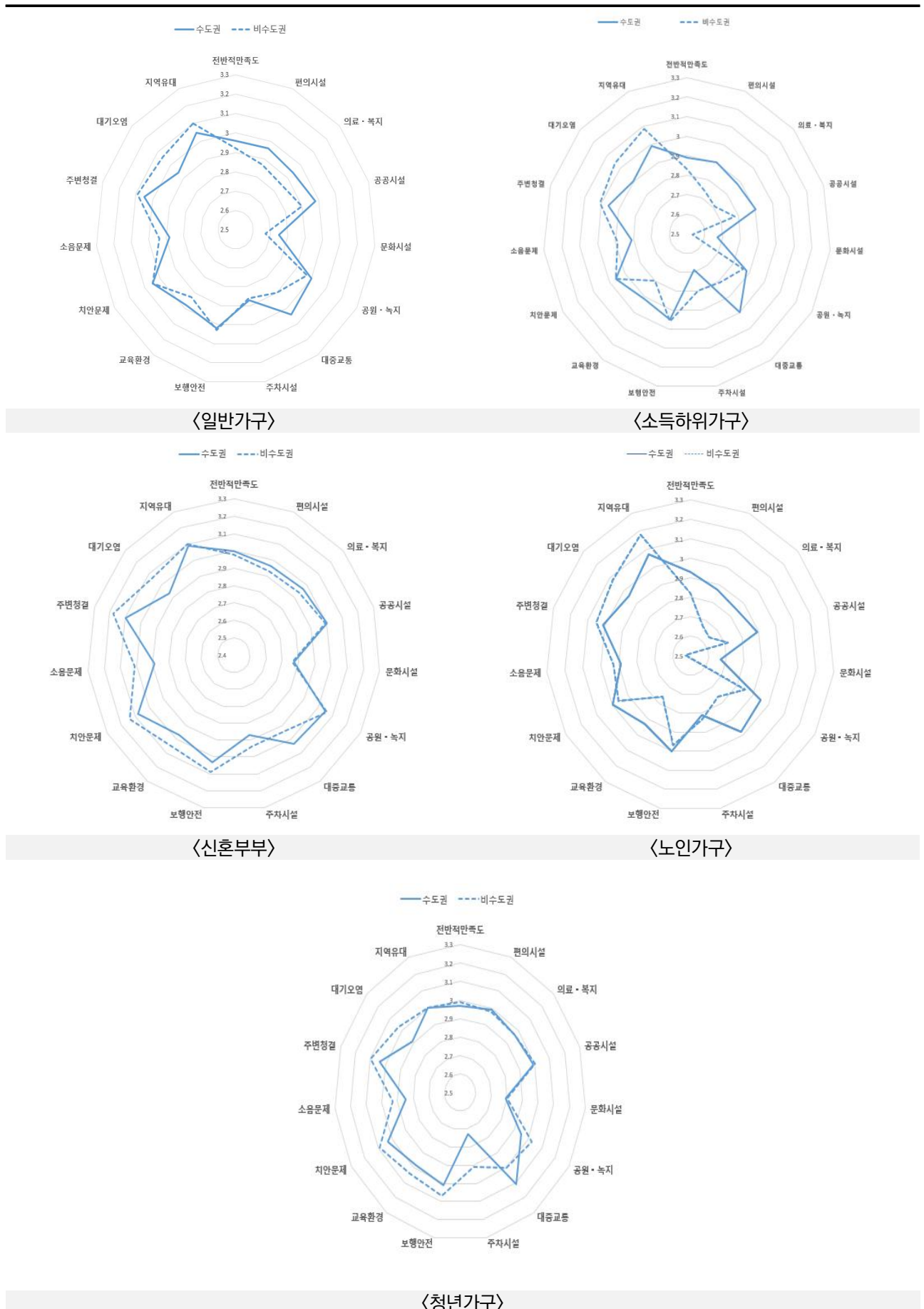
주1. 4점 만점 기준

주2. 가구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 일반가구 :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
- 청년가구 : 가구주의 연령이 만 20세~만 34세
- 신혼부부가구 : 혼인한지 7년 이하,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
- 노인가구 : 가구주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가구 : 가구소득 10분위 기준 하위 1~4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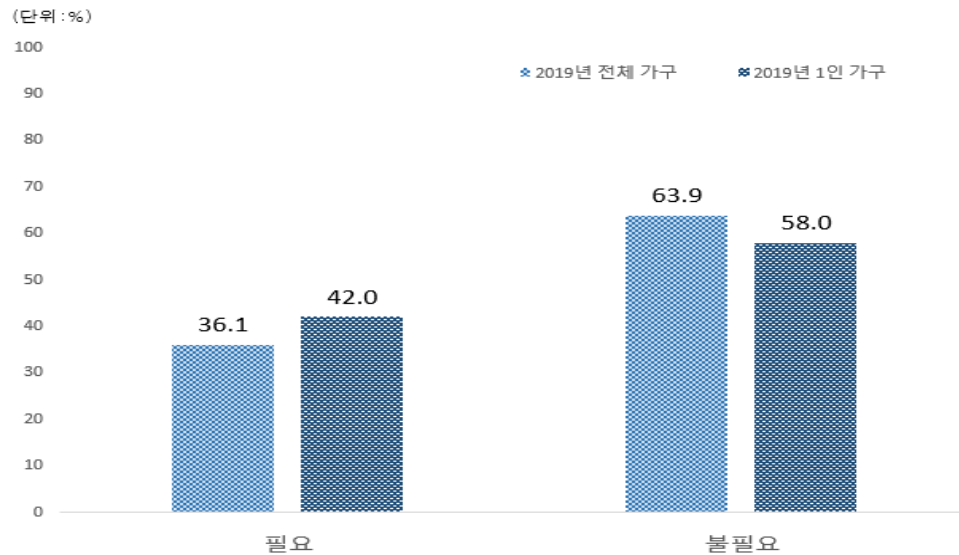
자료 : 주거실태조사 보고서(2019, 국토교통부)

[도표 2-26] 주거환경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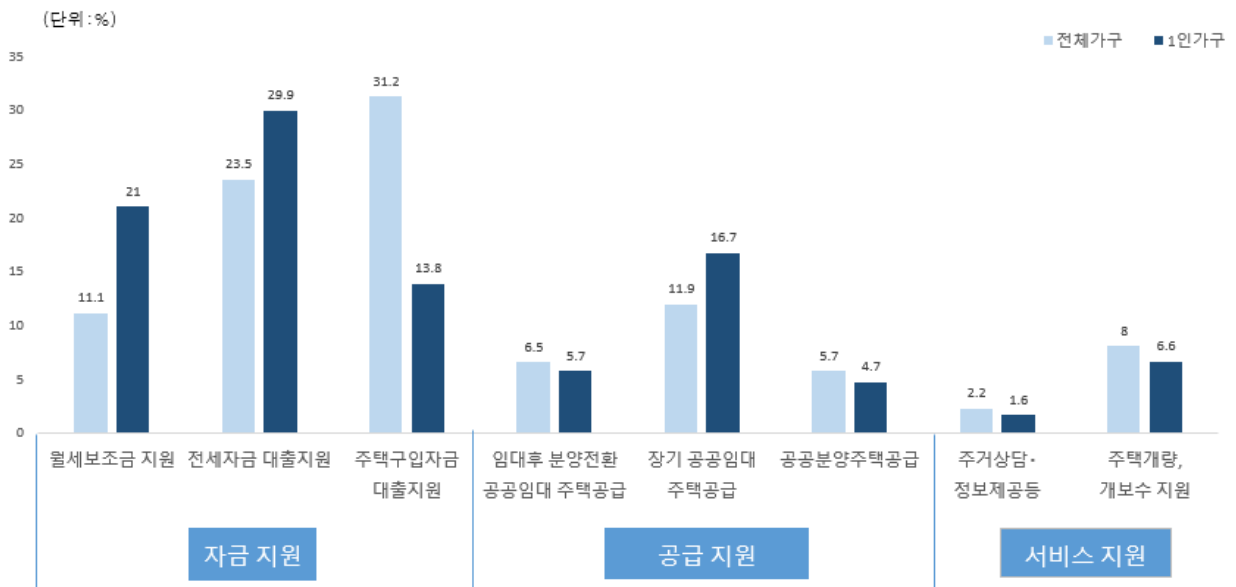


-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전체 가구보다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1인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임차금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음. 월세보다는 전세자금 지원을 선호하고, 자가보유가 가능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보다 장기 임대아파트 공급을 선호함

[도표 2-27]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성 인식(2019년)



[도표 2-28]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자료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참조

-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임대료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1인 가구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임대료 금액이 가장 큰 세대는 35-49세의 중년이나 18-34세의 청년과 큰 차이가 없어 월 임대료 지출이 가장 큰 연령대는 18-49세 사이의 청·장년층으로 볼 수 있음

[도표 2-29] 연령대별 임대료 지출(전국, 2016년)

구분 (단위 : 만원)	1인가구 합계	18-34세 (청년)	35-49세 (중년)	50-64세 (장년)	65-74세 (노년)	75세 이상 (고령)
임대료	34.9	39.5	40.5	28.9	25.9	25.8

자료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국토연구원, 2017)

- 그러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RIR/Rent to Income Ratio)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장년층보다 18-34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것이 확인됨. 35-49세의 경우 임대료 지출 금액은 크지만 전체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은 가장 낮은 연령대로 소득액이 크며 부담하는 주거비 금액도 큰 것으로 예상되나, 18-34세 연령의 청년층의 경우 매월 부담하는 월 임대료 금액은 크나 전체 소득액이 작아 주거비 부담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

[도표 2-30] 연령대별 RIR(전국, 2016년)

구분 (단위 : 만원)	1인가구 평균	18-34세 (청년)	35-49세 (중년)	50-64세 (장년)	65-74세 (노년)	75세 이상 (고령)
RIR	28.9	30.5	20.8	24.4	41.2	46.1

자료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국토연구원, 2017)

- 저소득층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용은 지역 구분없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가구의 읍면지역 임대료는 감소하였으나 청년 1인가구는 도시, 읍면 구분없이 임대료가 상승하여 주거비 부담이 전체 가구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도표 2-31] 소득 1-2분위 청년 1인가구의 지역별 주거비용 지출 변화(전국)

구분 (단위 : 만원)		수도권 도시	수도권 외 도시	읍면
1인가구 합계	2006년	22.5	16.8	17.9
	2016년	30.1	19.2	17.7
	변화	33.8% 증가	14.3% 증가	-1.1% 감소
청년가구	2006년	30.9	24.8	24.6
	2016년	39.8	27.8	29.6
	변화	28.87% 증가	12.1% 증가	20.3% 증가

자료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국토연구원, 2017)

- 이러한 1인 청년가구의 임대료 부담은 매년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최근 10년사이에 최소 1.3배 이상이 증가
 - 특히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의 증가가 주택가격과 월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전체 가구와 청년 가구의 임대료 부담 수준을 비교하면, 자가와 전세,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은 전체 가구가 청년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보증부 월세와 보증금이 없는 월세의 경우 청년 가구의 부담이 더 큼
-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의 큰 증가는 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1인가구의 경제력으로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매월 지출해야 되는 월세의 증가로 전체 소비지출 중 주거비 부담으로의 편중이 1인 청년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됨

[도표 2-32] 1인 청년 주택가격 및 임대료 부담(전국)

구분 (단위 : 만원)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보증금	월세
2006년	12,212	3,797	622	28.4
2016년	17,323	6,476	987	37.9
변화	41.9% 증가	70.6% 증가	58.7% 증가	33.5% 증가

자료 :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국토연구원, 2017)

- 지방의 경우 자가와 전세, 보증부월세의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수도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지방 역시 매월 지출되는 월세의 부담은 1인 청년 가구의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으로 가중될 것이 예상

[도표 2-33] 1인 청년 주택가격 및 임대료 부담(전국, 2016년)

구분 (단위 : 만원)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보증금	월세	
전체가구	24,353	12,798	2,075	31.9	24.2
청년가구	17,323	6,476	987	37.9	26.2
수도권	20,491	7,393	1,298	44.6	27.9
지방	14,258	4,566	565	28.9	25.4

자료 :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국토연구원, 2017)

마. 1인 가구의 안전

-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하여 더 민감하고 두려움이 큼. 특히 주거침입과 절도, 폭행 등 신변보장과 안전에 대하여 민감
- 전체 가구에 비해 지역의 청결, 후미진 공간이 발생하는 상황 등 물리적 무질서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받는 등 공동체성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가 많고 특히 안전보장에 대하여 주변의 관심과 공동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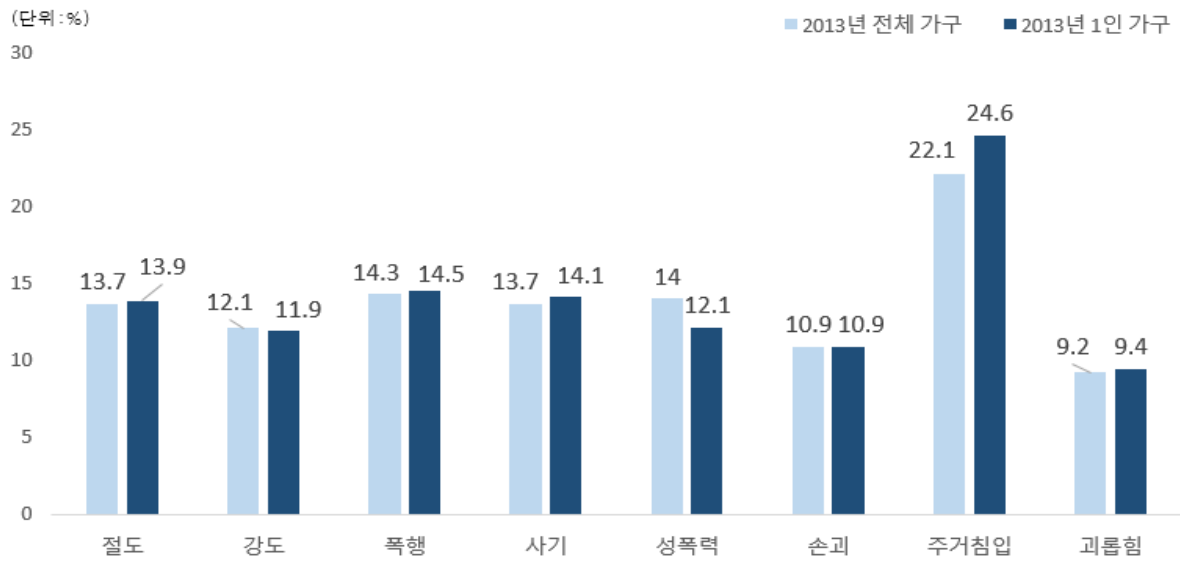
-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낌
 - 2013년에 비해 2019년에는 그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1인 가구의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 2013년에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두려움 정도가 큰 차이없으나 2019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1인 가구의 두려움 정도가 더 큼
- 1인 가구는 주거침입과 절도, 폭행에 대한 범죄피해 두려움을 크게 느낌
 - 2013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도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큼
- 절도, 폭행, 사기, 손괴의 경우 2013년에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9년에는 1인 가구가 해당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혼자 생활하는 거주공간에서의 불안감, 신변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여지며 범죄피해에 대하여 전체 가구에 비해 더 민감한 가구로 확인됨

[도표 2-34]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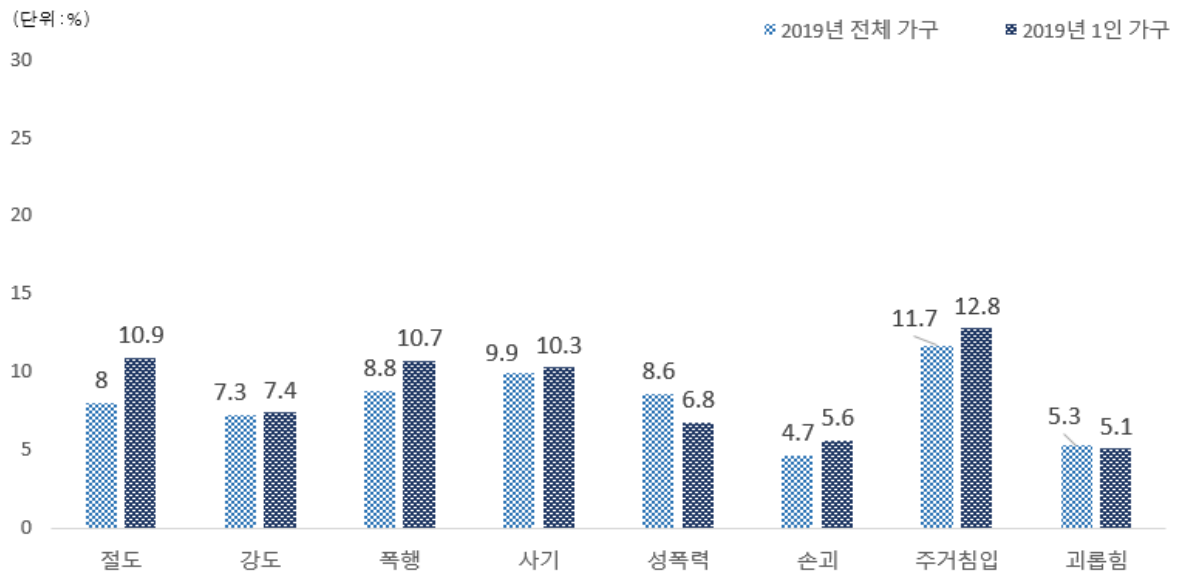
구분(단위 : %)		합계	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폭력	손괴	주거침입	괴롭힘
전체 가구	2013년	110.0	13.7	12.1	14.3	13.7	14.0	10.9	22.1	9.2
	2019년	64.3	8	7.3	8.8	9.9	8.6	4.7	11.7	5.3
1인 가구	2013년	111.4	13.9	11.9	14.5	14.1	12.1	10.9	24.6	9.4
	2019년	69.6	10.9	7.4	10.7	10.3	6.8	5.6	12.8	5.1

주. 범죄유형별 두려움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의 합
 자료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2020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참조

[도표 2-35]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의 비교(2013년)



[도표 2-36]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의 비교(2019년)



자료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참조

-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 인식을 공동체 효율성,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의 3개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봄
-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공동체가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함
 - 2012년에는 전체 가구가 공동체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2018년에는 1인 가구의 긍정적 응답이 더 많아지며 공동체에 대한 1인 가구의 인식이 변화함을 확인
- 전체 가구와 1인 가구 모두 사회적으로 무질서함은 개선되었고, 동네의 청결 등과 관련된 물리적인 무질서함도 개선되었다고 응답
 - 그러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기초질서 위반, 불량 청소년의 존재 등과 관련 있는 사회적 무질서함은 더 나아졌다고 응답하였으나 지역 내 위생, 안전 등과 관련한 물리적 무질서함은 덜 나아졌다고 응답
- 결국 1인 가구는 거주하는 지역의 청결 정도나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인식은 전체 가구에 비해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동네 주민에게 받는 어려움, 치안을 위한 동네 활동 등은 효율적이며 그 중요성을 더 깊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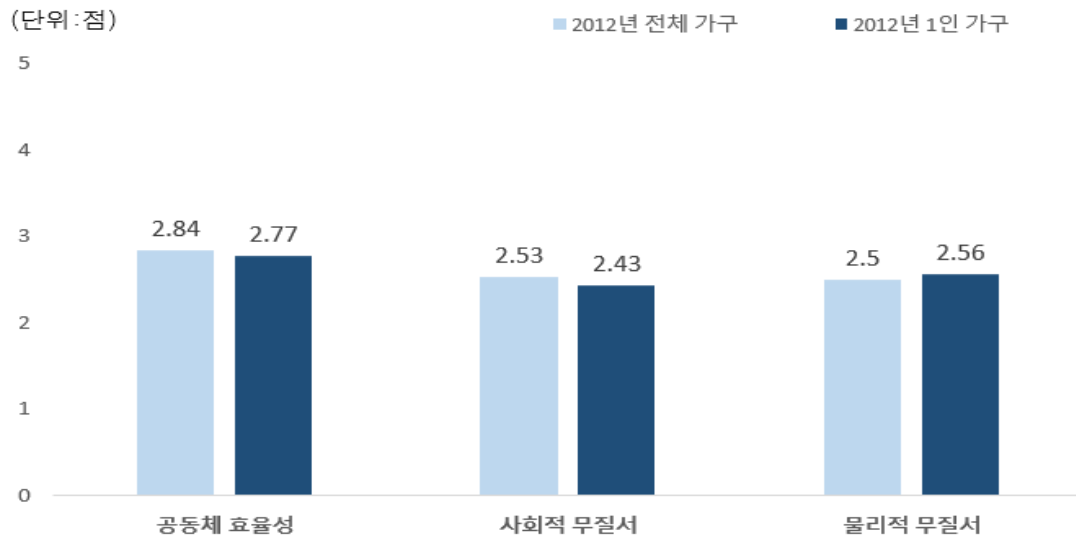
[도표 2-37] 1인가구의 생활환경 안전 인식

구분 (단위 : 점)		만점			
			공동체 효율성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전체 가구	2012	5.0	2.84	2.53	2.50
	2018	5.0	2.99	2.17	2.17
1인 가구	2012	5.0	2.77	2.43	2.56
	2018	5.0	3.01	2.13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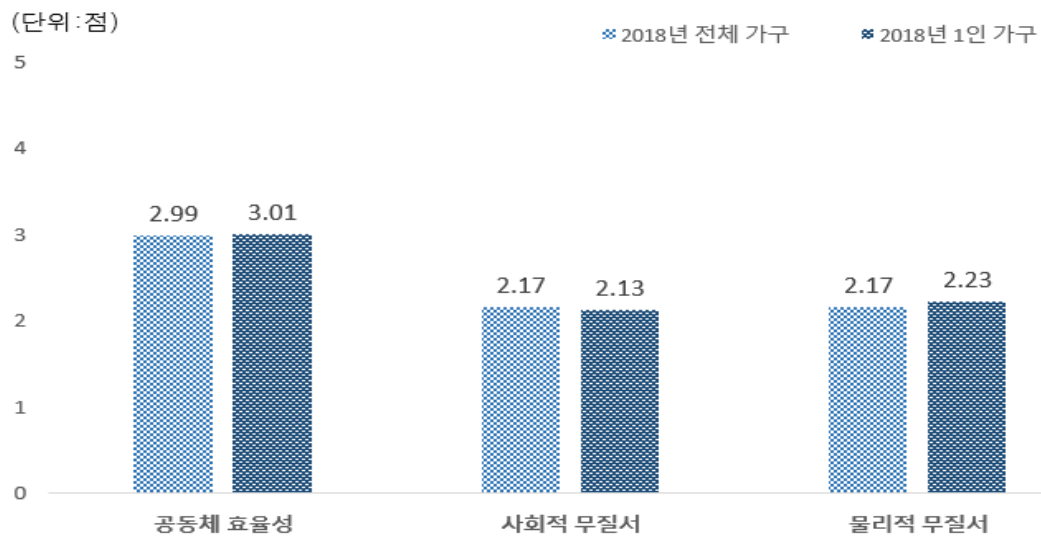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를 의미

- 「공동체 효율성」은 '동네 주민들 간 인지도', '어려운 일에 대한 도움 가능성', '동네 행사 참여도',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순찰 활동 참여도' 등 7개 문항(1~5점)의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
-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질서 위반 여부, '무리를 이룬 불량청소년이 많은지 여부', '큰소리로 싸우거나 다투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3개 문항(1~5점)의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무질서가 심각하다는 의미
- 「물리적 무질서」는 '동네 주변의 쓰레기 투기 여부',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은지 여부', '주변에 방치된 차량이나 빈 건물이 많은지 여부' 등 3개 문항(1~5점)의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 무질서가 심각하다는 의미

[도표 2-38]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생활환경 안전 인식의 비교(2012년)



[도표 2-38] 전체가구와 1인가구의 생활환경 안전 인식의 비교(2018년)



자료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2020) 참조

02.2. 여성 1인 가구 변화

가. 여성 1인 가구의 인구 변화

- 1인 가구의 성비는 비슷한 수준이며 2000년 이후 여성과 남성 모두 큰 폭으로 증가
- 여성 1인 가구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20-29세 청년층으로 확인되며 그 증가폭이 남성 청년 1인 가구의 1.8배 수준으로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증가가 매우 큼

○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이 50% 수준으로 비슷

- 2000년의 경우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17.2% 더 많았으나 남성 1인 가구가 점차 빠르게 증가하며 최근 성비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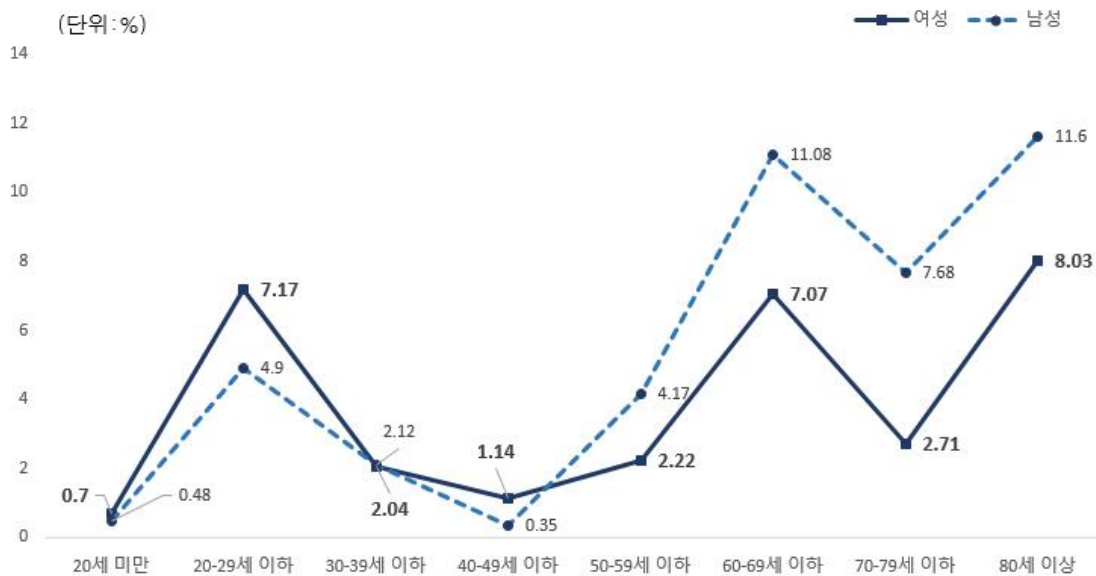
[도표 2-40] 성별 1인가구의 연도별 변화

구분 (단위 : 천가구, %)	1인 가구		여성		남성		구성비 차이 (여-남)
	수	전체가구 대비	수	1인가구 전체 중 비율	수	1인가구 전체 중 비율	
2000년	2,224	15.5	1,304	58.6	921	41.4	17.2
2005년	3,171	20.0	1,753	55.3	1,418	44.7	10.6
2010년	4,142	23.9	2,218	53.5	1,924	46.5	7.0
2015년	5,203	26.6	2,610	50.2	2,593	49.8	0.4
2016년	5,398	27.2	2,722	50.4	2,676	49.6	0.8
2017년	5,619	28.6	2,827	50.3	2,792	49.7	0.6
2018년	5,849	29.3	2,942	50.3	2,906	49.7	0.6
2019년	6,148	30.2	3,094	50.3	3,054	49.7	0.6

자료 : 2020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 2020)

- 그러나 여성 1인 가구의 증가는 남성 1인 가구의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확인되며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 남성의 경우 50세 이상 장년, 노인층에서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은 20대가 60대 이상 연령층과 비슷하게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뿐만 아니라 20-29세의 청년층 여성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
 - 2015년에는 청년층 여성 1인 가구가 남성에 비해 적었으나 2019년에는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
 - 2015년 기준 여성 1인 가구 402,264천가구/ 남성 1인 가구 484,759천가구
 - 2019년 기준 여성 1인 가구 530,701천가구/ 남성 1인 가구 586,880천가구

[도표 2-41] 연령대별/ 성별 1인가구의 연평균 증가율



[도표 2-42] 연령대별/ 성별 1인가구의 연평균 증가율

구분 (단위: 가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여성	수	2,610,477	2,721,754	2,826,828	2,942,274	3,093,783	4.3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20세 미만	수	29,971	32,275	31,950	30,531	30,824	0.70
	비중	1.2	1.2	1.1	1.0	1.0	
20-29세 이하	수	402,264	425,695	444,327	477,163	530,701	7.17
	비중	15.4	15.6	15.7	16.2	17.2	
30-39세 이하	수	343,089	341,275	347,375	355,695	371,926	2.04
	비중	13.2	12.5	12.3	12.1	12.0	
40-49세 미만	수	307,740	310,839	317,662	318,402	322,019	1.14
	비중	11.7	11.4	11.2	10.8	10.4	
50-59세 미만	수	399,864	413,307	424,532	431,370	436,615	2.22
	비중	15.3	15.2	15.0	14.7	14.1	
60-69세 미만	수	406,645	445,088	473,336	503,340	534,386	7.07
	비중	15.6	16.4	16.7	17.1	17.3	
70-79세 미만	수	459,523	467,457	484,156	498,872	511,365	2.71
	비중	17.6	17.2	17.1	17.0	16.5	
80세 이상	수	261,381	285,818	303,490	326,901	355,947	8.03
	비중	10.0	10.5	10.7	11.1	11.5	
남성	수	2,592,963	2,675,861	2,791,849	2,906,320	3,053,733	4.1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20세 미만	수	28,049	303,64	29,108	27,623	28,591	0.48
	비중	1.1	1.1	1.0	1.0	0.9	
20-29세 미만	수	484,759	503,713	517,464	542,781	586,880	4.90
	비중	18.7	18.8	18.5	18.7	19.2	
30-39세 미만	수	610,233	607,362	621,086	637,042	663,690	2.12
	비중	23.5	22.7	22.3	21.9	21.7	
40-49세 미만	수	542,018	532,205	545,148	545,819	549,634	0.35
	비중	20.9	19.9	19.5	18.8	18.0	
50-59세 미만	수	477,685	498,552	523,194	543,074	562,432	4.17
	비중	18.4	18.6	18.7	18.7	18.4	
60-69세 미만	수	261,538	298,465	332,096	366,564	398,227	11.08
	비중	10.1	11.2	11.9	12.6	13.0	
70-79세 미만	수	137,395	147,599	159,391	172,025	184,736	7.68
	비중	5.3	5.5	5.7	5.9	6.1	
80세 이상	수	51,286	57,601	643,62	71,392	79,543	11.60
	비중	2.0	2.2	2.3	2.5	2.6	

자료 : 인구총조사

나. 여성 1인가구의 주거

- 여성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하나 최근 아파트 거주 비중이 약간 증가함. 단 주거환경의 안전과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도 함께 증가
- 여성 1인 가구는 주택 외 거처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기타공간(마을회관, 컨테이너, 종교시설 등)에 거주하는 비중이 커 각종 위험요인이 존재
- 전체 연령대 중 20대와 30대 여성 1인 가구는 주택 외 거처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층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취약에 대한 관심이 필요

○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 외 거처>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순으로 많이 거주

○ 단,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아파트에 사는 비중이 높고 2015년 이후 아파트 거주 비중이 증가함. 반대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비중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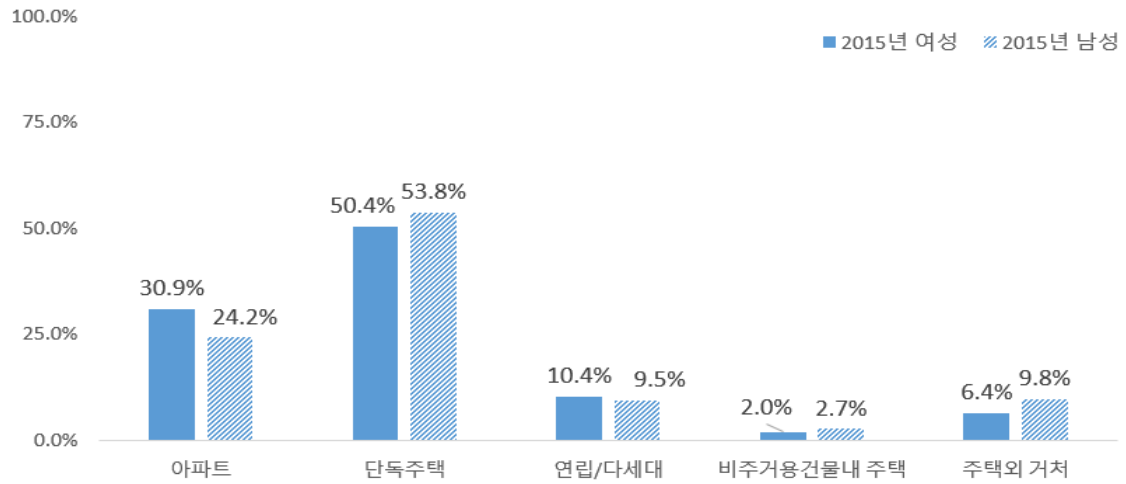
○ 여성 1인가구의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은 약간 증가하여 2019년 기준 8.5%로 확인

[도표 2-43]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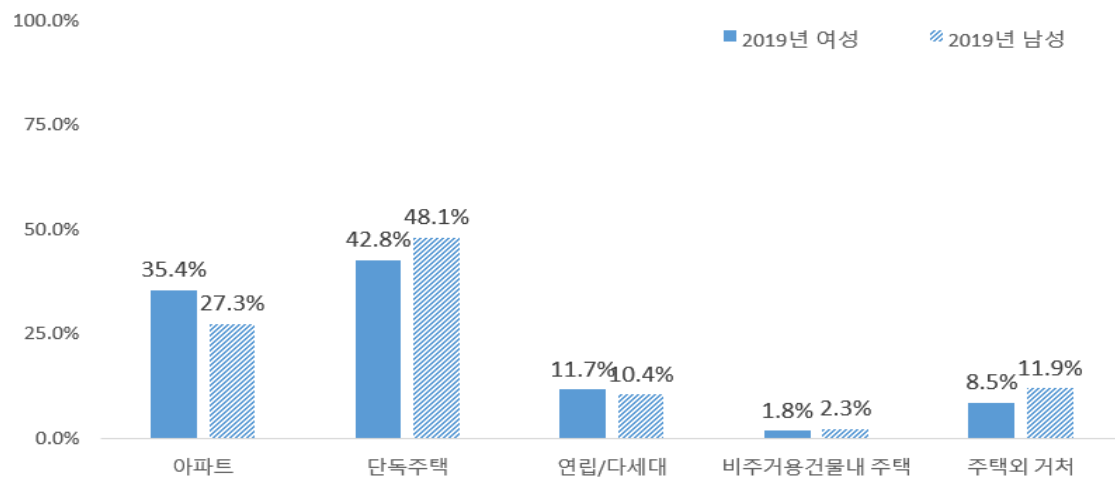
구분		전체	주택				주택 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2015년	여성	100.0%	30.9%	50.4%	10.4%	2.0%	6.4%
	남성	100.0%	24.2%	53.8%	9.5%	2.7%	9.8%
2019년	여성	100.0%	35.4%	42.8%	11.7%	1.8%	8.5%
	남성	100.0%	27.3%	48.1%	10.4%	2.3%	11.9%

자료 : 인구총조사

[도표 2-44] 성별 1인가구의 주택유형 비중 비교(2015년)



[도표 2-45] 성별 1인가구의 주택유형 비중 비교(2019년)



자료 :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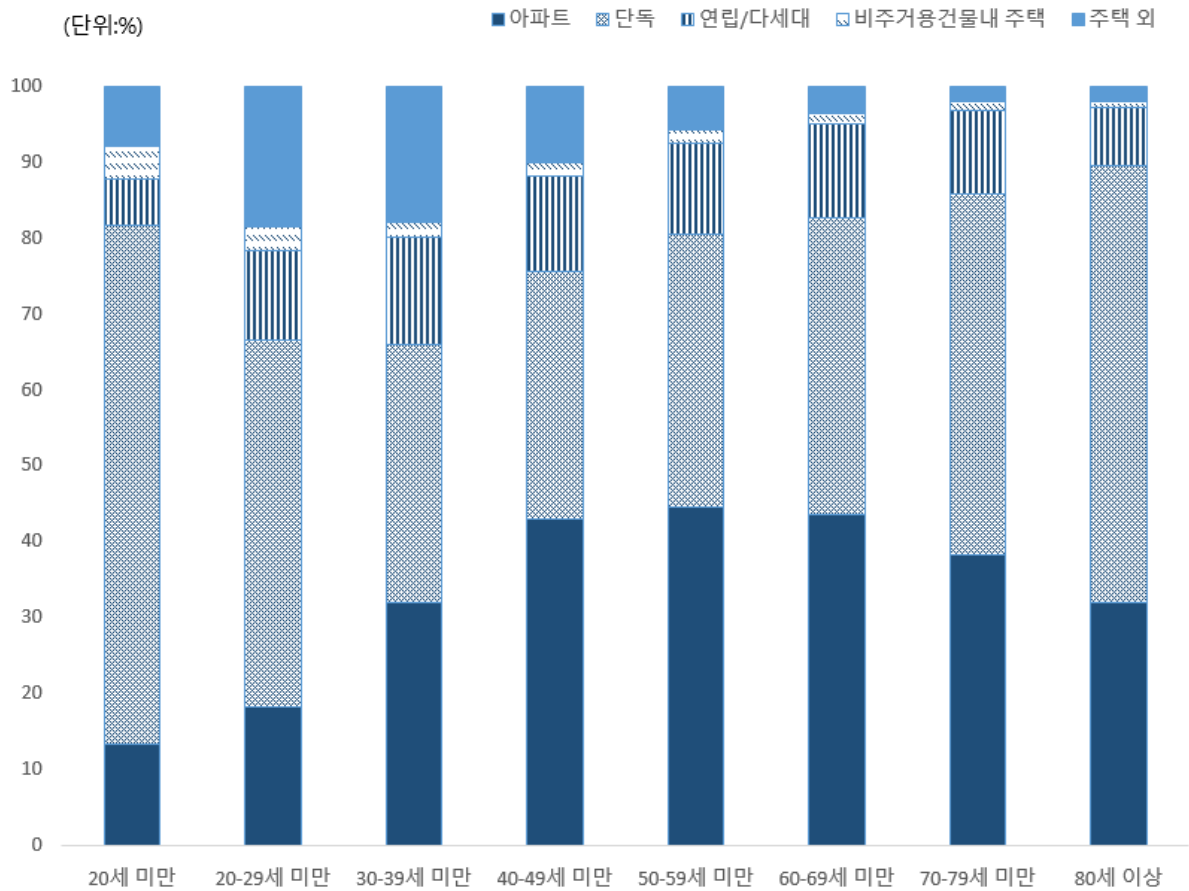
- 여성 1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20세 미만 미성년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연령대 중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음
 - 20-29세 청년층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연령대 중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30-39세 장년층 여성 1인 가구는 20대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중은 크지만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연령대
 - 40-49세, 50-59세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더 큼
 - 60세 이상 노인여성 1인 가구는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고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임
- 동일 연령대의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여성 1인 가구는 아래의 특성을 보임
 - 20세 미만, 20-29세 청년층, 30-39세 연령대는 남성에 비해 주택 외 거처에 사는 비중이 큼
 - 40-49세 이상의 연령대 여성 1인 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중이 증가하며 남성 1인 가구의 비중을 상회하고 그 차이가 매우 큼.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은 남성보다 작은 수준으로 변화함
- 연령대별로 살펴본 여성 1인 가구는 39세 미만까지의 미성년, 청년층의 주거환경이 타 연령대에 비해 더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주택외 거처에 사는 비중이 커 해당 연령대에 대한 주거안정과 개인의 안전 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도표 2-46] 주택유형별/연령대별 비중과 성별 차이(2019년)

구분 (단위: %)		전체	주택				주택 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전체	여성	100.0	35.4	42.8	11.7	1.8	8.5
	남성	100.0	27.3	48.1	10.4	2.3	11.9
	차이 (여-남)	-	8.1	-5.3	1.2	-0.6	-3.5
20세 미만	여성	100.0	13.2	68.5	6.1	4.3	7.9
	남성	100.0	12.8	72.4	5.0	4.0	5.9
	차이 (여-남)	-	0.5	-3.8	1.1	0.3	2.0
20-29세 미만	여성	100.0	18.2	48.4	11.8	3.1	18.5
	남성	100.0	17.3	54.9	10.2	3.2	14.4
	차이 (여-남)	-	0.9	-6.5	1.6	-0.1	4.1
30-39세 미만	여성	100.0	32.0	34.0	14.2	2.0	17.9
	남성	100.0	32.5	38.1	12.3	2.0	15.1
	차이 (여-남)	-	-0.5	-4.1	1.9	-0.1	2.8
40-49세 미만	여성	100.0	43.0	32.6	12.6	1.6	10.1
	남성	100.0	32.0	42.3	11.1	2.1	12.6
	차이 (여-남)	-	11.0	-9.7	1.6	-0.4	-2.4
50-59세 미만	여성	100.0	44.5	36.0	12.1	1.7	5.8
	남성	100.0	26.0	50.9	9.6	2.3	11.3
	차이 (여-남)	-	18.5	-14.9	2.5	-0.6	-5.6
60-69세 미만	여성	100.0	43.6	39.0	12.4	1.5	3.5
	남성	100.0	27.2	53.1	9.2	2.1	8.4
	차이 (여-남)	-	16.4	-14.1	3.2	-0.6	-4.9
70-79세 미만	여성	100.0	32.5	47.5	11.2	1.1	2.1
	남성	100.0	30.7	52.8	9.9	1.6	5.0
	차이 (여-남)	-	1.7	-5.3	1.3	-0.6	-2.9
80세 이상	여성	100.0	31.9	57.6	7.7	0.8	2.0
	남성	100.0	31.3	55.6	8.6	1.2	3.3
	차이 (여-남)	-	0.6	2.0	-0.9	-0.4	-1.3

자료 : 인구총조사

[도표 2-47] 여성 1인가구의 연령대별/주거지유형별 거주 비중



자료 : 인구총조사

- 참고로 2017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원 가구보다 월등히 많으며, 거처의 유형에 대한 양상도 다름
- 1인 가구는 고시원, 고시텔에 거주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많음. 그러나 2인 이상의 경우 기타(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컨테이너, 판넬 또는 조립식 건물, 창고, 마을회관, 종교시설 등을 포함) 거주 비중이 대부분이며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는 비중은 매우 적음. 고시원이나 고시텔의 공간 구조상 1인 이상이 거주하기에 매우 협소하며 운영주체가 1인으로 거주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예상
 - 1인 가구는 고시원, 고시텔 외에도 숙박업소의 객실에 거주하는 비중이 타 가구에 비해 높음. 숙박업소의 객실은 여관, 여인숙 등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저임금 근로자의 거주공간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취사가 불가함. 이러한 경우, 근로를 목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거처의 용도를 숙박 외로는 활용하지 않는 1인 가구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주택외 거처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그 수가 2.5배 이상 더 많음
- 거처의 유형별로 보면 여성은 기타(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컨테이너, 판넬 또는 조립식 건물, 창고, 마을회관, 종교시설 등을 포함)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많음
 - 남성 1인 가구는 고시원, 고시텔에 거주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으나 여성은 기타>숙박업소의 객실 순으로 많음
 - 고시원, 고시텔과 비교할 때 기타 거처는 주거환경이 더 열악함 고시원, 고시텔과 다르게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포함됨. 숙박업소 내 객실의 경우 취사나 빨래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공간이나 용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숙박업소 내에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므로 사건·사고에 더 많이 노출됨
- 주택외 거처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수가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월등히 더 많고 그 거처의 유형이 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이라고 보여지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대상을 고려할 때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도표 2-48]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1인가구 현황

구분 (단위: 가구, %)	가구수	거주 비율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고시텔	기타
가구원수	369,501				
1인	265,600	10.5	1	55.3	33.2
2인	73,689	3.1	3.8	5.5	87.7
3인	19,125		3.2	2.2	94.6
4인 이상	11,087	1.1	6	1.1	91.8
성별	369,501				
여성	271,665	9.3	1.8	37.7	51.2
남성	97,836	5.3	1.8	50.2	42.7

자료 :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국토교통부, 2017년)

다. 여성 1인가구의 생활과 안전

- 여성 1인가구, 특히 청년여성 1인 가구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또는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하여 1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외로움이나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주변의 부정적 인식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주거침입피해를 입은 경험이 가장 많은 가구이며, 성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큼

○ 1인 여성가구의 안전과 관련된 연구결과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II)」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는 이유를 확인함. 여성 1인 가구는 연령대 별로 혼자 사는 이유가 다름

- 20-30대의 여성 1인 가구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가 혼자 사는 가장 큰 이유임. 40대 이상의 경우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등의 부부관계가 독거생활의 주된 요인인 점과 다르게 주된 생활공간으로의 접근 용이성, 생활상의 편리함 추구를 위하여 1인가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

[도표 2-49] 혼자 거주하는 이유

구분 (단위 : %)	여성 1인가구			남성 1인가구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76.6	19.7	4.5	77.7	39.0	10.9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2.7	57.8	88.1	0.5	37.9	78.2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사망	0.4	0.0	0.5	0.3	2.3	0.6
가족구성원의 이사, 독립 또는 이민	3.0	7.5	4.5	2.8	6.9	5.1
개인적 편의와 자유	15.5	15.0	2.5	15.2	12.7	3.9
기타	1.9	0.0	0.0	3.5	1.2	1.3

자료 :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한 점을 성별과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청년층은 남녀 모두 식사해결과 살림에 대하여 어려움을 드러냈으나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응답을 보임. 단, 남성과 비교할 때 청년층 여성 1인 가구는 외로움,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주변 시선을 비교적 더 곤란하다고 느끼

며 특히 성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큼. 40대 이상 연령층의 여성 1인 가구에
게서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은 20대 청년층 여성 1인 가구에게서는 외로움이나 주
변 시선보다 낮은 수준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도표 2-50]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한 점

구분 (단위 : %)	여성 1인가구			남성 1인가구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제적 어려움	14.6	31.5	27.4	13.5	11.9	18.0
외로움	16.6	28.2	38.8	12.3	31.5	41.7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19.9	17.4	21.9	17.7	17.3	17.3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의 시선	3.0	5.2	3.0	1.2	3.5	0
성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5.3	0.5	0	0.2	0	0
성범죄를 제외한 기타 범죄(침입절도 등)에 대한 두려움	3.0	2.4	0	0.3	0.6	0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	0.0	0.5	3.0	0	0	1.9
식사해결과 살림	27.1	7.0	2.5	41.2	30.1	18.6
주거관리	2.8	1.4	0.5	3.7	2.3	0.6
기타	7.4	6.1	3.0	10.0	2.9	1.9

자료 :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나 여성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침입 피해의 빈도가 더
높음

[도표 2-51] 범죄피해여부

구분 (단위 : %)	주거침입피해여부		손괴피해여부		개인범죄피해여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여성 1인가구	2.9	97.1	0.6	99.4	2.9	97.1
남성 1인가구	1.3	97.7	1.3	98.7	3.5	96.5
여성 다인가구	2.4	97.6	1.8	98.2	3.6	96.4

자료 :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03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실태

03.1. 통계로 보는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실태

03.2.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상상 워크숍

- 도내 여성 1인 가구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 30대 청년층에서 그 증가 폭이 큼. 특히 20대 여성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며 2015년에는 남녀의 성비가 7:3 이었으나 2019년에는 6:4 수준으로 변화
- 변화하는 인구동향과 함께 강원도 1인 가구의 여러 가지 생활상 가운데 주거와 관련된 부분을 통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냄
 -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주택 외 거처란 오피스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시설
 -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사는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통계조사 시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므로 원룸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임
 - 1인 가구의 주거는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양상이 다름. 시 지역은 자가보유보다 임차가구 비율이 높으며 군 지역은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음
-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20, 30대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거 특성을 보임
 - 청년여성은 단독주택과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며 시 지역은 단독주택, 군 지역은 주택 외 거처로 나타나 시 지역은 다가구 주택(원룸)에 거주하는 청년 여성 1인가구가 많고 군 지역의 경우 기숙사 등 주택시설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청년여성 1인 가구는 1) 대부분 월세생활을 하고 2) 주거비 과부담이 전국보다 높아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함. 3) 한 거주지당 1년 남짓 거주하며 주거불안이 굉장히 높고 4) 월세비용 마련이 대부분 부모님에게 도움받는 상태라 청년층의 주거비용부담이 원가구에게 전가될 수 있어 청년층 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독립과 주거부담 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청년과 여성, 미혼자, 임차가구의 경우 그 외 경우보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낌. 또한 도내 청년 여성 1인 가구 역시 전국 조사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낮은 임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높은 주거비 부담은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원하는 주거지에 대한 선택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요인임. 때문에 청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 사회차원의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며 이때 범죄피해에 대한 노출과 어려움이 비교적 큰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청년여성 1인 가구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03.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실태

03.1. 통계로 보는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실태

가. 강원도 1인 가구의 현황

- 도내 여성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남성 1인 가구와 비슷한 수준
- 20대 1인 가구는 감소하나 30대 1인 가구는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연령대 중 26% 수준을 20·30대 1인 가구가 차지
-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1인 가구는 여성 20대 청년층으로 확인됨

○ 2019년 기준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율은 32.9%으로 전국 30.2%보다 약간 높은 수준

○ 도내 1인 가구의 성별 분포와 그 변화를 전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 간 전국은 1인 가구는 4.26%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이 4.3%, 남성이 4.1%로 그 증가율이 성별로 큰 차이없음
- 그러나 강원도의 1인 가구는 여성이 3.1%, 남성이 1.8%로 연평균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여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큼
- 2015년 강원도는 여성 1인 가구가 남성에 비해 약 4천 가구 정도 적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남성과 여성 1인 가구의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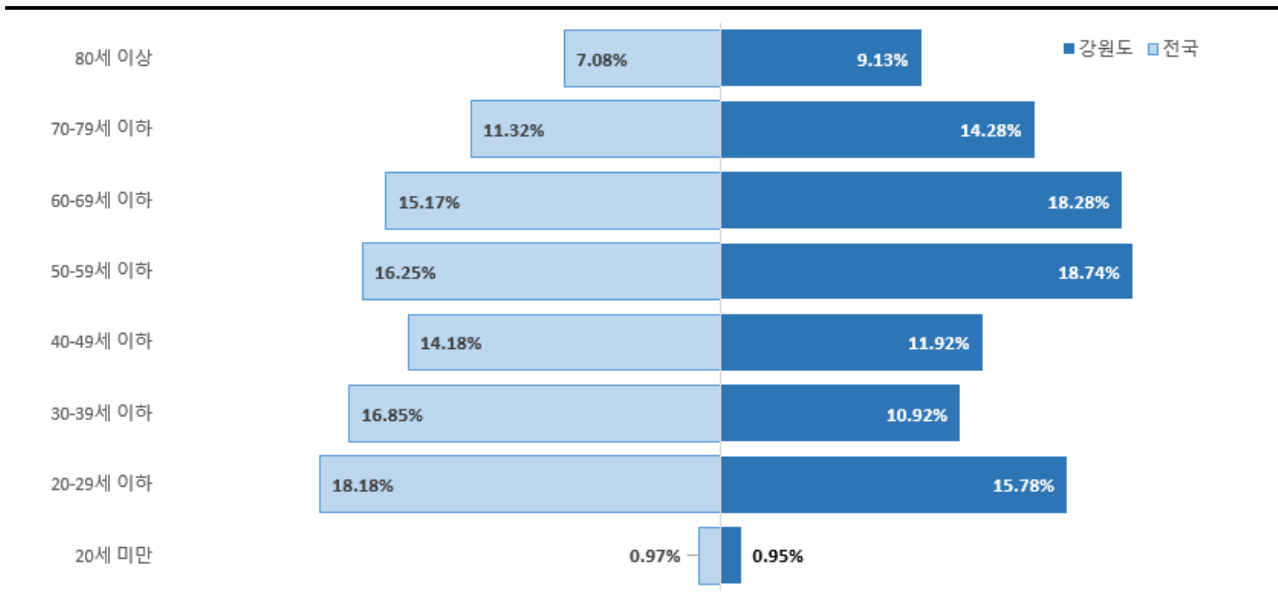
[도표 3-1] 강원도의 성별 1인가구 변화

구분 (단위: 가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전 국	5,203,440	5,397,615	5,618,677	5,848,594	6,147,516	4.26
여성	2,610,477	2,721,754	2,826,828	2,942,274	3,093,783	4.34
남성	2,592,963	2,675,861	2,791,849	2,906,320	3,053,733	4.17
강원도	189,379	197,917	199,645	206,295	208,857	2.48
여성	92,559	96,546	98,968	102,213	104,883	3.17
남성	96,820	101,371	100,677	104,082	103,974	1.80

자료 : 인구총조사

-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1인 가구 중 20-29세 청년층 1인 가구는 -2.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50-59세, 60-69세 다음으로 1인 가구의 규모가 큰 연령대임
 - 전국의 경우 20-29세 > 30-39세 > 50-59세 순으로 1인 가구가 많지만 강원도는 고령인구 증가로 1인 가구 역시 60대 이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
- 또한 30-39세의 1인 가구는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전체 연령대의 10% 수준을 유지
- 20대와 30대 1인 가구의 합은 전체 연령대의 26% 수준으로 확인됨

[도표 3-2] 2019년 기준 강원도의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



[도표 3-3] 강원도의 연도별/연령대별 1인가구 변화

구분 (단위: 가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
전 국	수	5,203,440	5,397,615	5,618,677	5,848,594	6,147,516	4.26
	비중	100.00	100.0	100.00	100.00	100.00	
20세 미만	수	58,020	62,639	61,058	58,154	59,415	0.60
	비중	1.12	1.1	1.09	0.9	0.97	
20-29세 이하	수	887,023	929,408	961,791	1,019,944	1,117,581	5.95
	비중	17.05	17.22	17.12	17.44	18.18	
30-39세 이하	수	953,322	948,637	968,461	992,737	1,035,616	2.09
	비중	18.32	17.58	17.24	16.97	16.85	
40-49세 미만	수	849,758	843,044	862,810	864,221	871,653	0.64
	비중	16.33	15.62	15.36	14.78	14.18	
50-59세 미만	수	877,549	911,859	947,726	974,444	999,047	3.29
	비중	16.86	16.89	16.87	16.66	16.25	
60-69세 미만	수	668,183	743,553	805,432	869,904	932,613	8.69
	비중	12.84	13.78	14.33	14.87	15.17	
70-79세 미만	수	596,918	615,056	643,547	670,897	696,101	3.92
	비중	11.47	11.39	11.45	11.47	11.32	
80세 이상	수	312,667	343,419	367,852	398,293	435,490	8.64
	비중	6.01	6.36	6.55	6.81	7.08	
강원도	수	189,379	197,917	199,645	206,295	208,857	2.48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세 미만	수	2,293	2,934	2,365	2,397	1,982	-3.58
	비중	1.21	1.48	1.18	1.16	0.95	
20-29세 미만	수	36,555	37,809	34,355	34,727	32,952	-2.56
	비중	19.30	19.10	17.21	16.83	15.78	
30-39세 미만	수	21,459	21,790	22,143	22,506	22,814	1.54
	비중	11.33	11.01	11.09	10.91	10.92	
40-49세 미만	수	25,913	25,708	25,927	25,493	24,889	-1.00
	비중	13.68	12.99	12.99	12.36	11.92	
50-59세 미만	수	35,668	37,154	37,972	38,695	39,149	2.36
	비중	18.83	18.77	19.02	18.76	18.74	
60-69세 미만	수	27,412	30,194	32,507	35,572	38,171	8.63
	비중	14.47	15.26	16.28	17.24	18.28	
70-79세 미만	수	26,689	27,536	28,484	29,378	29,824	2.82
	비중	14.09	13.91	14.27	14.24	14.28	
80세 이상	수	13,390	14,792	15,892	17,527	19,076	9.25
	비중	7.07	7.47	7.96	8.50	9.13	

자료 : 인구총조사

○ 최근 5년간 도내 20대 여성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함

- 2015년에는 성별 비중의 차이가 70세 이상> 20대> 40대> 30대 순으로 크게 확인되며 특히 20대의 경우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29.9%로 남성과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그러나 2019년에는 70세 이상>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남녀 간 1인 가구의 성비 차이가 나타나고 20대의 경우 여성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함

[도표 3-4] 강원도 연령대별 1인 가구 성비 변화

구분 (단위: %)		20세 미만	20-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미만	50-59세 미만	60-69세 미만	70세 이상
2015년	여성	41.2	29.9	37.7	36.3	45.5	58.1	77.5
	남성	58.8	70.1	62.3	63.7	54.5	41.9	22.5
	차이 (여-남)	-17.6	-40.2	-24.7	-27.4	-9.1	16.1	55.0
2019년	여성	45.9	41.0	34.5	36.5	42.6	52.7	75.2
	남성	54.1	59.0	65.5	63.5	57.4	47.3	24.8
	차이 (여-남)	-8.1	-17.9	-31.0	-27.0	-14.8	5.4	50.5

자료 : 인구총조사

나. 강원도 1인 가구의 주거 특성

- 최근 5년간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도내 1인가구는 약 1.5천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
- 군 지역은 자가보유 비율이 시 지역보다 높으나 단독주택과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시 지역은 전세, 월세, 사글세 등 임차 가구의 비중이 높음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도내 여성 1인 가구는 여전히 전국보다 많은 수준으로 거주

○ 강원도의 1인 가구의 주거 변화를 거주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 최근 5년간 도내 1인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4.6% 감소하였으며 전국에 비해 감소 폭이 큼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4.7% 감소하였으나 전국보다 작은 수준
-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크게 변동이 없음. 단, 전국의 경우 약 1.1% 수준으로 16만 가구 증가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전국과 강원도 모두 큰 변화없이 약간 감소한 수준
-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는 강원도와 전국 모두 증가하였으며 강원도의 경우 약 1.5천가구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

[도표 3-5] 강원도의 1인가구의 주택유형 변화

구분			전체	주택				주택 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국	2015년	가구	5,203,440	1,433,666	2,710,775	518,099	120,691	420,209
		%	100.0	27.6	52.1	10.0	2.3	8.1
	2019년	가구	6,147,516	1,926,935	2,789,981	680,075	124,447	626,078
		%	100.0	31.3	45.4	11.1	2.0	10.2
	변화	%	-	3.8	-6.7	1.1	-0.3	2.1
강원도	2015년	가구	189,379	55,195	114,432	7,145	3,715	8,892
		%	100.0	29.2	60.4	3.8	2.0	4.7
	2019년	가구	208,857	70,385	116,376	7,975	3,816	10,305
		%	100.0	33.7	55.7	3.8	1.8	4.9
	변화	%	-	4.6	-4.7	0.1	-0.1	0.2

자료 :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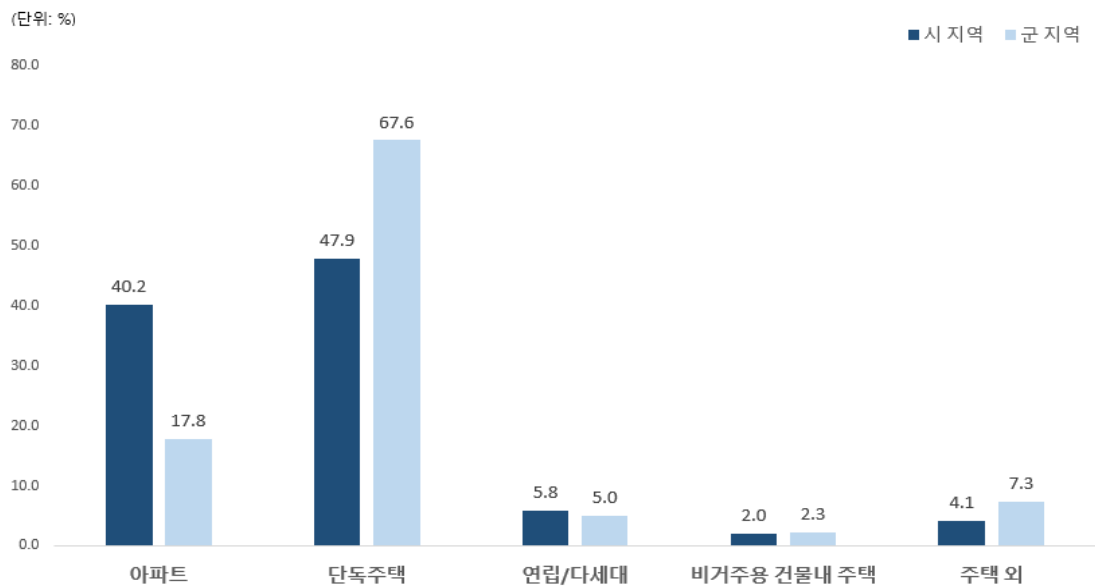
○ 도내 18개 시군으로 1인 가구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특성을 보임

- 시 지역은 군 지역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고, 단독주택 거주 비중과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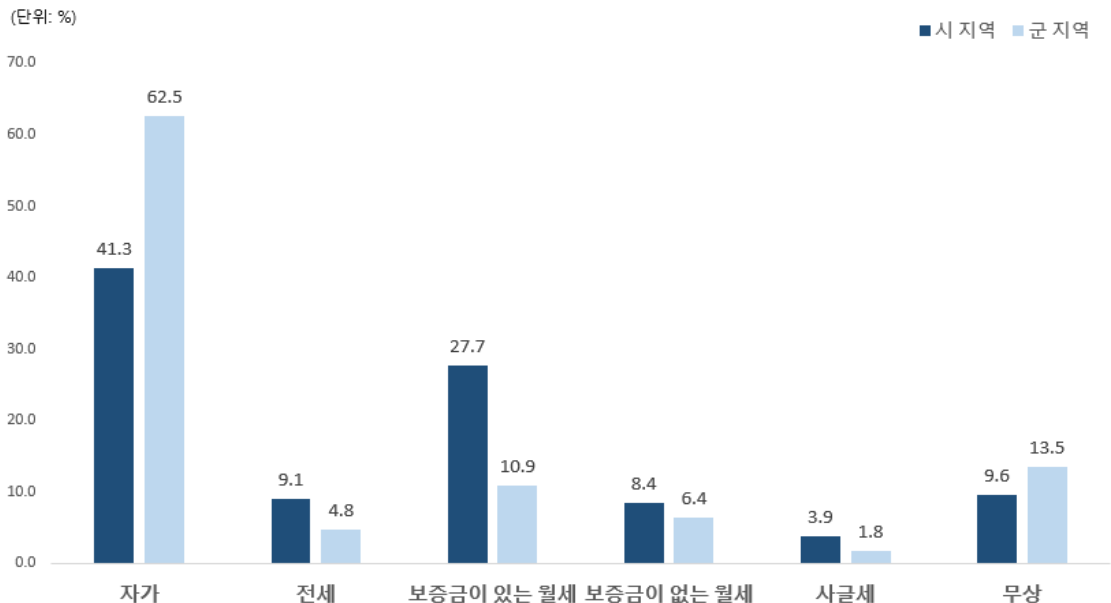
○ 주택점유형태를 시군별로 비교하면

- 시 지역은 군 지역에 비해 전세와 월세, 사글세의 비율이 높음
- 군 지역은 자가보유 비율이 높고, 전세와 사글세의 비율이 매우 낮음

[도표 3-6] 2019년 기준 도내 1인 가구의 주택 유형에 대한 시군간 비교



[도표 3-7] 2019년 기준 도내 1인 가구의 주택 점유에 대한 시군간 비교



[도표 3-8] 도내 시군별 1인가구 주택유형 현황

구분	전체	주택				주택 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강원도	100.00	33.70	55.72	3.82	1.83	4.93
춘천시	100.00	35.27	57.04	2.57	1.28	3.84
원주시	100.00	34.33	56.30	3.58	2.26	3.52
강릉시	100.00	45.39	42.44	6.46	1.71	4.01
동해시	100.00	45.39	42.44	6.46	1.71	4.01
태백시	100.00	44.71	37.20	12.67	1.94	3.48
속초시	100.00	49.19	38.48	4.55	1.79	5.99
삼척시	100.00	27.22	61.38	4.53	3.18	3.68
홍천군	100.00	17.75	68.42	5.56	2.48	5.79
횡성군	100.00	13.34	75.83	2.87	1.38	6.58
영월군	100.00	14.31	71.65	4.93	1.83	7.29
평창군	100.00	17.17	65.41	8.06	2.29	7.06
정선군	100.00	24.46	63.85	2.78	1.85	7.05
철원군	100.00	17.33	61.57	9.69	2.44	8.98
화천군	100.00	19.21	60.98	7.11	2.00	10.71
양구군	100.00	18.96	65.20	5.08	3.19	7.57
인제군	100.00	17.01	69.87	4.38	2.70	6.04
고성군	100.00	12.24	76.82	0.73	2.54	7.66
양양군	100.00	23.54	64.16	3.90	2.45	5.95

자료 : 인구총조사

[도표 3-9] 도내 시군별 1인가구 주택 점유현황

구분 (단위:%)	전체	자기집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사택 등)
강원도	100.0	45.0	9.1	25.6	6.9	4.0	9.3
춘천시	100.0	32.4	13.2	41.6	6.0	0.7	6.0
원주시	100.0	32.8	14.8	33.1	5.5	7.1	6.7
강릉시	100.0	38.2	8.1	30.1	7.3	10.1	6.1
동해시	100.0	45.5	6.9	23.5	11.1	1.1	12.0
태백시	100.0	49.9	4.5	16.6	8.0	2.2	18.8
속초시	100.0	39.0	12.0	27.8	10.8	0.7	9.7
삼척시	100.0	51.3	4.4	21.3	10.2	5.1	7.6
홍천군	100.0	65.5	4.7	13.6	3.6	0.6	11.9
횡성군	100.0	73.0	6.6	9.8	2.6	0.7	7.4
영월군	100.0	75.2	2.1	7.4	4.5	1.2	9.6
평창군	100.0	64.4	4.8	10.4	6.7	1.5	12.3
정선군	100.0	60.9	3.0	13.6	7.1	2.0	13.3
철원군	100.0	56.2	6.5	16.2	5.7	0.7	14.6
화천군	100.0	55.5	7.0	10.4	9.6	0.8	16.7
양구군	100.0	58.9	6.7	11.1	4.3	0.6	18.5
인제군	100.0	54.9	6.0	8.2	4.5	0.9	25.5
고성군	100.0	59.9	2.4	10.3	7.4	9.7	10.4
양양군	100.0	63.5	3.4	9.2	14.1	1.2	8.4

자료 : 인구총조사

○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을 1인 가구의 성별로 나누어 보면

- 2015년 기준으로 도내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더 많고 이는 2019년에도 같은 양상이며 전국도 동일함

○ 단, 도내 여성 1인 가구는 일부 주택 유형에서 전국과 다른 차이를 보임

- 강원도의 여성 1인 가구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전국의 여성 1인 가구에 비해 크고 2019년에도 동일함
- 반면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도내 여성 1인 가구는 전국에 비해 그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적으며 2019년에도 큰 변화 없음

[도표 3-10] 연도별 도내 1인가구의 주택유형변화 성별 비교

구분 (단위:%)			전체	주택				주택 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전국	2015년	여성	100.0	30.9	50.4	10.4	2.0	6.4
		남성	100.0	24.2	53.8	9.5	2.7	9.8
		차이 (여-남)	-	6.7	-3.5	0.9	-0.7	-3.4
	2019년	여성	100.0	35.4	42.8	11.7	1.8	8.5
		남성	100.0	27.3	48.1	10.4	2.3	11.9
		차이 (여-남)	-	8.1	-5.3	1.2	-0.6	-3.5
강원도	2015년	여성	100.0	32.9	58.1	4.1	1.8	3.1
		남성	100.0	25.5	62.6	3.5	2.2	6.2
		차이 (여-남)		7.4	-4.5	0.7	-0.4	-3.1
	2019년	여성	100.0	37.7	53.0	4.2	1.6	3.6
		남성	100.0	29.7	58.4	3.5	2.1	6.3
		차이 (여-남)		8.0	-5.4	0.7	-0.5	-2.7

자료 : 인구총조사

다. 강원도의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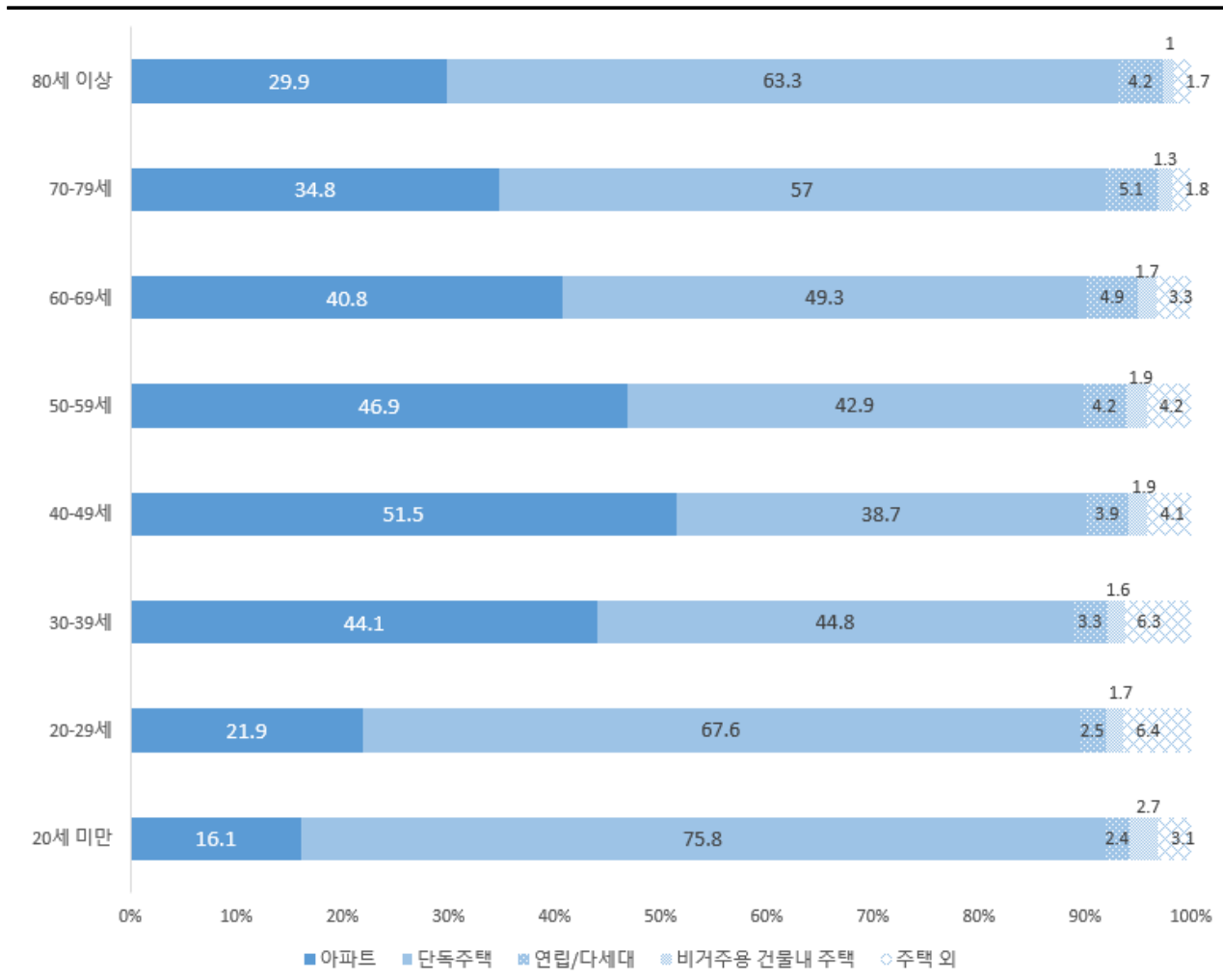
- 29세 미만의 도내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단독주택과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시 지역은 단독주택, 군 지역은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간 차이가 확인됨
-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전세 거주 비율은 월세의 절반 수준에 그침
- 도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전체 1인 가구 중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전국보다 많으며 계층별로 나누면 청년층 1인 가구의 과부담이 가장 심각함
- 또한 도내 청년가구는 한 거주지당 평균 1.1년밖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임차불안감이 상당히 높음
-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도내 청년 1인 가구는 거주지 마련을 위하여 부모에게 도움받는 비율이 타 점유유형에 비해 많아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은 가족에게도 전가될 수 있음을 예상
- 청년 1인 가구는 주거지를 선택할 때 주택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나 향후 주거지를 마련할 때에는 주거비용을 위치보다 우선 고려할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의 주거비 경감에 대한 청년층의 고민이 드러남

○ 도내 1인 가구 중 20-30대의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주택유형은 다음의 특징이 확인됨

- 29세 미만 미성년 ·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중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으며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음
-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 역시 20-29세가 가장 크고, 30-39세 청년여성 1인 인구 역시 전 연령대에 비해 그 비중이 큼

○ 20-29세 청년여성 1인 가구가 주택 외 거처에 사는 비중은 전체 여성 1인 가구 중에도 그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지만 동 연령대 남성 1인 가구의 비중도 초과하는 수준

[도표 3-11] 강원도 여성 1인가구의 연령대별 주택유형(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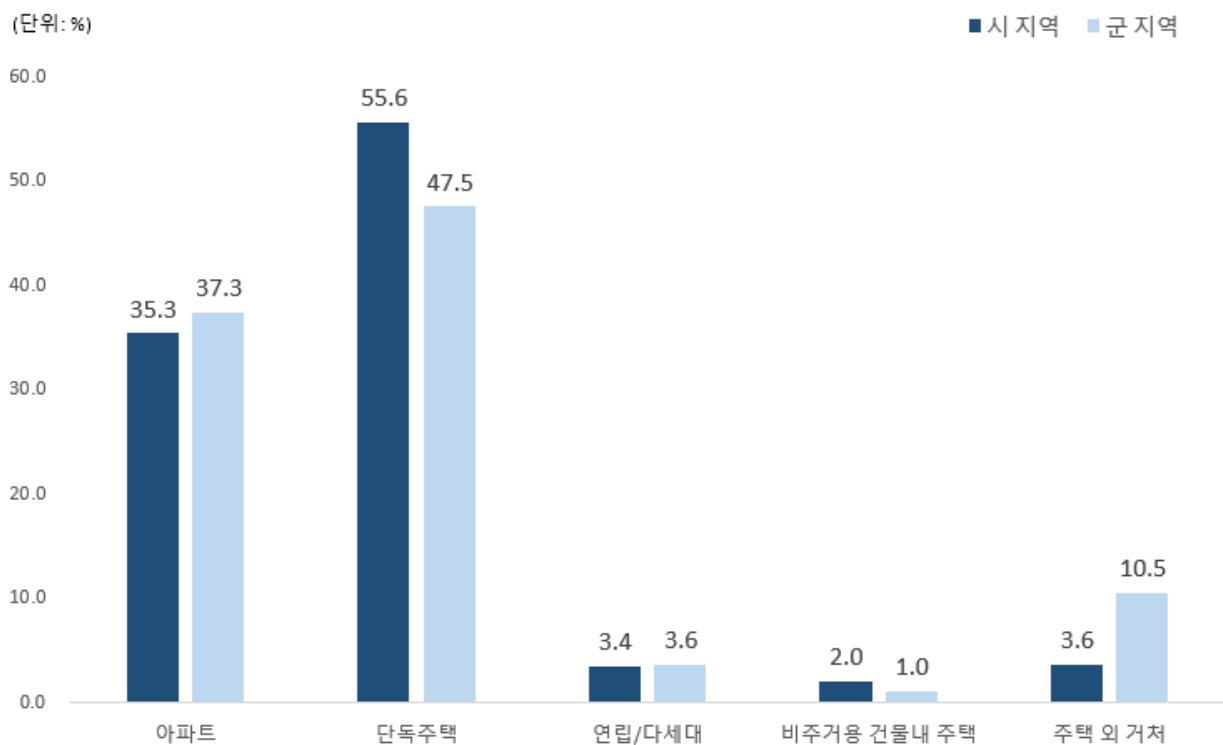
[도표 3-12] 강원도의 연령대별·주택유형별 1인가구 거주 비중(2019년)

구분 (단위: %)		전체	주택				주택 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강원도	여성	100.0	37.7	53.0	4.2	1.6	3.6	
	남성	100.0	29.7	58.4	3.5	2.1	6.3	
	차이 (여-남)	-	8.0	-5.4	0.7	-0.5	-2.7	
	20세 미만	여성	100.0	16.1	75.8	2.4	2.7	3.1
		남성	100.0	11.8	80.9	1.2	3.5	2.6
		차이 (여-남)	-	4.3	-5.1	1.1	-0.8	0.5
	20- 29세 미만	여성	100.0	21.9	67.6	2.5	1.7	6.4
		남성	100.0	19.9	69.4	2.4	2.8	5.5
		차이 (여-남)	-	2.0	-1.8	0.1	-1.1	0.9
	30- 39세 미만	여성	100.0	44.1	44.8	3.3	1.6	6.3
		남성	100.0	41.7	46.3	3.7	1.6	6.7
		차이 (여-남)	-	2.3	-1.5	-0.4	0.0	-0.4
	40- 49세 미만	여성	100.0	51.5	38.7	3.9	1.9	4.1
		남성	100.0	37.8	48.8	3.8	2.0	7.6
		차이 (여-남)	-	13.7	-10.2	0.0	-0.1	-3.5
	50- 59세 미만	여성	100.0	46.9	42.9	4.2	1.9	4.2
		남성	100.0	28.9	57.1	3.9	2.1	8.0
		차이 (여-남)	-	18.0	-14.3	0.3	-0.2	-3.8
	60- 69세 미만	여성	100.0	40.8	49.3	4.9	1.7	3.3
		남성	100.0	26.9	61.7	3.5	2.1	5.9
		차이 (여-남)	-	14.0	-12.4	1.4	-0.3	-2.6
	70- 79세 미만	여성	100.0	34.8	57.0	5.1	1.3	1.8
		남성	100.0	28.1	62.7	3.7	1.7	3.8
		차이 (여-남)	-	6.8	-5.7	1.3	-0.5	-1.9
	80세 이상	여성	100.0	29.9	63.3	4.2	1.0	1.7
		남성	100.0	28.5	64.2	4.0	1.0	2.4
		차이 (여-남)	-	1.4	-0.9	0.1	0.0	-0.6

자료 : 인구총조사

- 도내 20-39세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주택유형을 시군별로 나누어 보면,
 - 시 지역은 군 지역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중이 약간 낮고 비교적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음.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에 사는 비중은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가장 낮으나 군에 비해 시의 비율이 약간 높음
 - 군 지역은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이 시 지역에 비해 3배 수준 높음
- 이는 전체 연령대 여성 1인 가구가 시 지역에서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은 것과 군 지역의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은 것과 반대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전체 여성 1인 가구 중 청년여성 1인 가구는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에서 차이가 확인

[도표 3-13] 2020년 기준 도내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택유형에 대한 시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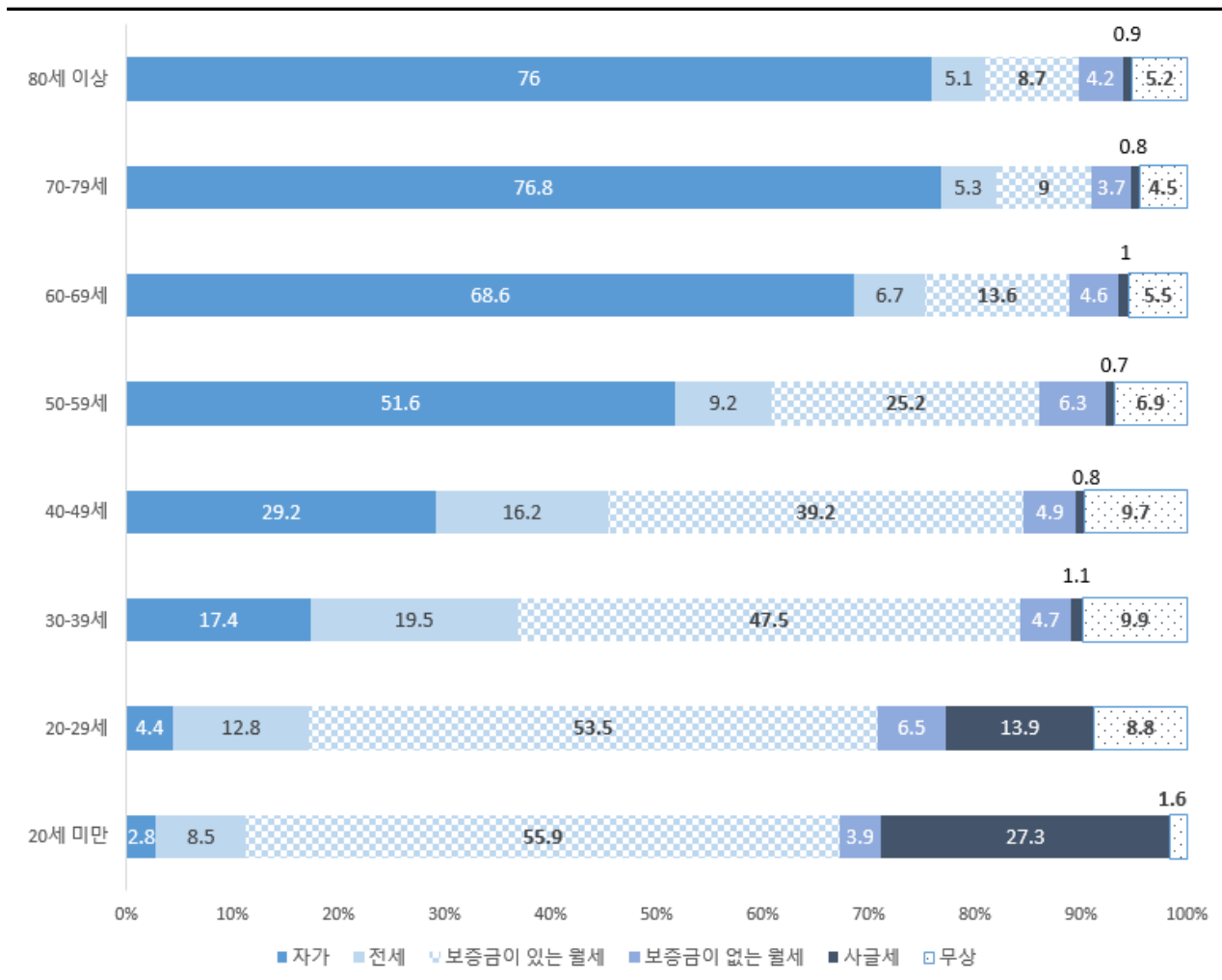
[도표 3-14] 2020년 기준 시군별 도내 청년(20~39세) 여성 1인가구의 주택 유형 현황

구분 (단위: 가구, %)		전체	주택				주택 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강원도	수	24,991	7,212	15,321	549	411	1,498
	비중	100.0	28.9	61.3	2.2	1.6	6.0
춘천시	수	6,300	1,462	4,329	170	57	282
	비중	100.0	23.2	68.7	2.7	0.9	4.5
원주시	수	8,220	2,772	4,627	71	113	637
	비중	100.0	33.7	56.3	0.9	1.4	7.7
강릉시	수	5,020	935	3,640	116	132	197
	비중	100.0	18.6	72.5	2.3	2.6	3.9
동해시	수	593	315	235	29	0	14
	비중	100.0	53.1	39.6	4.9	0.0	2.4
태백시	수	371	172	155	32	12	0
	비중	100.0	46.4	41.8	8.6	3.2	0.0
속초시	수	807	442	299	23	5	38
	비중	100.0	54.8	37.1	2.9	0.6	4.7
삼척시	수	1,125	198	821	20	61	25
	비중	100.0	17.6	73.0	1.8	5.4	2.2
홍천군	수	428	159	200	24	5	40
	비중	100.0	37.1	46.7	5.6	1.2	9.3
횡성군	수	221	35	172	0	0	14
	비중	100.0	15.8	77.8	0.0	0.0	6.3
영월군	수	227	73	117	0	0	37
	비중	100.0	32.2	51.5	0.0	0.0	16.3
평창군	수	292	82	116	18	11	65
	비중	100.0	28.1	39.7	6.2	3.8	22.3
정선군	수	312	110	111	0	5	86
	비중	100.0	35.3	35.6	0.0	1.6	27.6
철원군	수	172	78	53	36	5	0
	비중	100.0	45.3	30.8	20.9	2.9	0.0
화천군	수	135	76	59	0	0	0
	비중	100.0	56.3	43.7	0.0	0.0	0.0
양구군	수	119	47	52	5	0	15
	비중	100.0	39.5	43.7	4.2	0.0	12.6
인제군	수	185	76	98	5	0	6
	비중	100.0	41.1	53.0	2.7	0.0	3.2
고성군	수	254	68	158	0	5	23
	비중	100.0	26.8	62.2	0.0	2.0	9.1
양양군	수	210	112	79	0	0	19
	비중	100.0	53.3	37.6	0.0	0.0	9.0

자료 : 인구총조사 (2020년 전수조사)

- 도내 1인 가구 중 20·30대의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는 다음의 특징이 확인됨
 - 연령이 낮을수록 자가보유 비중은 낮으며 그 차이가 매우 큼. 반대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낮아짐.
 - 20대와 30대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절반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며 전세 거주자 비중은 월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게 적은 수준
 - 20세 미만의 경우 사글세 거주 비중도 매우 높음
- 20·30대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동 연령대 남성 1인 가구보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더 많이 거주

[도표 3-15] 강원도 여성 1인가구의 연령대별 주택점유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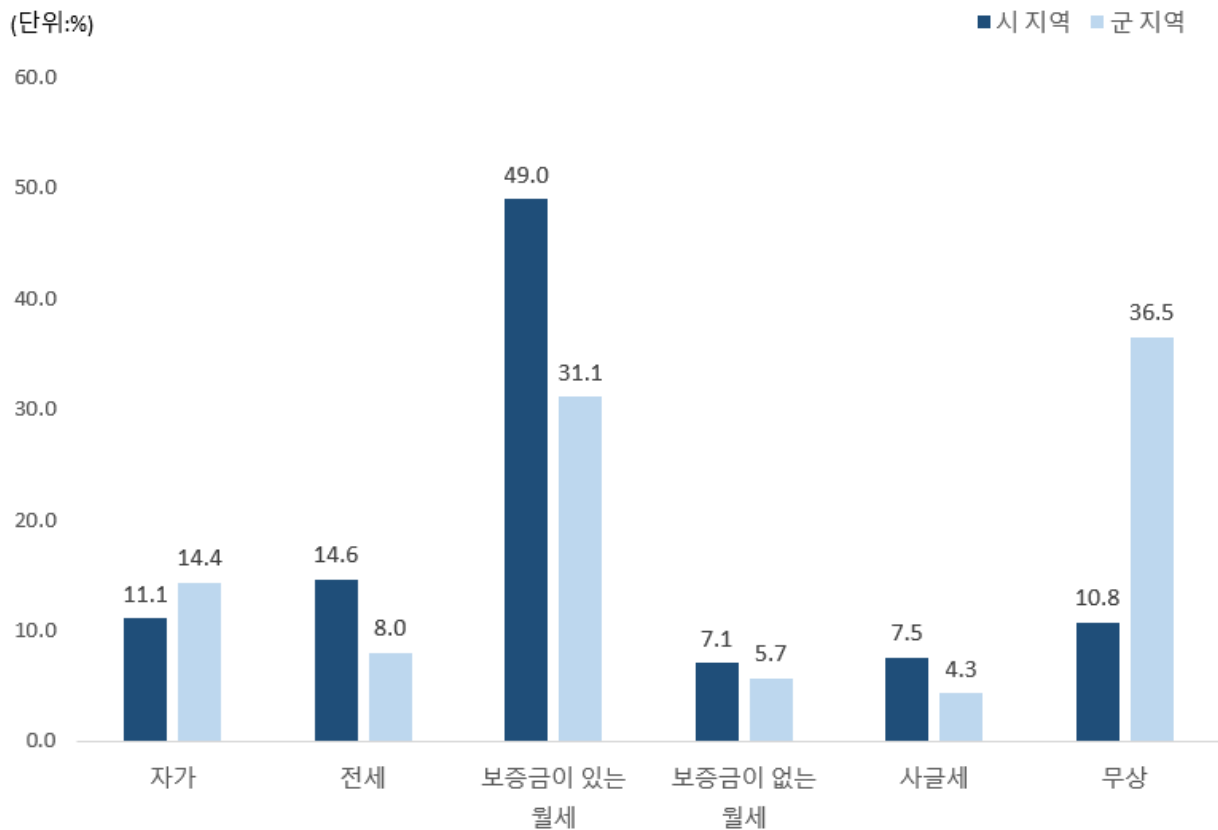


[도표 3-16] 강원도의 성별 1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비교(2019년)

구분 (단위: %)		전체	자기집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사택 등)	
강원도		여성	100.0	55.8	8.7	22.1	4.8	2.4	6.3
		남성	100.0	31.1	9.7	30.2	9.7	6.1	13.3
		차이 (여-남)	-	24.7	-1.0	-8.1	-4.9	-3.7	-7.0
	20세 미만	여성	100.0	2.8	8.5	55.9	3.9	27.3	1.6
		남성	100.0	2.2	4.5	40.8	13.8	36	2.6
		차이 (여-남)	-	0.6	4.0	15.1	-9.9	-8.7	-1.0
	20-29세 미만	여성	100.0	4.4	12.8	53.5	6.5	13.9	8.8
		남성	100.0	4.1	11.7	42.8	10.3	21	10.1
		차이 (여-남)	-	0.3	1.1	10.7	-3.8	-7.1	-1.3
	30-39세 미만	여성	100.0	17.4	19.5	47.5	4.7	1.1	9.9
		남성	100.0	16.4	17.4	39.2	6.8	0.7	19.5
		차이 (여-남)	-	1.0	2.1	8.3	-2.1	0.4	-9.6
	40-49세 미만	여성	100.0	29.2	16.2	39.2	4.9	0.8	9.7
		남성	100.0	26.2	10.7	33.5	9.5	1.1	19
		차이 (여-남)	-	3.0	5.5	5.7	-4.6	-0.3	-9.3
	50-59세 미만	여성	100.0	51.6	9.2	25.2	6.3	0.7	6.9
		남성	100.0	36.9	8.3	26.5	11.5	1.5	15.2
		차이 (여-남)	-	14.7	0.9	-1.3	-5.2	-0.8	-8.3
	60-69세 미만	여성	100.0	68.6	6.7	13.6	4.6	1.0	5.5
		남성	100.0	52.5	5.2	19.8	11.6	1.8	9.1
		차이 (여-남)	-	16.1	1.5	-6.2	-7	-0.8	-3.6
	70-79세 미만	여성	100.0	76.8	5.3	9.0	3.7	0.8	4.5
		남성	100.0	68.2	4.9	11.9	6.8	1.4	6.8
		차이 (여-남)	-	8.6	0.4	-2.9	-3.1	-0.6	-2.3
	80세 이상	여성	100.0	76.0	5.1	8.7	4.2	0.9	5.2
		남성	100.0	74.0	5.0	8.1	4.9	1.5	6.6
		차이 (여-남)	-	2.0	0.1	0.6	-0.7	-0.6	-1.4

- 도내 20-39세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를 시군별로 나누어 보면,
- 시 지역의 군 지역에 비해 보증금이 있는 월세, 전세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이 전체 중 가장 큼
 - 군 지역은 시 지역보다 전세 거주 비중이 낮고, 무상 거주 비중이 매우 높음

[도표 3-17] 2015년 기준 도내 청년 여성 1인가구의 주택 점유에 대한 시군간 비교



[도표 3-18] 2015년 기준 시군별 도내 청년(20-39세) 여성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현황

구분 (단위:가구,%)		전체	자기집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사택 등)
강원도	수	17,796	1,698	2,716	9,051	1,004	1,530	1,797
	비중	100.0	9.5	15.3	50.9	5.6	8.6	10.1
춘천시	수	4,765	387	768	3,192	252	12	154
	비중	100.0	8.1	16.1	67.0	5.3	0.3	3.2
원주시	수	4,986	365	1,040	2,445	243	615	278
	비중	100.0	7.3	20.9	49.0	4.9	12.3	5.6
강릉시	수	2,928	286	304	1,374	175	688	101
	비중	100.0	9.8	10.4	46.9	6.0	23.5	3.4
동해시	수	718	80	161	281	92	21	83
	비중	100.0	11.1	22.4	39.1	12.8	2.9	11.6
태백시	수	385	70	23	132	17	0	143
	비중	100.0	18.2	6.0	34.3	4.4	0.0	37.1
속초시	수	796	116	133	451	40	4	52
	비중	100.0	14.6	16.7	56.7	5.0	0.5	6.5
삼척시	수	563	48	54	280	63	74	44
	비중	100.0	8.5	9.6	49.7	11.2	13.1	7.8
홍천군	수	349	49	47	182	10	4	57
	비중	100.0	14.0	13.5	52.1	2.9	1.1	16.3
횡성군	수	429	60	64	223	10	4	68
	비중	100.0	14.0	14.9	52.0	2.3	0.9	15.9
영월군	수	148	54	5	39	11	0	39
	비중	100.0	36.5	3.4	26.4	7.4	0.0	26.4
평창군	수	245	15	36	72	24	0	98
	비중	100.0	6.1	14.7	29.4	9.8	0.0	40.0
정선군	수	172	32	4	57	19	4	56
	비중	100.0	18.6	2.3	33.1	11.0	2.3	32.6
철원군	수	283	30	30	121	5	0	97
	비중	100.0	10.6	10.6	42.8	1.8	0.0	34.3
화천군	수	227	11	9	43	0	0	164
	비중	100.0	4.8	4.0	18.9	0.0	0.0	72.2
양구군	수	227	11	9	43	0	0	164
	비중	100.0	4.8	4.0	18.9	0.0	0.0	72.2
인제군	수	263	32	15	54	5	0	157
	비중	100.0	12.2	5.7	20.5	1.9	0.0	59.7
고성군	수	240	37	5	39	28	104	27
	비중	100.0	15.4	2.1	16.3	11.7	43.3	11.3
양양군	수	72	15	9	23	10	0	15
	비중	100.0	20.8	12.5	31.9	13.9	0.0	20.8

자료 : 인구총조사 (2015년 표본조사)

-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임차가구 중 강원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청년의 부담이 가장 큼
- 주거비 과부담은 1인 임차가구수 대비 RIR 30% 초과가구 수를 의미하는데, 강원도는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전국에 비해 15.0% 많은 상황으로, 도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 연령대는 물론 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확인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국에 비해 낮아 임차 가구의 물리적 수준은 비교적 낮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도표 3-19] 강원도의 주거비 과부담 가구 및 최저기준 미달가구 비율(2019년)

구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전국	30.8	31.4	21.1	43.7	13.7	11.9	17.1	15.2
강원	35.5	46.4	17.7	38.4	6.5	4.2	8.9	9.1
비교 (강원-전국)	4.7	15.0	-3.4	-5.3	-7.2	-7.7	-8.2	-6.1

자료: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국토연구원, 2021)

- 점유 안정성 측면에서 전체 1인 가구 중 임차불안감을 느낀 가구의 비율을 보면, 강원도는 전국에 비해서 불안가구의 비율이 높고, 특히 청년과 중장년의 비율이 높음
- 도내 청년 1인 가구 중 85.4%가 임차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평균 거주연수는 청년 1인 가구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짧음. 평균 1.1년을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전체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불안정하며, 특히 강원도 내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은 매우 크나 매우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도표 3-20] 강원도의 임차불안가구 및 평균 거주연수 비율(2019년)

구분	임차 불안가구 비율(%)				평균 거주연수(년)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전국	77.0	76.9	76.8	77.1	2.7	1.1	3.3	6.1
강원	85.2	85.4	86.6	81.4	2.8	1.1	3.2	6.1
비교 (강원-전국)	8.2	8.5	9.8	4.3	0.1	0.0	0.0	0.0

자료: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국토연구원, 2021)

- 「강원도 청년 1인 가구의 성별 특성 및 정책과제(2018)」연구에서 도내 청년 1인 가구 136명을 대상으로 거주지 마련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2,597만원으로 확인
 - 거주지 마련의 비용이 큰 순서로는 자가> 전세> 임대주택> 전+월세> 월세 순
 - 거주지 마련을 위하여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은 월세> 전세> 자가, 전+월세> 임대주택 순으로, 월세의 경우 총 비용은 적으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거주 형태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 비용은 높은 편이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은 가장 낮음

[도표 3-21] 강원도 청년 1인가구의 거주 형태별 거주지 마련 비용

구분 (단위: 명, 만원)	전체	자가	전세	전+월세	월세	임대주택	무상 (관사, 사택 등)
빈도	136	13	29	23	56	9	6
평균금액	2,597.49	8,307.69	4,189.66	2,378.26	654.96	3,597.78	0.00

[도표 3-22] 강원도 청년 1인가구의 거주 형태별 거주지 마련의 부모님 도움

구분 (단위: 명, 만원, %)	전체	자가	전세	전+월세	월세	임대주택	무상 (관사, 사택 등)
빈도	74	10	19	16	26	3	-
총인원대비 비율	54.4	76.9	65.5	69.6	46.4	33.3	-
평균금액	2117.93	5500.0	2931.58	1575.00	632.58	1460.00	-
총비용 대비 비율	81.5	66.2	70.0	66.2	96.6	40.6	-

자료: 강원도 청년 1인 가구의 성별 특성과 정책과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8)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세대가 거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르게 나타나며, 강원지역 청년세대의 경우 주택의 위치가 매우 중요

[도표 3-23] 청년세대의 거주지 선택 이유

구분 (단위 : %)	주거 비용	주택 유형	주택 상태	주택 위치	주거 환경	향후 주택가격 변화	기타
서울	33.2	11.2	4.0	38.3	9.5	3.3	0.5
인천,경기	30.0	20.8	3.6	30.2	10.9	3.1	1.3
대전·충청·세종·강원	27.7	13.7	4.2	37.4	11.8	3.0	2.2
광주·전라·제주	22.5	16.1	6.7	33.5	16.6	4.1	0.5
부산·울산·경남	25.4	21.0	7.5	31.1	12.7	1.8	0.6
대구·경북	22.3	14.2	10.8	32.6	18.0	2.2	0.0

자료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 강원이 포함된 지역의 청년세대는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짐
- 청년주택공급/ 청년주거비 지원/ 청년주거환경개선/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등 조사항목 전체의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낮음

[도표 3-24] 청년세대의 주거정책 인지도

구분 (단위 : %)	청년주택공급	청년주거비 지원	청년주거환경 개선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전체	68.5	44.7	21.7	38.0
여성	69.6	44.5	20.3	37.8
남성	67.4	44.9	23.1	38.3
차이 (여성-남성)	2.2	-0.4	-2.8	-0.5
서울	79.7	51.4	31.9	49.1
인천,경기	70.2	45.2	22.7	36.4
대전·충청·세종·강원	60.0	38.6	14.1	28.6
광주·전라·제주	61.5	45.0	19.7	43.3
부산·울산·경남	68.3	43.8	17.8	33.8
대구·경북	64.9	43.0	20.6	40.7

자료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 청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청년 주거정책은 ‘청년주택공급’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요구도가 전체보다 높음

[도표 3-25] 청년세대의 주거정책 필요성

구분 (단위 : %)	청년주택공급	청년주거비 지원	청년주거환경 개선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전체	63.0	23.2	7.6	6.2
여성	63.1	23.0	7.7	6.2
남성	62.9	23.4	7.5	6.2
차이 (여성-남성)	0.2	-0.4	0.2	0.0
서울	67.1	19.2	7.9	5.7
인천, 경기	61.6	26.5	5.0	6.9
대전·충청·세종·강원	66.5	19.3	8.4	5.8
광주·전라·제주	61.7	25.7	6.1	6.4
부산·울산·경남	63.3	21.4	9.3	6.0
대구·경북	53.8	27.9	13.0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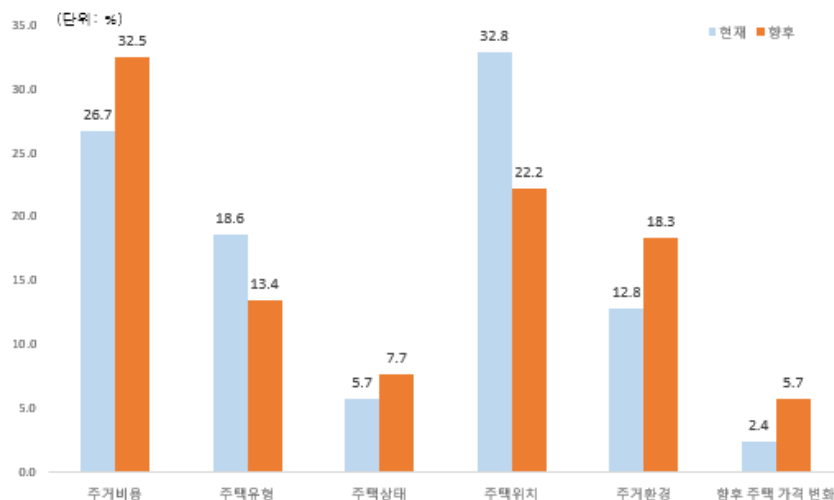
자료 : 청년사회 · 경제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참고) 청년세대의 현재 거주지 선택 사유와 향후 주거 마련시 중요사항에 대한 성별 비교

-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주택의 위치(직장, 학교와의 거리, 부모님 집과의 거리 등)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주거비용(전월세 비용, 매매가격 등), 주택유형(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등), 주거환경(의료, 문화시설, 공원, 교육시설 등) 순임
- 그러나 향후 주거 마련 시 중요사항은 주거비용>주택의 위치>주거환경 또는 주택유형 순으로 중요도가 달라짐
 - 여성은 현재 거주지 선택은 주택위치>주거비용>주택 유형 순으로 중요도가 높으나 향후 거주지 선택 시 주거비용>주택위치>주거환경 순으로 중요도가 변화
 - 향후 거주지 이전 시 주거비용에 대한 중요도, 향후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중요도가 현재 거주지 선택 이유보다 높아져, 현재 청년세대들의 주거비 민감도가 상승한 것과 주거비 부담이 그 원인일 것으로 예상
- 청년여성은 남성에 비해 현재의 거주지에서 주택유형을 더 민감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향후 이전 시에는 주거환경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고려할 예정으로 성별 간 차이를 보임

구분 (단위 : %)		주거 비용	주택 유형	주택 상태	주택 위치	주거 환경	향후 주택가격 변화
현재 거주지 선택이유	전체	28.1	16.7	5.3	33.7	12.3	3.0
	여성	26.7	18.6	5.7	32.8	12.8	2.4
	남성	29.5	14.7	4.9	34.5	11.7	3.6
	차이 (여성-남성)	-2.8	3.9	0.8	-1.7	1.1	-1.2
향후 거주지 선택 중요사항	전체	34.1	14.8	7.3	21.0	16.3	6.6
	여성	32.5	13.4	7.7	22.2	18.3	5.7
	남성	35.7	16.2	6.8	19.7	14.2	7.5
	차이 (여성-남성)	-3.2	-2.8	0.9	2.5	4.1	-1.8

[도표 3-26] 청년 여성의 현재 거주지 선택 사유와 향후 주거 마련시 중요사항 비교



자료 : 청년사회 · 경제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다. 강원도 내 여성과 청년 가구의 안전

- 2020년 강원도 사회조사 결과로 살펴보면, 청년, 여성, 미혼상태에서 각종 범죄피해에 대하여 두려움이 큼. 또한 월세나 전세의 임차가구,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경우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 해당 계층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환경조성이 필요
- 주변 사람에 대한 신뢰도로 보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보다 그 신뢰도가 낮고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낮게 평가함. 도시지역과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공동체성에 대한 신뢰 향상 노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민의 삶의 질과 주관적 의식 중 아래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도내 여성과 청년 가구가 인지하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인

- 도내 여성인구는 남성에 비해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낮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
-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동부가 읍면부보다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범죄피해 두려움이 큼
- 연령별로는 19세 미만 미성년층과 30대 인구의 범죄피해 두려움이 가장 큼
- 미혼인 경우가 그 외 상태보다 범죄피해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낌
- 연립/ 다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대한 범죄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전세, 월세 등의 임차 가구가 자가보유 가구보다 범죄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

[도표 3-27] 사회안전에 대한 강원도민 인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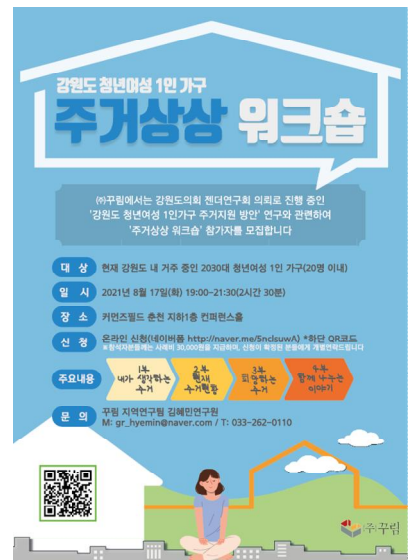
구분 (단위 : 점)		일반인에 대한 신뢰 (4점 만점)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5점 만점)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5점 만점)
지역	동부	2.12	2.12	2.60
	읍면부	2.16	2.09	2.38
성별	남자	2.18	1.73	1.97
	여자	2.09	2.49	3.05
연령	13-19세 미만	1.97	2.41	2.88
	20-29세 미만	1.99	2.1	2.55
	30-39세 미만	2.04	2.23	2.74
	40-49세 미만	2.12	2.09	2.61
	50-59세 미만	2.23	2.01	2.41
	60-69세 미만	2.2	2.07	2.37
	70세 이상	2.24	2.08	2.28
혼인 상태	미혼		2.14	2.56
	배우자 있음		2.09	2.50
	사별		2.23	2.48
	이혼, 별거		2.04	2.47
주택 유형	단독	2.18	2.08	2.35
	아파트	2.09	2.13	2.65
	연립/다세대	2.17	2.16	2.54
	기타	2.32	1.95	2.17
점유 유형	자가	2.15	2.10	2.48
	전세	2.10	2.19	2.71
	보증금이 있는 월세	2.11	2.14	2.58
	보증금이 없는 월세	2.12	1.88	2.06
	무상	2.15	2.12	2.47

자료 : 강원도사회조사(2020년)

03.2.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상상 워크숍

가. 주거상상 워크숍 개요

일시	2021년 8월 17일(화) 19:00-21:30(2시간 30분)	장소	커먼즈필드 춘천 지하1층 컨퍼런스홀
목적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참여집단의 주거 현황과 주거지원 수요를 조사하고 주거기반 마련 과정 및 주거 불안정·불안전 경험 등을 파악 ⇒ 통계상에 드러나지 않는 청년여성의 주거환경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 방안> 연구에 반영		
대상	“현재 강원도 내 거주 중인 20·30대 청년여성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자”		
	소재 실거주자가 춘천 또는 강원도 내 기타지역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성별 여성
	& 가구 1인 가구 (가구원이 1명)		
모집 절차	2021년 8월 9일부터 2021년 8월 16일까지 약 일주일간 온라인 신청양식 ‘네이버폼’을 통해 강원도 내 거주하는 청년여성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참가자를 모집 ↓ 모집 결과, 최종적으로 9인의 강원도 청년 여성이 워크숍 접수 및 참석		
진행 구성	진행자 · ㈜꾸림 임혜순 대표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승희 교수 · ㈜꾸림 이주희 객원연구원 서기 · ㈜꾸림 김혜민 연구원 · ㈜꾸림 김채원 인턴사원 진행 방식 참석자 9인을 3개 팀으로 나누어, ‘주거’에 대해 집단 토의(FGI)를 실시한 모둠별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기초로 워크숍 진행		



[주거상상 워크숍 참가자 모집 홍보물]

나. 주거상상 워크숍 프로그램 및 진행과정

○ 주거상상 워크숍 프로그램

인사		19:00~19:10	윤지영 강원도의원
Pre	통계로 보는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19:10~19:20	이주희 객원연구원
워크숍	[Ice Breaking] 내가 생각하는 주거	19:20~19:40	-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거의 이미지 - 나의 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현재 주거 현황	19:40~20:10	- 현 주거지 위치, 현 주거환경의 장단점 - 주거유형과 구조 - 현재 월 급여 대비 주거비 비중
	희망하는 주거	20:20~20:50	- 살고 싶은 동네의 주변 환경과 커뮤니티 - 희망하는 주거유형
	함께 나누는 이야기	21:00~21:30	- 주거 마련 또는 주거 유지에 있어서 어려운 점 - [청년여성 주거지원 방안 브레인스토밍] 우리 주거 문제, 우리가 해결한다면?

○ 주거상상워크숍 진행과정

통계로 보는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워크숍 시작 전,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주거 관련 통계 현황 및 특성 살펴보기
↓	
[팀 활동] 내가 생각하는 주거	이상적인 주거 이미지와 현재 나의 집 이미지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비교해보며 내가 원하는 주거 형상 그려보기
↓	
[팀 활동] 현재 주거 현황	현 주거지 주거환경의 장점과 단점이 되는 특징들을 나열하여 현 주거 상황에 대한 일화 풀어보기
↓	
[팀 활동] 희망하는 주거	내가 살고 싶은 주거공간을 상상하며 희망 주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팀 활동] 함께 나누는 이야기	주거 마련과 유지 과정에서 경험한 고충들을 공유하며 해당 주거문제를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 토의하기

다. 주거상상 워크숍 결과

① 이상적인 주거 이미지 VS 현재 나의 주거 이미지

- 워크숍 참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 주거’와 ‘현재 나의 주거’는 크게 내·외부 환경, 정서적 영향이나 느낌, 사회적 관계, 기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환경적 측면(내·외부)에서 ‘이상적인 주거’는 깨끗하고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공간이 분리된 쾌적한 환경을 생각하는 반면, ‘현재 나의 주거’는 노후되고 협소하며 습하고 어두운 쾌적성 면에서 취약한 모습을 나타냄
 - 정서적 영향 측면에서는 공통되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나의 주거’의 정서적 영향에 관해 답답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등의 부정적 느낌도 나타남
 - 사회적 관계 및 기타 의견으로, ‘이상적 주거’에서 좋은 이웃과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나타났으며, 경제적 우수, 좋은 임대인, 반려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기타의견이었음. ‘현재 나의 주거’는 경제적이기는 하나 노후되어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떠나야 하는 불안정한 공간으로 나타남.

[도표 3-28] 주거상상워크숍 결과_이상적인 주거 VS 현재 나의 주거

이상적인 주거	내부 환경	가전제품, 공간 분리, 깔끔한, 깨끗한, 넓은, 리모델링, 신축, 조용한(방음), 쾌적한, 합리적 구조, 햇빛(채광), 환기
	외부 환경	편의시설, 안전한(치안), 인프라, 입지 및 접근성, 자연환경
	정서적 영향	독립적, 쉴 수 있는, 아늑한, 안식처, 안정감, 정감 가는, 집콕, 편안한, 프라이버시
	사회적 관계	좋은 이웃, 친구 초대
	기타	반려동물, 대출 가능(경제성), 좋은 임대인(임대차)
현재 나의 주거	내부 환경	깨끗한, 넓은 세간, 냄새, 노후된, 비위생적, 시끄러운(소음), 습한, 어두운, 이상한 구조, 좁은, 탁한 공기, 하얀 인테리어, 협소한, 화창한, 회색
	외부 환경	도서관, 안전한(치안), 주차난, 지저분한 외관, 편리한
	정서적 영향	고립감, 답답한, 독립적, 머물고 싶은, 불안정, 불쾌한, 아늑한, 편안한, 평온한
	기타	가성비(경제성), 떠나야 하는,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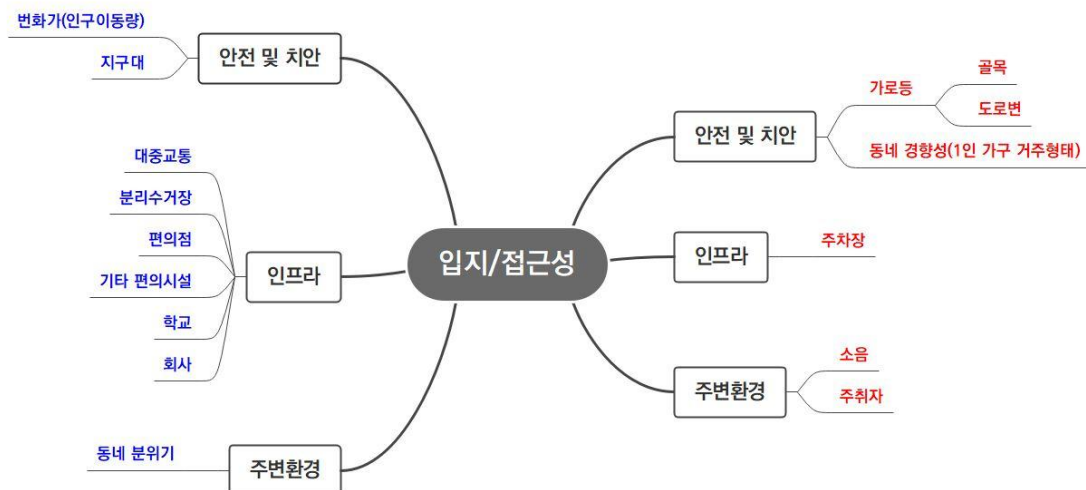
최다빈도 상위 4개 단어

햇빛(채광), 편의시설, 깨끗한, 안전한, 반려동물	노후된, 편리한, 안전한, 습한, 주차난
------------------------------	------------------------

② 현재 주거지의 장·단점

워크숍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현재 주거지의 장점 및 단점은 크게 ‘입지와 접근성’, ‘시설/구조’, ‘경제성’, ‘사회적 관계’, ‘기타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었음

○ 입지 및 접근성 측면 : 안전 및 치안, 생활인프라, 주변환경 관련 장점 및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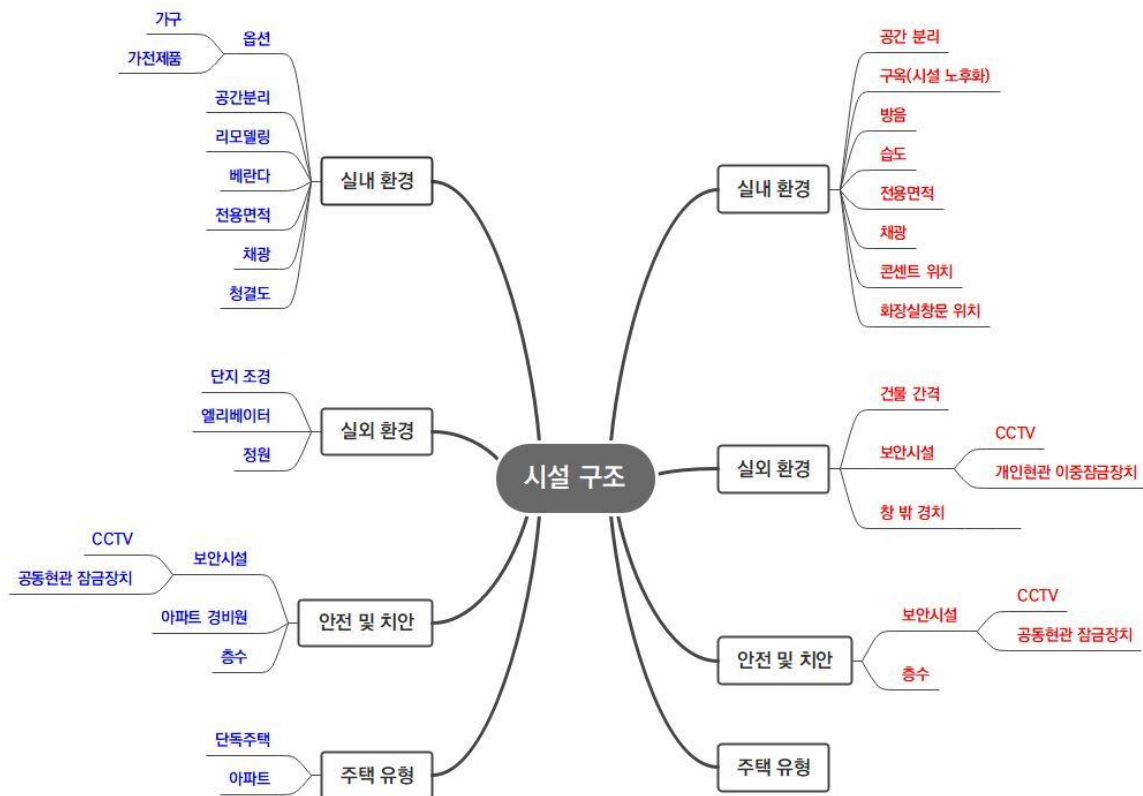
[도표 3-29] 주거상상워크숍 결과_현재 주거의 장·단점 ; 입지/접근성

- ‘안전 및 치안’과 관련해서는 지구대가 근처에 있거나 변화한 지역에 위치하여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동네의 특성상 가로등 취약 등 골목길 밤길 안전이 단점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학교나 회사와 가까운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쓰레기분리수거장, 편의점 등 생활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졌다는 의견이었으나, 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특성상 주차장 시설이 단점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주변환경'과 관련해서는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동네분위기를 장점으로 꼽은 반면, 생활소음과 주차자 문제를 단점으로 들었음.

○ 시설 및 구조 측면 : 실내환경, 실외환경, 주택유형 관련 장점 및 단점

- '실내환경'과 관련해서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 세대 내 옵션이 좋고 채광이 좋은 장점을 든 반면, 주택의 노후화와 구조문제로 인한 방음, 습도, 채광 등의 문제와 공간 협소 등을 단점으로 꼽았음
- '실외환경'과 관련해서는 단지 내 조경(아파트 거주)과 엘리베이터, 작지만 정원이 있는 경우 장점으로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이웃 건물과의 간격이 좁아 채광이나 실외조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보안시설의 취약을 단점으로 제시
- '안전 및 치안'과 관련해서는 단지내 경비실 운영(아파트 거주), 공동현관 잠금장치 및 CCTV를 공통으로 장점과 단점으로 들어, 이들 시설이 안전도에 민감한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도표 3-30] 주거상상워크숍 결과_현재 주거의 장·단점 ; 시설/구조 측면

○ **경제성 측면** : 주거비 관련

- ‘주거비’와 관련하여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 임대료, 공과금 등 주거 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장점으로 꼽았고 월세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표 3-31] 주거상상워크숍 결과_현재 주거의 장·단점 ; 경제성 측면

○ **사회적 관계 측면** : 이웃과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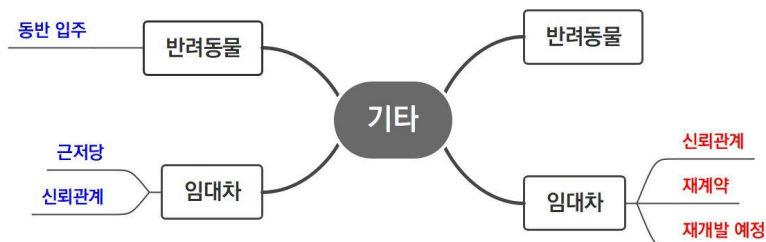
- ‘이웃/커뮤니티’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1인 가구이나 좋은 이웃, 좋은 임대인과의 관계를 희망하고 있어 이웃관계가 좋지 않거나 지역 내 마땅한 커뮤니티가 없는 경우를 단점으로 들고 있음.



[도표 3-32] 주거상상워크숍 결과_현재 주거의 장·단점 ; 사회적 관계 측면

○ **기타 의견** : 반려동물과 임대차 문제

- ‘반려동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동반입주가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들었고, 임차 중인 주택에 근저당 금액이 적어 경매 등 부실채권 우려가 적은 경우 장점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반면, 임대인과의 신뢰관계가 불안정하거나 향후 지속적인 주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계약 문제, 혹은 노후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이 예정된 경우 불안정한 임대차 문제를 단점으로 들었음.



[도표 3-33] 주거상상워크숍 결과_현재 주거의 장·단점 ; 기타 의견

[도표 3-34] 주거상상워크숍 결과_참가자별 현재 주거의 장·단점

참가자		내용	유형구분
참석자-1 (20대, 대학생)	장점	- 선호하는 주택 유형(아파트)에 거주 - 채광·조경을 누릴 수 있는 베란다가 있으며 단지에 수목이 조성되어 있음 - 주거비 부담이 적은 편(전세) - 설치된 CCTV가 많아 안전하다고 판단 - 분리수거가 용이하며 청결함 - 주변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	-시설 구조 -경제성 -시설 구조 -입지 및 접근성 -입지 및 접근성
	단점	- 단지 내 주차난 - 소음 문제 - 오래된 건물이며 재개발 예정(언젠가 이사를 가야만 함)	-입지 및 접근성 -시설 구조 -기타
참석자-2 (20대, 대학생)	장점	- 월세 대비 넓은 공간 - 냉·난방 효율성이 좋음 - 학교와 접근성이 좋음 - 인근 점포들과 가까워 입지상 안전하다는 감각	-시설 구조 -경제성 -입지 및 접근성 -입지 및 접근성
	단점	- 노후한 시설 - 복도 방향에 위치한 화장실 창문 - 비효율적인 사용 위치로 설계된 콘센트 (또한 방이 난잡해짐) - CCTV 부재 및 보안시설 관련 불안	-시설 구조 -시설 구조 -시설 구조 -시설 구조
참석자-3 (20대, 대학생)	장점	- 공동현관문이 있어 안전 -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음 -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	-시설 구조 -입지 및 접근성 -입지 및 접근성
	단점	- 채광이 좋지 못함(그로 인해 주택 내부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슬기도 함) -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답답함 - 주택면적이 협소하여 생활이 불편 - 이웃과 관계가 소원함 - 소음 문제	-시설 구조 -시설 구조 -시설 구조 -사회적 관계 -입지 및 접근성
참석자-4 (20대, 직장인)	장점	- 반려동물 동반 입주 가능(좋은 임대인) - 지구대 근처에 위치, 골목 CCTV설비 요인으로 안전 - 창문이 2개라 환기가 수월함 - 가구·가전제품 풀옵션 제공 - 대중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높음 (버스정류장이 가깝고 택시가 금방 잡힘)	-기타 -기타 -입지 및 접근성 -시설 구조 -입지 및 접근성

	단점	-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협소한 원룸 - 외부 현관 잠금장치, 2층 CCTV가 없는 점이 불안 유발 - 오래된 주택과 낡은 세간 - 해가 거의 들지 않는 북서향, 인접 건물로 시야가 막힌 남서향 창문(습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정서와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 - 월세 주거비 부담이 있음	-시설 구조 -시설 구조 -시설 구조 -시설 구조 -경제성
참석자-5 (30대, 직장인)	장점	- 주거비 부담이 덜함(전세) - 층수가 3층으로 안전 - 친절한 집주인 - 집주인 명의의 근저당이 전혀 없음 - 회사와 가까움	-경제성 -시설 구조 -기타 -기타 -입지 및 접근성
	단점	- 불확실한 재계약 여부에서 오는 불안 - 방음이 취약하여 층간소음 발생 - 주차 문제 - 예민한 이웃 - 시설물에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이 어려움	-기타 -시설 구조 -입지 및 접근성 -사회적 관계 -기타
참석자-6 (20대, 대학생)	장점	- 신축 건물 - 가장 근방의 편의점이 1분 거리 - 버스정류장이 가까움 - 청결하고 가구도 새것 - 엘리베이터 설비로 편리함	-시설 구조 -입지 및 접근성 -입지 및 접근성 -시설 구조 -시설 구조
	단점	- 비싼 월세 - 주변 골목이 너무 어두움 1.5룸이라 거실이 따로 없음 - 낮은 층수 - 좁은 주차공간	-경제성 -입지 및 접근성 -시설 구조 -시설 구조 -입지 및 접근성
참석자-7 (30대, 대학원생)	장점	- 전철역과 가까움 - 조용한 주변 환경 - 가까운 곳에 편의점 다수 위치 - 아파트 경비원 상주 - 리모델링 된 인테리어	-입지 및 접근성 -입지 및 접근성 -입지 및 접근성 -시설 구조 -시설 구조
	단점	- 제일 중요한 안전 문제 취약 - CCTV, 이중 잠금장치 등 보안설비가 부족하여 사비로 구매	-시설 구조

참석자-8 (20대, 직장인)	장점	• 1층 단독주택 • 방, 거실, 주방 공간이 분리되어 있음 • 집 인근에 편의시설 위치 • 정원이 있음	-시설 구조 -시설 구조 -입지 및 접근성 -시설 구조
	단점	• 공기가 습함 • 고양이 두 마리와 살기 좁은 면적 • 주차공간이 없음 • 인근 술집과 시장 때문에 시끄럽고 밤이 되면 주취자가 많이 지나다님 • 도로변과 골목길이 어두움	-시설 구조 -시설 구조 -입지 및 접근성 -입지 및 접근성 -입지 및 접근성
참석자-9 (20대, 대학생)	장점	• 주변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있음 • 학교와 접근성이 좋음 • 안락하고 독립적임 • 조용한 분위기	-입지 및 접근성 -입지 및 접근성 -시설 구조 -입지 및 접근성
	단점	• 동네에 1인 가구가 다수 거주 - 혼자 산다고 누구나 추측하기 쉬움 • 좁은 면적 • 옆 건물과 인접하여 창을 통해 실내가 다 보이므로 사생활 보호가 어려움 • 방음이 잘되지 않음	-입지 및 접근성 -시설 구조 -시설 구조 -시설 구조

③ 희망하는 주거

- 청년여성 1인 가구가 상상하는 희망하는 주거는, 크게는 **주거를 둘러싼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생활편의성을 높이는 시설(인프라) 접근성과 관련**
 - 시설인프라는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며, 도시환경과 관련해서는 공원, 산책로, 경관이 좋은 동네주변 환경 등을 꼽음.
- 또한, 실내 환경과 관련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주요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이 가능한 등의 **주거생활을 하는 개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주거에 대한 희망**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주거의 점유형태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자가 선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정적인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자가를 선호
 - 임대인 경우, ‘나의 집’이라는 인식이 약해 언젠가는 이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

- 공동체에 대한 니즈와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도 있었는데,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커뮤니티 거점공간(카페, 공동작업장, 도서관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희망

[도표 3-35] 주거상상워크숍 결과_희망하는 주거

구분	내용
우선하는 시설 접근성 (공공서비스 포함)	• 회사, 학교, 병원, 약국, 식료품점(반찬가게 등), 편의점, 마트, 식당, 파출소, 문화 공간(미술관·박물관·서점·도서관·영화관 등), 은행, 코인세탁소, 카페와의 접근성 중요
희망하는 도시환경 요소	• 하천, 산책로, 반려견 산책공원, 수목 조성, 원룸촌 분리수거장, 공원, 운동시설, 주차시설, 캠핑장, 흡연 구역, 언덕과 산이 아닌 평지, 산맥과 노을이 잘 보이는 동네
뚜렷한 자가선호 경향	• 임대주택의 경우, 대개 '나의 집'이라는 의식이 약해 언젠가는 나가야 하는 곳으로 생각 • 이에 따라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인테리어, 관리 등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내 공간을 마음껏 영유할 수 있는, 고정적인 주거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 추구 • 현실적으로 자가 소유 이전 단계로 전세 형태를 선택한 사례도 존재
공동체에 대한 니즈	• 개인이 부담하기에 비대해진 사회경제적 비용 ⇒ 공동체가 활성화된 공간에 대한 수요 • 1인 가구 거주자가 많은 곳의 공유공간, 커뮤니티 거점공간 • 공유 세컨하우스, 주기적인 소모임 커뮤니티, 취미활동 공유 커뮤니티, 비혼 돌봄 공동체, 비건 공동체, 공동구매 커뮤니티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공간	• 사회적협동조합형 카페, 카페식 공유 작업공간, 공용 체육시설, 공간대여가 가능한 도서관
필요한 주거구조 및 설비	• 거실, 침실, 주방 공간 분리 • 작은 소파와 책장을 놓을 수 있는 거실 유사 공간 • 다양한 수납공간 • 채광 좋은 거실과 방, 큰 창문 • 동선이 편하고 환기 시설을 갖춘 주방 •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구조

④ 주거마련 및 유지에 어려운 점

- 주거마련과 유지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으로는, 크게 임대차 계약 및 부동산 관련 정보와 정책접근성의 문제, 주거비용 문제, 치안문제로 나타남.
 -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불투명한 재계약 문제,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이나 학사일정과 맞지 않는 임대계약기간의 문제가 있었음. 이와 더불어 직장이나 학교문제로 한정된 기간 거주하는 경우 앞으로의 거취가 불투명한 경우 계속 지역에 거주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지역 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을 하는 경우, 취업기간까지의 불안정한 주거문제 상존
 - ‘부동산 관련 정보와 정책접근성’이 떨어져 거래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청년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주거정책 전달이 이루어지기를 희망
 - 또한, ‘주거비 부담’과 관련하여 주로 월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특성상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세나 자가마련 등 보다 안정적인 주거점유형태로 상향이동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
 -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의 경우, 학교와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가진 주거지가 오히려 주취자 문제 등 주변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함께 작용하는 경향으로, 1인 가구 거주 밀집지역의 근린생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와 서비스 지원 요구
 - 청년 여성 1인 가구가 특히 주거에 대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인 ‘치안-안전’과 관련해서는 단독 거주 여성에 대한 범죄 노출 가능성으로 인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워크숍 참여자들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한 경험을 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범죄에 대한 노출 우려로 행동범위가 축소되거나 보다 안전한 주거공간을 선택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

[도표 3-36] 주거상상워크숍 결과_주거마련 및 유지에 어려운 점

구분	내용
임대차계약 문제	• 계약기간 만료 이후 불투명한 재계약 여부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 가능한 예산 안에서 채광·조경·위생·치안 등 주거환경의 질이 양호한 주택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음 -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위 요소들과 더불어 반려동물 동반 입주 가능 여부가 중요하며 추가적인 고충 요인 • 계약기간이 대학교 학사일정과 연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주거 불안정 - 특히 코로나 감염상태로 인해 학기마다 변경되는 개강 여부 및 수강 방법(대면/온라인)에 맞추어 사전에 임대차계약을 결정하기가 어렵거나, 이미 계약이 성사된 자취방의 처분이 어려움 - 전세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자금이 묶여있게 됨 - 월세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취방에서 주거비용 발생
정보 및 정책 접근성 문제	• 부동산 거래사기에 대한 불안과 복잡한 대출 및 계약 절차 -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손해 가능성 증가 • 정부의 주거 정책 전달이 미흡
주거비용 문제	• 주거비용의 문제 - 월세 점유 형태는 소득에서 지출되는 비중이 매우 큰 편 - 자가 소유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전세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 - 전자와 후자 모두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전세는 보증금 액수의 부담이 큼
주거환경 관리 문제	• 학교와의 접근성은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 - 녹지로서 기능해야 할 공원이 오히려 주취자, 흡연자들의 공간으로 변질 • 분리수거장 부족으로 동네 경관 및 위생에 저해 - 원룸촌을 비롯한 주택단지 내 분리수거장이 조성 및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편을 야기
치안 문제	•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노출 가능성에서 기인하는 두려움 - 안전하고 가장 편안해야 할 집(거주 공간 안팎)에서도 언제든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 및 무력감과 연결된 일상적인 불안이 여성들의 행동 범위를 축소하기도 함 - 범죄 예방과 신변 보호가 가능한 주거환경을 찾다 보니 거주지 선택 범위가 제한되며, 이에 따라 안전한 주거공간을 택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주거비용이 발생

〈여성주거안전에 대한 주요 의견〉

“대학가의 경우 거주자 대부분이 1인 가구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불안도가 높아지고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여러 여성 1인 가구가 모여 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20대, 대학생)

“거주지를 결정하고 차후 생활하는 데 있어 건물 내부 및 주변 환경의 치안은 남성들에 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다. 누가 갑자기 노크하는 소리만 들어도 불안하다. 이런 걱정 때문에 자부담으로 CCTV와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또한 택배는 일부러 수령인 이름을 바꾸고, 박스를 버릴 때 이름과 주소가 나온 라벨을 따로 찢어서 버린다.” (30대, 대학원생)

“쾌적한 실내 환경과 달리 집 주변 골목이 외지고 어두워 밤에는 돌아다니기가 어렵다” (20대, 대학생)

“외출 후 현관문이 열려있고 물건 위치가 달라진 흔적을 발견한 적이 있다. 공동현관의 잠금장치와 내가 사는 층에 CCTV가 없다는 것이 처음 불안으로 다가왔고, 익숙했던 방이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어떤 남성이 몇 분간 옆집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을 때, 문을 열고 나가 그를 제지했다. 문득 내가 사는 호수가 노출되었고 그가 다시 건물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같은 건물에 남성 세입자들이 있는데 가끔 복도에서 무리 여럿과 마주칠 때 긴장이 되기도 한다. 혼자 사는 (여성)친구들은 대개 이런 유사한 감정과 경험들이 하나씩은 있다.” (20대, 직장인)

⑤ 주거문제 해결방안

- 청년여성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물리적인 방안으로는 여성전용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1인 가구 주거밀집지역의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분리수거 공간 조성, 공동체를 위한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있었음
- 이 외에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상/보완하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정보전달 플랫폼(신뢰 가능한 임대인, 물건 등 정보제공) 운영, 새롭게 강원도로 이주하는 청년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 주거정책 구상 및 정보전달과 관련한 해결방안 의견이 있었음
- 기타 주거기반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생활서비스 제공(식사, 의류보관, 체육시설 활용 등)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 의견이 도출됨.

[도표 3-37] 주거상상워크숍 결과_주거문제 해결방안

구분	내용
H/W	여성 전용 안심주택 조성 - 월급의 10%, 대략 월 30만 원 미만 선의 주거비가 드는 주택을 선호 - 여성전용 주택을 지어서 여성들한테 임대하고 건물 내 안전요원 고용 - 국가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최소한의 면적 이상을 확보한 1.5룸이나 투룸은 되어야 함 -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비용과 공간 문제를 해소할 공용 공간 필요
	분리수거장 설치 - 원룸촌에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조성 - 원룸단지에는 대부분 분리수거장이 없는 경우가 다수라 거주지 주변의 위생적인 환경을 저해함
	공유주방 및 공용공간 활용 - 좁은 면적의 원룸에서는 거실, 주방, 침실, 베란다 각각의 공간 및 공간에 따른 역할이 분리되지 않음 - 특히 주방은 조리 후 환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음식 냄새가 온 방에 났음 - 오피스텔의 여러 편의시설처럼 건물 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페, 헬스장 등의 공간 필요 -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공유 가능한 살림 및 생활 영역은 함께 할 수 있음
S/W	주거 정책 보완 -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도기 시기에 주거지원 정책의 공백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이 발생하므로 유예기간이 필요 - 형평성을 위해서는 현행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같이 실제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 4인 가구 핵가족 중심의 경향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주거정책 기조의 변화 필요 - 혈연이나 결혼을 통해 맺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거주 기반 커뮤니티의 1인 가구 구성원들이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년 가구와 타지역에서 전입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주거지원 정책 정보를 안내
	임차인 대상 부동산 거래정보 시스템·매뉴얼 구축 - 거래사기 예방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보 공유 시스템 및 매뉴얼 구축 - 임대인에 대한 신뢰도와 임차인 정보 취약성 문제 보완 ‘안심주택 입주자 커뮤니티’와 같이 집을 알아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 안전한 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 ex. 전·월세 에어비앤비, 전·월세 중고나라, 동네별 매물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 - 부동산계약 시 안전거래를 위한 동행 서비스 - 유형별 맞춤 대출 및 계약 절차 교육 프로그램

	주거비용 지원	• 자금 마련을 통해 자가 소유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세금 지원 확대
	주거 커뮤니티 결성	• 비혼 공동체를 비롯한 거주 기반 공동체 - 거주 기반 공동체의 체계를 마련하여,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며 위급상황 시 이웃끼리 유연한 돌봄 가능 • 사회생활을 하며 식사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식사 커뮤니티 - 관련 요식업 업체들과 제휴
	기타 서비스 제공	• 매일 메뉴가 달라지는 1인분 음식(도시락) 배달과 같은 정기적인 구독 서비스 • 동네 헬스장들이 몇 주택을 묶어서 구역별로 1인 가구 여성 대상 제휴 할인 제공 • 아파트의 편리함을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에서도 누릴 수 있는 서비스 • 안심귀가길 서비스 • 의류 및 침구류 보관 서비스 - 건물 지하나 수납공간이 있는 장소를 활용하여 이불과 계절옷 을 장기 보관

04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 사례

04.1. 자치법규 제정

04.2. 청년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및 지원

04.3.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

04.4. 커뮤니티

04.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 사례

04.1. 자치법규 제정

-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주거 보장과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자치법규 제정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1인 가구, 청년주거 안정, 사회주택 활성화, 여성과 관련된 전국의 다양한 자치법규 제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주거지원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함
 - 전국 17개 시도 모두 주거기본법에 의거한 주거기본조례와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청년을 포함한 1인 가구 기본조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주거기본조례를 제정한 광역 자치단체는 서울을 포함하여 주요 광역 시 지역과 경기, 전남, 경남의 일부 광역 도 지역으로 확인됨
- 청년이 이용가능한 사회주택 조성 and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전국의 3개 시도에서 제정되었고 여성을 위한 주거안정을 조향으로 명시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and 관련된 광역 시도 단위의 조례는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제정되어 있는 실정임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보장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또한 도내 총 9건의 시군 단위 여성친화도시 조성 and 관련한 조례가 지정되어 있으나 대전, 세종, 제주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강원도 차원에서의 청년여성의 주거안정과 안전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의 개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기 제정되어 있는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의 보완을 통한 주거안정 사업계획 수립과 지원, 사회주택 등에 대한 시책 마련,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도내 청년 여성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시도명	주거기본 조례	1인 가구		청년기본조례	청년 주거조례	사회주택 지원조례	여성친화도시 지원조례
		기본조례	고독사 예방				
서울	◎	◎		◎	◎	◎	
부산	◎	◎		◎		◎	
대구	◎		◎	◎			
인천	◎			◎			
광주	◎	◎		◎			
대전	◎	◎		◎			◎
세종	◎	◎		◎			◎
울산	◎		◎	◎			
경기	◎	◎		◎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			
전북	◎			◎			
전남	◎	◎		◎	◎		
경북	◎			◎			
경남	◎	◎		◎	◎		
제주	◎	◎	◎	◎			◎

가. 1인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조례

- 1인 가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은 총 90건으로 확인(2021.09월말 기준)
 - 이 중 광역자치단체 소관 조례는 총 11건으로 해당 시도는 다음의 표와 같음
 - 강원도의 광역 단위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로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사회적 고립가구’로 정의하여 고독사 예방활동에 집중

[도표 4-1] 시도별 1인가구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개정)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19. 5. 16.
부산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9. 30.
대구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2018. 10. 1.
광주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2019. 10. 15.
대전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 8. 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9.
울산	울산광역시 사회적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9. 3. 7.
경기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5.
충남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5. 30.
전남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 5. 21.
경남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 12. 2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8. 9.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20. 4. 13.

- 전국의 1인 가구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한 조례는 「기본조례」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기본 조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은 물론 1인 가구를 단독 가족의 단위로 인정하고 가족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보장을 노력하고자 함이 명시됨
 - 기본 조례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등의 총 10개 시도에서 수립
 - 조례는 1인 가구를 정의하고,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1인 가구 대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
 - 주요 지원사업은 주거지원/ 범죄예방/ 공동체 활동 등으로 제시

[표 4-2]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주거 안정과 관련한 사항

제7조(사업)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 사업
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3.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
4.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 가구 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는

- 대구/ 울산/ 제주의 3개 지역이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중 신체·정신·경제적 어려움이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등으로 한정
- 지원사업은 심리 치료/ 방문간호/ 생활안전 응급호출 등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공보건 사업에 집중
- 이러한 고독사 예방 조례는 강원도를 포함하여 인천, 광주, 대전, 충남 등의 시도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조례와 같이 일반적인 청년 1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보다 노인/장애인이나 별도의 사회적 욕구가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 볼 수 있음

[도표 4-3] 울산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와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8.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나. 청년 주거안정 관련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위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는 총 574건 (2021.08월말 기준)이며, 이 중 광역자치단체 소관 조례는 총 87개
 - 조례 제정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서울이며(10건), 그 다음으로는 경기(9건), 전남(9건), 경남(8건), 제주(8건) 순임
 - 강원도의 경우 총 3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부산(1건), 대구(2건), 충북(2건) 다음으로 적은 수준으로 확인됨

[도표 4-4] 시도별 청년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개정)
서울 (1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2021. 7. 20.
	서울특별시지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20.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2021. 3. 25.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2019. 5. 16.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2019. 3. 28.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31.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10. 5.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10. 5.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3. 25.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9. 10. 10.
부산 (1)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21. 7. 14.
대구 (2)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018. 8. 10.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20. 10. 5.
인천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21. 6. 4.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2019. 2. 20.
광주 (7)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2019. 7. 1.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 1.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15.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2020. 6. 1.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2020. 9. 28.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2021. 2. 25.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4. 20.
대전 (7)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21. 7. 30.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7. 30.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2019. 12. 27.

시도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2020. 10. 14.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시행규칙	2018. 2. 9.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숙소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20. 10. 23.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시행규칙	2018. 12. 28.
세종 (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9. 2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2021. 7. 15.
울산 (4)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7. 8.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20. 12. 29.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2020. 12. 29.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2021. 3. 18.
경기 (9)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2021. 7. 14.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2021. 7. 14.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8. 1. 4.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2017. 6. 13.
	경기도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2019. 1. 1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2020. 5. 19.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2021. 5. 20.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5. 20.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조례	2021. 3. 16.
강원 (3)	강원도후계농어업인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30.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2020. 3. 6.
	강원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9.
충북 (2)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2. 15.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2021. 7. 1.
충남 (5)	충청남도후계농어업인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20.
	충청남도 청년농수산물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2. 20.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0.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2020. 12. 30.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4. 30.
전북 (3)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5. 5. 1.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10. 11.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2021. 5. 28.
전남 (9)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2021. 7. 29.
	전라남도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 7. 29.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7. 12. 28.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2018. 2. 22.

시도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개정)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	2018. 10. 4.
	청년이 돌아오는 전라남도 농어촌 만들기 조례	2018. 11. 8.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2021. 6. 3.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2021. 5. 20.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2021. 5. 20.
경북 (4)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 5. 26.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2017. 3. 2.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4.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2021. 4. 1.
경남 (8)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2021. 7. 8.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2021. 7. 8.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2019. 6. 7.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9. 12. 26.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2021. 6. 3.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2021. 5. 3.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1.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2021. 4. 1.
제주 (8)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2021. 7. 9.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016. 12. 30.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2. 28.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 2. 28.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2020. 8. 1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11. 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20.

○ 이 중 청년주거와 관련한 조례는 총 5건으로 확인됨

[도표 4-5] 전국의 청년 대상 주거안정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광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2018.03.28
	경기도 청년주거안정 지원 조례	2021.07.14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 조례	2021.06.03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조례	2021.07.08
기초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2021.08.13

○ 각 조례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은 조례제정의 목적/ 기본이념과 원칙/ 주거계획의 수립/ 주거사업/주거실태 조사/ 재정 지원/ 다른 법규와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주거기준에 대한 설정과 주거사업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 경기도의 경우 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 전남의 경우 타 조례와 비교할 때 조례의 내용 구성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본 조례의 형태를 보이지 않음

[도표 4-6] 지역별 청년 주거 관련 조례의 항목 구성 비교

	목적	기본 이념	용어 정의	도지사 의 책무	기본 원칙	계획의 수립	주거 기준의 설정	주거 사업	실태 조사	재정 지원	위원회	관련 기관 협력	타 법규와의 관계
서울	◎	◎	◎		◎	◎	◎	◎	◎	◎		◎	◎
경기	◎		◎	◎		◎		◎	◎		◎	◎	
전남	◎		◎			◎				◎			
경남	◎	◎			◎	◎	◎	◎	◎	◎		◎	
김해	◎	◎			◎	◎	◎	◎	◎	◎		◎	

[도표 4-7] 지역별 청년 주거 관련 조례의 주요 구성

자치법규명	주요 구성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제5조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제7조 (청년주거사업) 제8조 (청년주거실태조사)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부칙
경기도 청년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청년 주거 관련 계획 수립) 제5조 (청년 주거 실태조사 등)

자치법규명	주요 구성
	제6조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제7조 (위원회) 제8조 (지원) 제9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제10조 (시행규칙) 부칙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제4조 (신혼부부 등 대출이자 지원)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부칙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제4조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제6조 (청년주거사업) 제7조 (청년주거실태조사) 제8조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9조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 (시행규칙) 부칙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제4조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제6조 (청년주거사업) 제7조 (청년주거실태조사) 제8조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9조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 (시행규칙) 부칙

- 위의 5개 조례 중 광역자치단체 제정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김해시의 경우 소속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의 조례 내용을 준용하므로 아래의 내용 분석에서 제외함
 - (목적) 각 시도의 청년 대상 주거지원 관련 조례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공통적으로 추구함.

- (기본이념) 전체 조례 중 서울시만 기본이념을 제시함. 서울의 조례는 **청년을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로 정의하며 주거정책의 대상인 청년에 대한 주거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을 제시**
- (정책의 기본 원칙) 서울의 경우 비정상적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과 청년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명시함이 특징임. 경남은 서울시와 유사하나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제시함
- (주거실태조사) 서울의 조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시 **청년의 주택자금조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주택마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에 대한 객관적 상황과 청년의 주관적 인지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함
- (주거기준) 서울과 경기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외 **시도단위의 자체 주거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명시
- (주거사업) 서울의 경우 지자체가 수행하는 시설복합화 사업과 연계하거나 창업과 관련된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또는 주거정비, 지역개발이 수행될 경우 **청년 대상 주택공급이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

[도표 4-8] 지역별 청년주거 관련 조례의 주요 구성항목별 내용 비교

구분	지역	주요내용
목적	서울	- 주거기본법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 특별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
	경기	-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제13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청년의 주거안정과 이를 통한 자립에 기여하는 것
	전남	-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
	경남	-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강화 에 기여함을 목적
기본 이념	서울	-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로 정의 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정책의 기본 원칙	서울	-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 2. 준주택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

구분	지역	주요내용
	경남	-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 -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관련 계획의 수립	서울	- 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 4.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 5.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 6.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경기	- 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청년 주거수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3. 청년 주거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 - 5.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남	- 1.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 3. 신청 및 지원 절차 - 4. 지원 중지 및 환수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남	- 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청년주거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 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주거 실태 조사	서울, 경남	-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 2. 준주택 및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기	- 1.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 - 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 3. 청년 주거수요 사항 - 4.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 사항 -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분	지역	주요내용
주거 기준	서울, 경남	-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별도 기준 산정 가능
	경기	- 국토해양부의 최저주거기준을 참조하여 경기도 청년주거기준 설정 가능
주거 사업	서울	-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 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경기	- 1.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 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제공 사업 -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경남	- 1.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 2. 청년주택 공급 사업 -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 5.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주거실태조사와 청년주거감독관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 “청년주택 실태조사”를 시작, 2021년 현재에는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와 광진구 주거복지센터, 서울청년센터 광진오랑이 협업하여 ‘2021 광진구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위한 ‘청년주거감독관’ 프로그램을 운영
- 2021 광진구 청년주거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광진구 화양동에 거주하고 있거나 2021년에 거주경험이 있는 1인 가구 만 18세~39세/ 독립 후 비혼상태
주거형태는 무관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도 조사 참여 가능
 - (조사인원) 100명 / 해당주택 심층분석 30개소/ 해당주택 거주 청년 심층인터뷰 10명
 - (조사방법) 광진구 화양동 지역복지센터,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주거환경조사 및 주거욕구 조사를 진행
 - (주요 조사내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관리비 항목 확인 여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지 여부, 냉난방 어려움 정도,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어려움 정도, 길거리 치안 등
- 청년주거감독관 개요
 - (목적) 2021 광진구 청년주거 실태조사와 주거문제 파악, 개선방법 마련 등 청년 스스로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발굴
 - (참가자격) 청년주거문제에 관심이 있고 현장활동이 가능한 청년 10명
청년주거아카데미 수료자 우대
 - (주요 활동내용) 광진구 화양동 일대의 독립 청년 가구 대상의 주거환경조사, 주거욕구조사, 불법건축물 등을 키워드로 환경, 비용, 임대차 분쟁, 일상적 권리침해 등 전반적 현장 실태조사 진행
 - (사전교육) 강의 및 조별논의 중심의 사전교육 이수 후 활동 진행

	일정	주제
1	2021. 04. 21 (수)	청년주거의 현황 및 광진구의 특성
2	2021. 04. 28 (수)	집구하기 AtoZ
3	2021. 05. 06 (목)	실태조사 설문지 토크하기
4	2021. 05. 13 (목)	불법건축물과 부동산공부 발급
5	2021. 05. 20 (목)	실태조사 안내 및 강의 돌아보기

자료 :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다. 사회주택 조성 및 지원 관련 조례

- 사회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확대로 1인 가구,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제안된 주거정책
 - 사회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최장 10년이 거주 가능한 조건으로 주거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과 공동체성 회복을 노력하는 것이 특징이며
 - 사회주택의 운영주체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한정됨
- 사회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으로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자체/민간재원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 사회주택 관련 지자체 소관 조례는 총 8건으로 확인되며 이 중 시도 조례는 서울/부산/경기의 3개로 확인

[도표 4-9] 시도별 사회주택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개정)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01.07
부산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4
경기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08

- 조례는 대부분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주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회주택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과 추진사항,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또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라. 여성 주거안정 관련 조례

- 2021년 현재 여성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조례는 전무하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례가 일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는 전국에 총 135개로 확인되며 시도별 제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강원도의 경우 경기, 충남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이나 모두 기초단위 조례

[도표 4-10] 시도별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2	11	6	8	5	6	1	1	21	12	7	13	4	10	8	9	1
조례 제정 수	광역	-	-	-	-	1	1	-	-	-	-	-	-	-	-	-	1
	기초	12	11	6	8	5	-	1	21	12	7	13	4	10	8	9	-

- 대전과 세종, 제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를 직접 제정하였으며 이 중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2016.6.10.)」의 경우 아래의 조항에서 여성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공간 확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도표 4-11] 시도별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개정)
대전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2020.10.1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07.1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2019.05.08

[도표 4-12]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제8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편의
2. 안전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3.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4. 여성·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제10조(주거환경) 시장은 주택단지 조성, 주택·택지 등의 공급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마. 강원도의 청년과 여성, 주거와 관련한 조례 제정 현황

- 강원도는 국무조정실 소관의 「청년기본법」에 의거하여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 (2020.03.06.)하였으며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중 청년의 주거 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와 노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전,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불안정 요인의 제거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계획 수립과 노력에 대한 항목 외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 체계, 지원방식 등은 명시되지 않고 있어 조례의 제정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나타남. 또한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련 조례의 보완과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도표 4-13] 강원도 청년기본조례

제2장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보건,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불안정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여성의 주거환경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조례는 총 12건이며 이 중 9건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직접적인 조례임

○ 조례는 여성 뿐만 아니라 청년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주거공간의 마련과 공동체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있음

[도표 4-14] 도내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군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개정)
강릉시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7.10.11
영월군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운영 조례	2014.07.08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21.05.28
원주시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07.10
태백시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12.29
춘천시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03.07
홍천군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12.10
속초시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05.28
	속초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규칙	2021.07.16
횡성군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12.28
삼척시	삼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04.30
정선군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20.12.21

[도표 4-15]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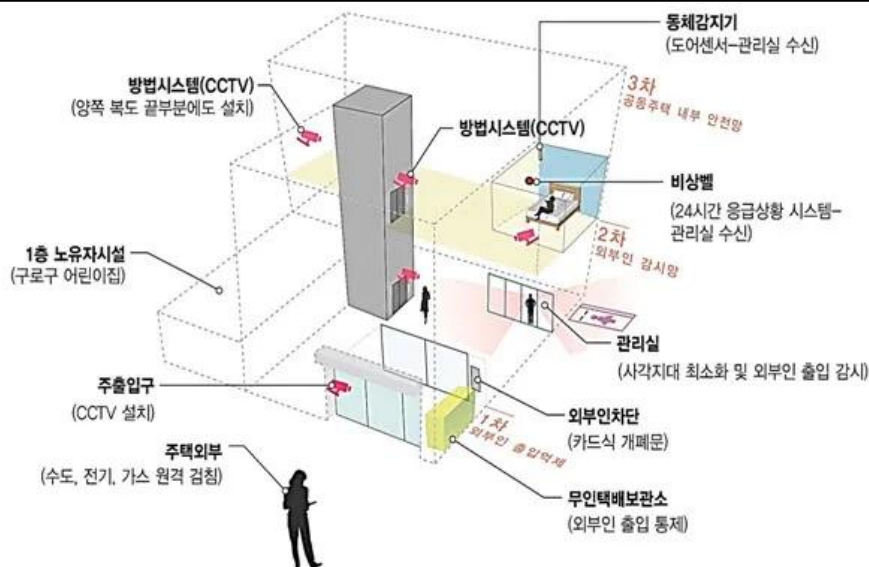
04.2. 청년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및 지원

- 「3.1. 통계로 보는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실태」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도내 청년세대는 ‘청년주택공급’을 가장 시급한 청년 주거정책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전국에 비해 그 요구도가 높은 수준임. 또한 강원도의 청년 1인 가구는 전국에 비해 주거안정성이 매우 떨어진 ‘임차 불안가구’가 상당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주거비는 과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의 주거상태가 매우 열악한 주거빈곤세대임
- 때문에 청년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여성전용 임대주택 공급은 제안하고 현재 타지역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례를 조사함. 사례는 행정기관이나 주택공급업체의 주도적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주도형사업의 사례도 포함하고 있어 청년여성의 주거 복지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접근하였음
- 특히 사회주택의 경우 사업의 대상이 청년과 여성을 포함하고 저렴한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을 추구할 수 있는 점에서 도내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주거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공공 주도 임대주택 : 서울시 여성안심주택 「천왕이펜하우스 S」

- 2014년 12월에 준공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1인 여성가구에 필요한 안전, 편리성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포함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아파트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무인택배함, 창문열림 감지벨, 비상호출벨 등의 안전 특화 설계가 적용

[도표 4-16] 서울시 여성안심주택 장치 설계도



구분		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지구
사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형태/집구조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분리형)
전용면적		30.48㎡
가구 수		96가구
전체 층수		지하 1층~지상 9층
임대조건	월 임대료	130천원~150천원
	보증금	7,000천원~8,000천원
입주대상		- (일반공급)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여성 1인 가구로 무주택세대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 중 중소기업 근로여성
주요 특징	시설안전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 주택 외부에서 수도 · 전기 · 가스 검침 처리 - 주출입구와 카드식 개폐문으로 이중 출입문 설치 - 세대별 방범창, 도난방지커버 설치 - 출입구, 엘리베이터, 각층 복도마다 CCTV 설치 - 가구마다 24시간 비상벨과 동체감지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관리실에서 직접 경찰서로 연락 가능
	커뮤니티	- 공동세탁실 - 지하 1층 다목적 공간 배치 - 옥외계단을 통한 외부전경 조망의 휴게공간 - 방문객 응접공간 - 공립(구립 어린이집)

[도표 4-17] 서울시 여성안심주택 세부 사진



〈주택 전경〉

〈지하공동실〉

〈어린이집〉

〈공동세탁실〉

자료: 서울특별시 공동체 주택 플랫폼

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 서울시 신내동, 여성안심주택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 서울시가 추진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며 여성1인 가구만이 입주 가능한 주택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낡은 비주거 시설(고시원, 여관 및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공간이 반영된 셰어 하우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로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의 1인 가구로서 청년층을 포함한 저소득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운영 관리는 민간 공모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주택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가 담당
 -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하 소행주)」는 성미산 마을의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시작된 공동주택사업체로, 신내동의 여성안심주택은 여성안심 공동체 주택으로 건설
- 여성안심주택 내에는 카페형 커뮤니티실이 있고, 바로 옆에는 육아공동체주택이 위치
 - 육아공동체 주택에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중랑구 키움센터, 마을도서관이 소재하고 있어 공동체 주택간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용이
- 주택은 여성안심시설로 대문-현관문-세대문의 3중 출입문 시설을 적용하고, 택배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층별/세대별 집 구조를 달리 적용하여 입주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주거선택 가능한 것이 특징임

구분		내용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사업자		사회주택기업 주식회사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주거형태/집구조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분리형)
전용면적		A타입 31.18㎡/ B타입 36.38㎡
가구 수		24가구
전체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임대조건	월 임대료	10원~350천원
	보증금	4,000천원~200,000천원
입주대상		무주택 여성 세대주

[도표 4-18] 서울시 신내동 여성안심주택 세부 사진



자료: 서울특별시 공동체 주택 플랫폼

다.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사회주택 : 전북 전주시, 여성청년 안심 사회주택 「청춘 101」

- 서울을 제외한 지방 최초로 시행하는 사회주택으로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건설
 - 대학교와 대형병원이 인접하여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의 청년이 많은 지역의 기존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 (토지임대부 리모델링형 다가구주택)
- 입주민을 위한 건물 내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무인택배함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환경 조성
- 월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67% 수준이며,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입주전 사전 교육이 필수

구분		내용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사업자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주거형태/집구조		단독주택(다가구)
전용면적		A타입 31.88㎡/ B타입 33.76㎡
가구 수		15가구
전체 층수		지상 3층
임대조건	월 임대료	200천원
	보증금	2,000천원
입주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여성이며 무주택인 자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또는 복학 예정인 자 중 본인 가구 소득분위 6분위 이하인 자 -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이후 전입 필수 - (청년)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경우 - (사전교육) 입주자 사전교육 이수 후 공동체 생활에 동의한 자

[도표 4-19] 전주시 청춘 101 세부 사진



<주택 전경>

<내부 전경>

<입주자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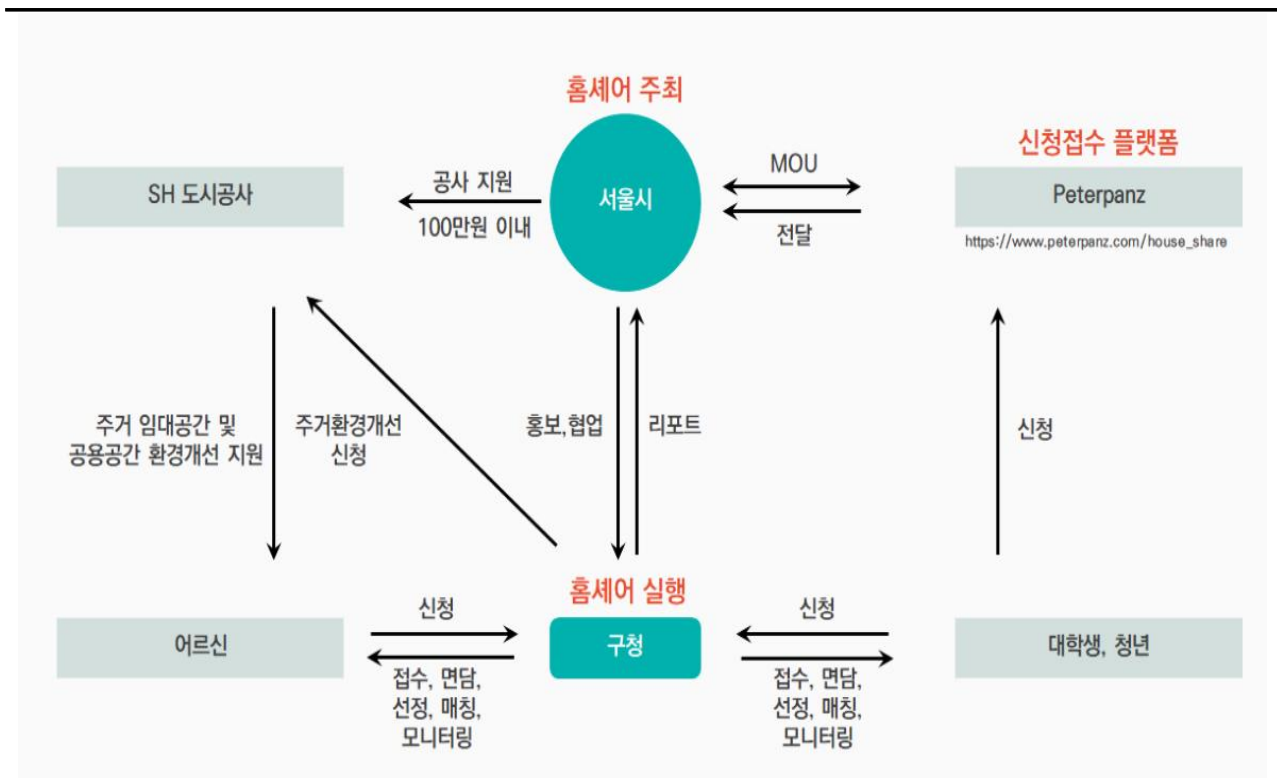
<무인택배함>

자료: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라. 홈셰어 사업 : 서울시 한지붕세대공감

- 서울시는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과 어르신이 주거를 공유하는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을 시행
 - 자녀독립 등의 이유로 공실이 있는 방을 저렴한 시세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분리된 2층이나 지하 공간 월세 등은 불가
 -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독립된 방을 사용하며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은 공동으로 사용
- 주택을 소유한(자가·전세) 60세 이상의 노인은 사업참여를 위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실당 1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받아 도배, 장판 등의 교체가 가능하고 대학생은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 내외의 저렴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 임대 사업

[도표 4-20] 한지붕세대공감 운영구조



자료: 홈셰어코리아

[도표 4-21] 한지붕세대공감 운영사례



자료: 홈세어코리아

○ 신청자격은

- 임대인 :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택(주생활 공간을 제외한 방 1개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임차인 : 서울시 소재 대학(원)교 재학 및 휴학생

○ 최소임대기간은 6개월이나 연장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성별 매칭을 기본조건으로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 또한 임차인(청년)과 임대인(노인)간의 분쟁, 갈등 문제 해결과 중재를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마. 근로자 아파트 : 경기 성남시, 미혼여성근로자 임대 아파트 「다솜마을」

-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미혼여성근로자 전용 임대아파트
 - 성남시 관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 중 4대 보험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운영
- 지하 2층~지상 15층의 아파트 3개동 규모로 총 200세대 입주 가능
- 1인실과 2인실로 입주 유형이 병행되며 독서실, 헬스장, 배드민턴 장 등 부대시설이 다양

구분		내용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번길 21
사업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거형태/집구조		아파트
전용면적		49㎡
가구 수		15가구
전체 층수		지하2층~지상12층
임대조건	월 임대료	- (1인세대) 165천원 (2인세대) 90천원
	보증금	- (1인세대) 2,000천원 (2인세대) 1,500천원
입주대상		- 성남시 관내 각 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 중 4대보험 가입자 - 근무업체에서 추천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 - (입주우선순위) 저소득/ 연령이 낮은 순/ 기숙사 미보유 사업체 등

[도표 4-22] 성남 여성근로자 아파트 세부 사진



자료: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참고)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시세의 72~80%)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문화+일자리지원 시설이 복합된 모델인 일자리 맞춤형 행복주택으로, 국토부가 지난 2018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 중임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1)창업지원 주택, 2)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3)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아래와 같이 입주대상을 구분함

주택유형	항목	주요내용
창업지원주택	개 념	창업자, 예비창업자(해당기업 근로자) 등에게 주택과 입주자의 미래성장에 도움을 을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시설·서비스 : 업무회의공간, 사무공간 등과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 간, 창업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창업관련 프로그램 등
	입주대상	청년 창업인 등이 대상이며,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 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
	임대조건	주변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개 념	지역전략산업에 종사자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고 인근 에 지원시설,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임대주택
	입주대상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인정하는 사람
	임대조건	주변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개 념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특화시설(휘트니스, 공용회의실 등) 등 을 함께 제공하는 중기근로자 특화 임대주택
	입주대상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급
	임대조건	시세의 약 72%~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 2021년에는 총 9개 지자체가 공모하여 전문가 평가 후 7개 지구/ 6개 지자체가 선정

유형	지역	지구명	호수	사업시행	연계시설
합계		7개지구	1,192		
창업 지원주택 (2곳, 250호)	경기	화성병점	150	LH, 화성시	창업지원시설, 공공청사 등
	경기	안성청사복합	100	안성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청사, 코워킹스페이스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3곳, 800호)	서울	서울용산서계	200	LH,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공공청사 등
	부산	부산초량	450	LH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시설 등
	전남	영광대마	150	LH,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시설 등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2곳, 142호)	충남	충남금산	100	LH, 금산군	지역커뮤니티·문화시설 등
	전남	화순동면	42	화순군	지역커뮤니티문화시설 등

바. 해외사례 : 일본 오사카, 여성자립지원을 위한 「오사카 부영주택의 셰어하우스」

- 무주택 10~20대 여성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가정폭력이나 빈곤 등의 취약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취업 등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무주택여성이 주소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타인의 주택에 기거하여 폭력 등의 문제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사회복지사와 주택건설사 등이 협력하여 셰어하우스 건립
- 원칙적으로 일본의 부영주택은 고령, 장애 등의 특수상황이 아닌 1인 가구는 입주가 불가능하나 셰어하우스 전문기관인 아도미리 기업이 국가로부터 부영주택을 빌려 청년여성에게 재임대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 생활상의 제한이 많아 청년여성의 삶의 질이 하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렴한 임대료로 셰어하우스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며 자립을 위한 활동 전개가 가능
- 입주민은 70㎡의 1개 주택을 3명이 공유하되 방은 독실로 사용하고 욕실과 화장실을 공유하며 보증인과 사례금 없이 아도미리 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입주 상담 및 신청이 가능

[도표 4-23] 오사카 부영주택 셰어하우스 세부 사진



자료: 아사히신문

(참고) 국토부, 20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 국토부는 지방의 낙후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1년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최종 12개로 선정하고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본격 추진 예정
 - 주거플랫폼 :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업
- 사업은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유형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투자선도지구	경남 함양	경남 함양 e-커머스 물류단지	- (주)쿠팡이 설치 예정인 대규모 물류센터와 연계하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면적) 650,858㎡ (사업비) 총 1,740억원 (사업기간) '22 ~ '26년 - 물류단지에 물류·유통·가공·제조 등 다양한 민간기업 등을 유치·집적화하여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 물류단지 근로자와 기존 주민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100호)과 복합커뮤니티시설 등도 함께 공급
지역수요맞춤지원	거창군 영동군 옥천군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지자체, 학교, LH 등이 함께 노력하여 전·입학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 -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돌봄공간,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공유카페, 생활체육공간 등을 조성하고, 초등학생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정비
	정선군 청양군 상주시 의성군 하동군	청년 창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 창업지원센터 운영, 스마트팜 교육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지자체별로 창작홍보판매 등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예비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멘토링,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창업·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 - 이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문화체육 시설 등을 함께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

(참고) 국토부, 20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주거플랫폼」 사업 추진 (계속)



- 이 중 강원도 정선군의 청년 창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의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청년 창업공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지역 내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추진
 -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상품 홍보, 판매를 위한 스튜디오, 사무공간 및 도서관·문화공간 등 조성
 - 예비창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멘토링 등도 지원
 - (주거) 청년과 기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80호 공급



자료: 국토교통부

04.3.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

- 1인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에 비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고 특히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큼. 또한 20·30대 여성 1인 가구는 동 연령대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의 시선에 대하여 곤란한 상황이 많고 성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각종 범죄피해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안심귀갓길 조성 및 안심동행서비스 등은 많은 지자체가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강원도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확대 또는 청년지원조례를 근거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지자체 특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내 청년 여성 1인 가구가 개인의 안전을 영위하고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지역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가. 서울시,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사업

-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은 서울시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민간 보안기업(ADT캡스)와의 업무협약으로 1인 가구의 주택에 아래의 주요 장치 및 서비스를 제공
 - 도어카메라 : 움직임 감지 센서로 현관 앞 배회자 실시간 감지 및 알림
 - 실시간 원격제어 : 전용 앱을 통한 실시간 현관 앞 영상확인 및 출동요청
 - 긴급출동서비스 : 비상상황 발생 시 최단거리의 출동대원이 신속하게 출동

[도표 4-24] 서울시 1인 가구 안전도어 지킴이 사업 내용

구분	내용
도어지킴이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카메라를 현관문에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요청할 수 있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로 24시간 가동
카메라	움직임 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방문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용 모바일 앱으로 알림을 전송. 이용자인 1인 가구는 앱으로 방문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비대면/ 쌍방향으로 대화가 가능
긴급출동	이용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단거리에 있는 에이디티캡스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며, 이용자가 직접 전용 모바일 앱의 비상 버튼이나 집안에 설치된 SOS 비상버튼을 눌러 출동요청 가능

-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중 임차주택 거주자로, 서울시의 이용료 보조로 최초 1년의 경우 월 1천원으로 주거안전서비스 이용 가능
 - 1년 경과 이후 협약내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서울시 거주 1인 가구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 가능

[도표 4-25] 서울시 - ADT캠스 협약 내용

구분	협약내용	비고
서비스이용료	9,900원	일반이용가 18,750원
보안요원 긴급출동	무료	일반출동의 경우 건당 25천원
보험가입	가입	화재, 도난, 파손 등에 보상 가능
장비	현관 cctv, 실내비상벨 부착	업체가 방문하여 직접 부착

[도표 4-26] 서울시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사업 내용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 선명한 Full HD 영상으로 확인 가능	 배회자 감지 및 알림 낮선 배회자의 움직임 실시간 감지 및 알림	 양방향 대화 가능 언제 어디서나 방문자와 음성 대화 가능
 24시간 출동 서비스 현관문을 통한 이상신호 감지 시, 최단거리의 출동대원이 신속하게 출동	 SOS 비상버튼 SOS 비상버튼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 출동 요청	 현관문 출입내역 확인 실시간으로 현관문 압·퇴실 확인 가능

자료: 서울시

나. 서울시 외,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지원사업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지원사업을 실시
 - 지원물품 : 방범창, 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등 지역별 상이
 - 지원대상 : 사업시행 구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중 (주민등록 등본상 단독 세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아파트 거주자 및 자가소유자는 제외)

[도표 4-27]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포스터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다. 서울시 관악구, 여성안심원룸 인증

- 관내 원룸형 건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임대인의 자발적 시설 개선 유도과 여성 임차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관악구는 전국원룸협회와 협업하여 원룸 범죄예방 진단 및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 중
- 인증대상은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내 원룸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성안심원룸’ 인증을 요청할 경우 경주시와 경주경찰서가 합동 현장진단을 추진하고, 진단결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성안심원룸’으로 지정 후 인증 현판 수여
 - 심사기준은 1)관리운영체계, 2)조경·조명, 3)현관문 방범장치·비상벨 설치여부 등 총 52개 항목을 진단하고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안심원룸으로 인증하고 인증패 수여
- 2020년 기준 2호 원룸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경찰서는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임대인은 자발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노력하는 다자간 업무협력과 민관 공조가 특징

라. 충북 청주시, 방역 서비스

- (충북 청주시) 청주시 청년센터-민간 방역기업(세스코) 업무협약으로 관내 1인 청년 가구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클린홈 만들기’ 사업 추진
 - 관내 20·30대 청년 1인 가구의 거주지에 해충방제 및 살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 2021년 기준 총 25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월 1회, 총 4회 제공

04.4. 커뮤니티

- 2021년 8월에 개최한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상상 워크숍」에 따르면, 도내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다음과 같은 주거공간을 선호
 - (주거시설) 카페식 공유공간, 공용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주거공간
 - (서비스) 취미 소모임, 돌봄 공동체, 비용경감을 위한 공동 구매 등을 위한 커뮤니티 등
- 청년 여성 1인 가구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 중 의식주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해결과정에서 자립심과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
- 타지역의 경우 대부분 시군구 단위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청년센터에서 청년이나 1인 가구 대상 특강, 물품 나눔,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커뮤니티 공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공간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2곳에 지나지 않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년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 연계의 커뮤니티센터와 활동지원이 요구됨

가. 자립역량 강화 교육

- 지자체 또는 중간지원조직(다문화가정지원센터 또는 청년센터 등)이 20-30대 청년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애로사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제공
 - (서울시 양천구) 집 구하기, 집수리, 일상생활 안전교육, 반찬 만들기 등 여성 1인 가구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서울시 중랑구) 청년여성에게 필요한 성 지식, 성병관리, 유방 자가진단, 데이트 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제공
 - (경기도 의정부시) 음식키트를 활용한 홈 쿠킹클래스 제공
 - (부산시 진구, 대구 중구 등) 사회초년생 맞춤형 재무관리, 장보기 꿀팁 등 경제활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도표 4-28] 서울시 1인가구 지원사업 (금융, 주거 교육) 홍보 포스터

알·ZIP 제2편 폴지마 금융!	알·ZIP 제3편 집구하기 A to Z
모집대상 서울생활권역 (직장, 학교, 거주지 서울)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20대~30대 인원 15명 일시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19시~21시 강사 김영재 강사님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모집대상 서울생활권역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20대~30대 15명 일시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19시~21시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교육 (ZOOM) - 노트북, 스마트폰 가능 (★노트북추천★)
내용 [금융초초초초초보탈출] -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기초정보 - 금융호갱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 선택 노하우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교육 (ZOOM) -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PC가능 신청 	내용 집 구하기 A to Z - 집 구하기 사전 준비 - 집 보러 갈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 주택임대차계약 맺는 법! -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신청
출처: 미래엔버스 문의 070-4203-6262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출처: 미래엔버스 문의 070-4203-6262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패밀리서울

나. 청년공간

- 고용노동부 ‘온라인청년센터’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학습, 그룹스터디, 공유부엌, 공연장소, 소모임 장소 등 대한민국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공간’ 검색과 온라인 이용 신청 가능
 - 청년공간은 시설마다 공간유형은 상이하나 라운지, 강연장, 회의실, 휴식공간, 창업입주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빔프로젝트나 PC, 프린터, 마이크 등의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
 - 지역 내 일자리센터 등과 연계된 공간의 경우 청년층 취·창업과 주거, 금융, 문화복지 상담창구도 이용 가능
- 2021년 9월말 기준, 전국의 청년공간은 총 218개소이며 시군별 이용 가능 공간의 분포는 다음과 같음
 - 강원도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춘천시 소재)와 연세대 학생회관(원주시 소재)의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강연장 1개소/ 연세대는 라운지 1개소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시도의 청년공간에 비해 시설 수나 공간유형이 다양하지 못함

시도	개소	비고
서울	66	구단위 청년센터, 도서관, 복지관, 창업지원기구, 대학교, 민간기관(신한금융그룹 등 협력)
부산	14	창업지원기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도시철도 협력 등
대구	17	청년센터, 창업지원기구, 정부운영기구 등
인천	6	창업지원기구, 협동조합 등 민간단체 등
광주	13	복지시설, 청년창업기구 등
대전	9	청년 창업지원기구, 협동조합 등 민간단체 등
울산	4	청년센터, 일자리 지원기구 등
경기	34	청년센터, 문화재단 등
강원	2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충북	5	기업진흥원, 창업지원기구 등
충남	3	청년센터 등
전북	12	청년센터, 민간연구기구, 창업지원기구 등
전남	11	청년센터 등
경북	9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창업지원기구, 청년센터 등
경남	6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센터 등
제주	6	청년센터, 복지센터 등
세종	1	청년센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공간

연세대 청년공간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

05 정책제언

강원도 내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주거실태와

전국 사·도의 다양한 청년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사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

1_기존의 청년 및 여성 주거지원 관련 조례의 개정

-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서 ‘주거기본조례’ 및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 중 10개 시·도에서는 1인 가구 기본조례도 제정하여 운영 중
- 청년 주거조례가 제정·운영 중인 곳은 서울, 경기, 전남, 경남의 4개 시·도뿐이며, 강원도의 경우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보장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선언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 또한 전국적으로 대전, 세종, 제주에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여성친화도시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여성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로 활용
- 강원도 내의 9개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조례가 지정되어 있으나, 강원도 광역 차원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선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
- 따라서, 기존의 강원도 주거기본조례, 청년기본조례의 청년 주거안정 보장에 대한 지자체 책무와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고, 광역 차원의 여성친화도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차원의 청년여성의 주거안정과 도시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여성 주거지원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기존의 청년주거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포함)하고 청년주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서울과 경남, 경기도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주거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비정상거처 거주 청년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2_여성친화도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강원도형 청년여성 안심주택’ 공급

- 강원도 내 청년세대는 ‘청년주택공급’을 가장 시급한 청년 주거정책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그 요구도 또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또한,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상상 워크숍 결과, 청년여성 1인 가구의 경우는 단독생활에 따른 범죄노출 우려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실제 위험한 경험을 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안전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짐.

- 따라서, 상기의 여성친화도시지원조례 및 청년주거지원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청년주거지원사업으로서 청년여성 안심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전용 임대주택의 시범공급을 추진
- 특히, 여성의 도시생활에서의 안전을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사업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활력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강원도형 여성전용 안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하여 시범지구를 발굴,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역특화사업모델 중 여성친화 특화 도시재생 모델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도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시·군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지역 내에서 시범공급 가능성을 검토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2021.9.21.)]

지역특화재생모델 중, ‘여성친화 특화모델(중심·일반·주거·우리동네)’

- (주요내용) 도시재생 전 과정에 양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녀돌봄, 여성고용 지원, 범죄예방설계 등 지역 여성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사업 설계
 - 주민협의체 여성분과 운영,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주도적 참여 등 성평등한 재생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부합하는 H/W 및 S/W 구축
 - *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 (인정요건)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예정)도시이면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 특화모델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증빙 문서 제출)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협력사업으로 여성근로자 전용 임대주택 등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도 고려 가능

3_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범죄피해 두려움이 크며, 특히 연령이 낮은 청년여성일수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는 경향.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피해 발생을 줄이고자 범죄안전 키트를 제공하거나 안심귀갓길 조성, 안심동행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

- 범죄 예방 등 관련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이나, 거리조성이나 귀갓길 안전에 국한되는 경향으로, 주거시설 내에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주거안전서비스를 지원(서울시 사례)하거나, 관내 신규로 이사하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키트(방범창, 휴대용 긴급벨 등)를 지원하는 등(서울시 등)의 지원하는 방안 추진

4_청년주거지원 플랫폼을 통한 정책홍보 및 교육 등

-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정책홍보를 위한 강원도 내 청년주거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개인별 경제상황과 향후 진로 등과 연계하여 보다 나은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홍보하고 부동산 거래, 간단한 집수리 등과 관련한 교육서비스 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많지 않고, 청년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안전한 주거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현실로, 지역 내 안전한 주거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임대인들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청년의 주거실태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안심주거 인증제(서울시 관악구 사례) 등을 운영하여 안전한 주거정보를 확보
- 또한, 청년여성들의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상식 수준을 높이고, 간단한 시설은 주거환경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일반 및 거래와 관련한 교육(부동산중개업 관련 협회 연계)과 여성대상 집수리 교육(2021년 춘천사회혁신센터 2회 진행)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5_1인 가구 밀집지역의 청년(여성)을 위한 공동체 공간 지원

- 생활인프라 시설이 열악한 1인 가구 주거밀집지역에 청년여성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공간 마련 지원
- 1인 가구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 중 의식주와 관련한 생활서비스를 거점공간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 연계의 커뮤니티센터 공간과 프로그램 활동지원 모색
 - 타지역의 경우 시군군 단위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나 청년센터에서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나눔, 교육,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중
 - 고용노동부의 청년공간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나 도내 전체에 2곳만 운영 중이며, 대학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주거지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공간 대응에는 어려움